차 례

머 리 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대학졸업생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대학생들은 대학기간에 외국어학습을 강화하여 한가지이상의 외국어를 반드시 소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학기간에 외국어학습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외국어학습의 효률을 높이기 위한 아무런 방도도 모색함이 없이 그저 노력하기만 해서는 외국어실력을 높일수 없다.

조선말을 처음 배우던 때를 돌이켜보거나 외국어학습을 잘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이런저런 결론을 얻을수 있겠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과 외국어학습을 일치시켜야 한다.》, 《생활적인 환경과 형식속에서 새삼스럽게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감정속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외국어지식이 효과적이다.》라는 방향으로 지향된다.

유모아와 일화를 통한 영어학습은 외국어학습을 생활적인것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공간의 하나로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 성공과 실패 등과 같이 감정정서적으로, 인생관적으로 여운이 짙은 생활들에 대하여 쉽게 잊지 않으며 자주 회고하군 한다.

이 참고서는 바로 이러한 생활단면들을 영어유모아와 일화로 재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웃음과 랑만을 안겨주고 유쾌한 롱과 웃음속에 자연과 사회, 사업과 생활의 깊은 뜻과 교훈을 깨우쳐주는 것은 물론 영어학습에서도 효률을 높여주기 위하여 집필되였다.

이 참고서에는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정치, 군사, 경제, 과학, 교육문화, 문학예술,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의 영어유모아와 일화들이 들어있다.

참고서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 불타는 맹세안고 긴장한 학습전투를 벌리고있는 학생들에게 적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독자들의 의견을 바란다.

Ⅰ. A Social Life

사 회 생 활

**"Laugh, and the world laughs with you;
weep, and you weep alone."**

1. School and Education
학교와 교육

Slick Reply
교묘한 대답

Pupils were asked to write about the harmful effect of oil and fish.

One 11-years-old boy wrote: "When my mum opened a tin of sardines last night it was full of oil and the sardines were dead."

학생들이 기름과 물고기의 유해로운 점에 대하여 작문을 지을 과제를 받았다.

11살난 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썼다.《어제밤 우리 어머니가 정어리통졸임을 뜯었는데 그안에는 기름이 가득차있었고 정어리들은 몽땅 죽어있었습니다.》

"I Wasn't Listening."
《듣지는 않았는걸요.》

Mother asked her little daughter who was reading a book.

"What are you reading, dear?"

"I don't know."

"You don't know? But you were reading aloud, so you must know."

"I was reading aloud, mummy, but I wasn't listening." explained the child.

어머니가 책을 읽고있는 딸애에게 물었다. 《얘야, 너 무슨 책을 읽고있니?》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구? 소리내여 읽고있으면서두 몰라?》

《소리내여 읽고는 있지만 듣지는 않았는걸요.》 아이가 설명했다.

A Sixth Sense
여섯번째 감각

Father shook his head sadly as his son John left the room. For the third successive month his report card showed nothing but Ds. “I’m finally convinced,” he told his wife, “that John must have a sixth sense.”

“What makes you think that?” She replied in a puzzled tone.

“Well,” said her husband. “His report cards show no sign of the other five.”

아버지는 아들 죤이 방에서 나가자 서글프게 머리를 저었다. 내처 석달째 아들의 성적증에는 D밖에 보이지 않았다.《내 이제야 알겠소.》그는 안해에게 말했다.《죤한테는 분명 여섯번째 감각이 있소.》

《어째서 그렇게 생각해요?》안해가 어리둥절해하였다.

《그건말이요. 그 애 성적증에 다른 다섯개의 감각이 있다는 표시가 없기때문이요.》

※ D-학업성적평가법에서 제일 낮은 합격점수

-All that shines brightly is not gold.
반짝이는것이 다 금인것이 아니다.
(from a Comedy “The Merchant of Venice” by William Shakespeare, 1564-1616)
-Who ventures nothing has no luck.
모험하지 않는자 행운을 얻지 못한다.

Arithmetic
산수

Teacher: If I lend your father 100 pounds and he agrees to repay the money in five consecutive months equally, how much money should he give me per month?

Pupil: Five pounds.

Teacher: Wrong. You don't know arithmetic at all.

Pupil: Sir, I know arithmetic very well. It is you who do not know my father at all.

교원: 만일 내가 학생의 아버지에게 100£를 꿔주고 학생의 아버지가 매달 같은 량으로 다섯달동안 돈을 물기로 계약했다고 하는 경우 학생의 아버지는 매달 얼마의 돈을 나에게 물어야 합니까?

학생: 5£입니다.

교원: 틀렸습니다. 산수를 전혀 모르는군요.

학생: 아닙니다. 전 산수를 아주 잘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Failure
실패

Billy had been to school for the first time.

"Well, darling, what did you learn?" asked his mother, when Billy came back home.

"Nothing," sighed Billy hopelessly, "I've got to go back again tomorrow."

빌리는 오늘 처음으로 학교에 갔다왔다.

《그래, 얘야, 뭘 배웠니?》빌리가 돌아오자 어머니가 물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은 절망에 빠져 한숨을 쉬였다.《래일 다시 갔다와야겠어요.》

Composition
작문

The teacher is giving his pupils a written examination. He wants them to write a composition.

The theme is “My dog” no less than 150 words.

Little Tommy thinks for a moment, and then begins to write.

“I have a dog. I call him Bobby. I like my dog. He is all black, only the nose is white…”

Tommy stops writing, counts the words: 21.

He scratches his head, thinks for a few moments and continues: “Everyday I take Bobby out for a walk in the park. But when it rains, I do not take him out for a walk.”

Another 24 words. 45 words altogether.

“I often give Bobby a bath. He likes having a bath, and I like giving him a bath… We both like it.”

He counts the words again: 67.

Tommy scratches his head again, looks at the ceiling, looks at the blackboard, but finds nothing there. He sighs, thinks for a second, and continues: “Bobby likes sugar, so I often give him some sugar. But sometimes we do not have any sugar in the house, and then I don’t give him any…”

A long pause.

Suddenly a thought strikes Tommy.

He smiles happily and writes quickly.

“When I want Bobby to come, I call, ‘Bobby!’ If Bobby does not come, I call, again ‘Bobby! Bobby! Bobby …!’ If he still does not come, I just shout, ‘Bobby, Bobby, Bobby, Bobby, Bobby…!’”

Tommy counts the words: 149.

He adds one more “Bobby”, writes down his name at the bottom of the sheet and hands it to the teacher.

교원이 학생들에게 필답시험을 치고있습니다. 다들 작문을 지을 것을 요구합니다. 제목은 《나의 개》인데 자그만치 150개의 단어를 가지고 글을 짓는것입니다.

어린 토미는 잠간 생각하고나서 쓰기 시작합니다.

《개가 한마리 있습니다. 이름은 보비라고 합니다. 나는 개를 아주 사랑합니다. 온통 까만 털로 덮여있는데 코만 하얗습니다. …》

쓰기를 그만두고 단어를 세여보니 21개입니다. 토미는 한동안 머리를 긁적거리며 생각하다가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매일 나는 보비를 데리고 공원에 산보를 나갑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날이면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다.》

세여보니 24개 단어입니다. 그러니 도합 45개입니다.

《난 자주 보비에게 목욕을 시킵니다. 보비는 목욕을 좋아하고 나 역시 보비를 목욕시키기가 좋습니다. 우리는 둘 다 그것을 좋아합니다.》

다시 단어를 세여보니 67개입니다.

토미는 다시 머리를 긁으며 천정을 쳐다보고 칠판을 바라보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숨을 쉬며 잠간 생각해보고는 계속 써내려갑니다. 《보비는 사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난 자주 사탕을 좀 주군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집에 사탕이 없을 때가 있기때문에 그때는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

한참동안 잠자코있는데 불쑥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토미는 벌씬 웃으며 재빨리 써내려갑니다. 《나는 보비를 부르고싶으면 <보비!>하고 찾습니다. 만약 보비가 오지 않으면 다시 <보비! 보비! 보비!>하고 찾습니다. 그래도 그냥 오지 않으면 난 또 <보비, 보비, 보비, 보비, 보비…!>하고 소리칩니다. …》

토미가 단어를 세여보니 149개입니다. 그래서 《보비》라는 단어를 한번 더 쓰고 종이장 맨밑에 자기 이름을 써넣고는 선생님에게 바쳤습니다.

-Love adds a precious seeing to the eye.

사랑은 눈에 귀중한 시력을 보태준다.

(William Shakespeare, 1564-1616, 영국의 극작가, 시인)

-If you keep at one thing for long enough, you're sure to find something.

한가지를 오래동안 파고들면 반드시 무엇이든 발견하게 된다.

Allergy to School
학교알레르기

Alice: May I get up tomorrow, nurse?

Nurse: No, you mustn't. You ought to be a little more patient. By the way, why did you break your leg?

Alice: I was trying to ride a motorbike and bumped against a tree.

Nurse: You were lucky you didn't get a worse injury.

Alice: When can I go home?

Nurse: That's what your doctor decides. I'm afraid you won't be allowed to go home until next week. Until then you don't have to go to school.

Alice: Good!

앨리스: 간호원누나, 내가 래일 일어나도 일없나요?

간호원: 안돼. 넌 조금 더 치료받아야 해. 그런데 다린 왜 부러졌니?

앨리스: 오토바이를 타보려다가 나무를 들이받았어요.

간호원: 넌 운수가 좋아.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어.

앨리스: 언제면 집에 갈수 있나요?

간호원: 그건 의사선생님에게 달려있어. 아마 다음주까지는 집에 못 갈거야. 그때까진 학교에 가지 말아야 한다.

앨리스: 야. 좋다!

How Big Is the Earth?
지구는 얼마나 큰가?

Teacher: The sun is 1 300 000 times as big as the earth. Now, Bill, how big is the earth?

Bill: 1/1 300 000th of the sun!

교원: 태양은 지구보다 1 300 000배나 큽니다. 그럼 빌학생, 지구는 얼마나 클가요?

빌: 태양의 1/1 300 000입니다!

A Good Answer (1)
훌륭한 대답 (1)

Teacher: If you throw a white stone into the red sea, what will it become?
Jack: It will become wet.

교원: 만약 학생이 하얀 돌을 홍해에 던지면 어떻게 될가요?
젖을겁니다.

School
수업

Teacher: Children, there will be only a half-day of school this morning.
Johnny: (in back seat) Whoopee! Hurray!
Teacher: Silence. We'll have the other half this afternoon.

교원: 학생들, 오늘은 오전에 반나절만 수업을 하겠습니다.
죠니: (뒤자리에서) 야! 만세!
교원: 조용해요. 오후에 그 나머지 수업을 해요.

You can never correct your work until you have forgotten it.
자기의 작품을 다 잊기 전에는 작품의 결함을 바로잡을수 없다.
(Voltaire, 1694-1778, 프랑스의 작가, 철학가, 계몽사상가)

A Good Answer (2)
훌륭한 대답(2)

The teacher was trying to impress upon her pupils the importance of doing right at all time. In order to bring out the answer, "Bad habits", she asked: "What is it that we find so easy

to get into and so hard to get out of?"

There was silence for a moment and then one little fellow answered, "Bed."

Another boy answered, "Swimming-pool."

선생은 어느때나 옳바르게 행동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강조하느라 애쓰고있었다.《나쁜 버릇》이라는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는 물었다. 《들어가기는 무척 쉽지만 나오기 힘든것이 무엇일가요?》

한동안 잠잠해있는데 어린 학생 하나가 일어나 대답했다. 《잠자리입니다.》

또 다른 학생이 말했다. 《수영장입니다.》

Excellent Schoolboy (1)
우수한 학생(1)

Teacher: "Walter, spell FROG."
Walter: (standing slowly) "F - R - F - R"
Then the boy sitting in back of Walter stuck him with a pin and he yelled, "Oh, gee!"
Teacher: Correct!

교원:《월터, 개구리철자를 말해보시오.》
월터: (천천히 일어나) 《에프-아르-에프-아르》
그때 뒤에 앉은 학생이 삔으로 그를 콕 찌르는 바람에 월터는 소리쳤다. 《오우, 쥐!》
교원: 《맞았습니다.》

Excellent Schoolboy (2)
우수한 학생(2)

The father was reading the school-report which had just been handed to him by his son. He got angry as he read: "English, Poor: French, Weak; Mathematic Fair." He looked at the quaking boy.

"Well, dad." said the son, "I don't think it is very good, but have you seen that?" and he pointed to the next line, which read: "Health, Excellent."

아버지는 아들이 금방 내민 성적증을 보고있었다. 아버지는 읽으면서 성을 냈다. 《영어: 락제, 프랑스어: 보통, 수학: 우등》 아버지는 몸을 부들부들 떨고있는 아들을 보았다.

《저, 아버지.》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그닥 좋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저걸 보셨어요?》하면서 다음란을 가리켰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져있었다. 《건강: 최우등.》

Potato Salad!
감자쌀라드

Teacher: If I take a potato and divide it into two parts, then into four parts, and each of the four parts into two parts, what would I have?

Little Emily: Potato Salad!

교원: 내가 감자 하나를 가지고 두 쪽으로 나눈 다음 네 쪽으로 나누고 또 그 네 쪽을 각각 다시 두 쪽으로 나누면 무엇이 얻어질가요?

에밀리학생: 감자쌀라듭니다!

-You cannot believe all that you hear.
귀에 들리는 모든것을 다 믿을수 없다.
(from " The Canterbury Tales" by Geoffrey Chaucer)
-To know the good is to react against the bad.
좋은것을 알게 되면 나쁜것을 반대하게 된다.

Choice
선택

Ann: What kind of test are we having today?
Teacher: Multiple choice.
Ann: Good! I choose not to take it.

앤: 오늘은 어떤 시험을 칩니까?
교원: 선택시험이예요.
앤: 야, 좋다! 그럼 전 시험을 치지 않는걸 택합니다.
※ Multiple choice test-다중선택시험 (《그렇다》(○), 《아니다》(×)로 평가)

"How Old Are You?"
《몇살입니까?》

Mother: Don't ask a woman how old she is.
Son: I knew I should not ask it, but the other day when a young woman teacher came to our class, I said her, "How old are you?" without thinking.

어머니: 녀성에게 몇살인가고 묻지 말거라.
아들: 그래선 안된다는걸 알아요. 한데 언젠가 처녀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온 날 생각없이 물었어요. 몇살인가구요.

How Was He Shot?
그가 어떻게 총에 맞았는가?

Teacher: I wonder how Nelson was shot.
Pupil: He was on the deck. He was easy to hit.

교원: 넬슨이 어떻게 총에 맞았을가요?
학생: 그는 갑판우에 있었습니다. 총에 맞기 쉬웠거든요.

※ Horatio Nelson(1758-1805)-영국의 제독, 트라팔가 앞바다에서 나뽈레옹 1세의 해군제독 빌뇌브(1763-1806)가 지휘하는 함대를 격파하였으나 자신은 전사하였다.

"Try Next Time"
《다음번엔 잘하라》

Teacher: How careless of you to make the same mistake twice!
John: Never mind. I'll do better next time.

교원: 같은 결함을 두번씩이나 반복하다니! 얼마나 덜퉁하나 보라요.
죤: 걱정마십시오. 다음번에 더 잘하겠습니다.

-Some people will never learn anything because they try to understand everything too soon.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빨리 모든것을 리해하려고 하기때문에 아무것도 습득하지 못한다.
(Alexander Pope, 1688-1744, 영국의 시인)
-A book that remains shut is but a block.
덮어져있는 책은 블로크장에 지나지 않는다.

Which Is Nearer?
어느것이 더 가까운가?

Teacher: Which is nearer, America or the moon?
Tim: The moon is, because we can see it but we can't see America.

교원: 어느것이 더 가까울가요, 아메리카입니까, 달입니까?
팀: 달입니다. 달은 볼수 있지만 아메리카는 볼수 없거든요.

-The difference between choosing the right word and the almost right word is like the difference between lightning and lightning bug.

적중한 단어와 덜 적중한 단어를 고르는것의 차이는 번개와 반디의 차이와 같다.

(Mark Twain, 1835-1910, 미국의 사실주의소설가)

-No man is born wise and learn.

지혜와 학문을 갖고 태여난 사람 없다.

-They must hunger in frost that will not work in heat.

뙤약볕속에서 일하지 않으면 혹한속에 굶주려야 한다.

-Better the last smile than the first laughter.

마지막에 짓는 미소가 처음에 터치는 웃음소리보다 낫다.

A Matter of Degree
등급문제

My son, who had just graduated from college, got a three-day job caddying in an invitational golf tournament. He earned as much money in 3 days as I did in two weeks in my minimum-wage, part-time, office job.

I told my boss about it.

"That just proves the value of a college education." he replied.

금방 대학을 졸업한 나의 아들이 어느 한 초청골프선수권쟁탈전에서 잔심부름을 들어주는 3일간의 직업을 얻었다. 그 애는 그 3일동안에 내가 최저로임을 받는 시간제사무원직업으로 두주일동안에 버는 액수만한 돈을 벌었다.

나는 그에 대해 주인에게 이야기하였다.

《그게 바로 대학교육의 가치를 증명해주는거요.》그가 하는 대답이였다.

Three Times or Four Times?
세번인가, 네번인가?

A history teacher was talking to his class about the ancient Romans.

"They were very strong, brave people, and they were good soldiers," he said. "They always wanted to have strong bodies, so they played a lot of games."

"Did they like swimming?" one of the girls asked. "That makes people's bodies strong." She was very good at swimming.

"Oh, yes, some of them swam a lot," the teacher answered. Then he told them a story about one famous Roman.

"There was a big, wide river in the middle of Rome," he said. "It was the Tiber, and this man swam across it three times every day before breakfast."

The girl laughed when she heard this.

"Why are you laughing?" the teacher asked her angrily. "Have I said anything funny?"

"Well, sir," the girl answered, "Why didn't he swim across the river four times, to get back to his clothes again?"

한 력사교원이 학급학생들앞에서 고대로마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었다.

《그들은 대단히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이였습니다. 또한 훌륭한 병사들이기도 하였구요. 그들은 늘 튼튼한 육체를 가지고저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들을 많이 하군 하였답니다.》

《수영하길 좋아했습니까?》 한 녀학생이 물었다. 《수영은 사람들의 체력을 튼튼하게 하거든요.》 그 학생은 수영을 퍽그나 잘하는 학생이였다.

《아, 그럼요. 일부 사람들은 수영을 많이 하였습니다.》 선생이 대답했다. 그리고나서 어느 유명한 로마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로마의 중부에 크고 넓은 강이 하나 있었습니다. 티베르강

이였는데 매일 그 강을 세번 헤염쳐 건느고 아침식사를 하군 하였답니다.》

처녀애가 이 소리를 듣고 깔깔 웃었다.

《왜 웃는거요?》선생이 성이 나서 물었다. 《내가 우습강스러운 말이라도 했소?》

《저, 선생님.》처녀애가 대답했다. 《어째서 강을 네번 헤염쳐 건느지 않았습니까? 옷이 있는데로 도루 건너오지 않구요?》

An Unwanted Favor
달갑지 않은 호의

The science teacher believed very strongly in practical work as a means of teaching science effectively, and she wanted her pupils' parents to see how well their children were learning by her methods. She therefore arranged for all the parents to come and see the results of one of the children's experiments on a Saturday evening, when all of them were free.

The children had been studying the growth of plants, and they had planted four pots of beans a few weeks before. They had put poor soil in one pot, to see what effect this would have on the growth of the beans in it, and good soil in the other three pots. Then they had put one of other pots in the dark for several days, and had given a third pot no water for the same length of time.

At the end of the lesson on Friday afternoon, the teacher put little notices on the four pots; "The beans in this pot were planted in poor soil." "This pot has been kept in the dark for four days." "These beans have had no water for four days." "These beans have had good soil, plenty of light and regular water." Then the teacher went home.

When she arrived on Saturday evening, half an hour before the parents were due to come, she found this note beside the pots; "We read your notes to the school servant and thought we would

help him, so we watered all the plants, changed the earth in the one with poor soil, and left the light on above the one that had been left in the dark for four days. We hope that the plants will now grow better.

Your friends, 'The Boy Scouts.'"

과학교원은 과학을 효과적으로 배워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습을 펴그나 중시하였는데 이 방법에 의해 자식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우고있는가를 학부형들에게 보여주고싶었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진행한 어느 한 실험결과를 학부형들이 다들 휴식하는 토요일 저녁에 와서 보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식물의 성장에 대하여 공부하고있었는데 몇주일전에 완두콩을 네개의 화분에 심었다. 한개의 화분에는 나쁜 흙을 넣어가지고 그것이 화분에서 자라는 완두콩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였으며 다른 세개의 화분에는 좋은 흙을 채워넣었다. 그런 다음 화분 하나를 여러날동안 새까만 어둠속에 두었고 같은 시간동안에 세번째 화분에는 물을 전혀 주지 않았다.

금요일 오후에 수업이 끝났을 때 선생은 네개의 화분에다 조그마한 쪽지들을 달아주었다. 《이 화분의 완두콩은 나쁜 토양에 심은 것이다.》, 《이 화분은 나흘동안 어둠속에 둔것이다.》, 《이 완두콩들은 나흘동안 물을 전혀 주지 않았다.》, 《이 완두콩들은 질좋은 토양에 심어 해빛을 충분히 쪼였으며 물을 정상적으로 주었다.》 그리고나서 교원은 집으로 돌아갔다.

토요일 저녁 학부형들이 오게 되여있는 시간보다 30분전에 학교에 나타난 녀선생은 화분옆에 이런 쪽지가 있는것을 보았다.

《우리는 선생님이 쓰신 쪽지들을 학교부원에게 읽어주고 그를 도와주자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에 물을 다 주고 나쁜 흙이 들어있는 화분에는 흙을 교체해넣었으며 나흘동안 어둠속에 있은 화분은 해빛에 내다 두었습니다. 인젠 식물들이 다 잘 자라게 되리라 봅니다.

당신의 친구

<소년정찰들>로부터》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상상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Albert Einstein, 1879-1955, 도이췰란드태생의 유태인계물리학자, 1921년 노벨물리학상 수상)

2.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과 기술

Genius
천재

When Albert Einstein was a young boy, his teacher advised his father not to send him to a school where the work was difficult because he didn't think the boy was very clever. The teacher did not know that Einstein would become such an exceptionally clever man that the whole world call him a genius.

앨버트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선생은 소년이 별로 령리하다고 여겨지지 않아 공부가 힘에 부치니 학교에 보내지 말라고 그의 아버지에게 권고하였다. 선생은 아인슈타인이 세상사람들이 천재라고 부르는 그런 특이하게 총명한 사람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Then and Now, and Future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

A man and a woman who died about 150 years ago are visiting our world today. They are walking down a street.

"What's that thing?" asked the man.

"I don't know. It must be a carriage. It's got wheels and seats."

“You must be mistaken. It can’t be. It doesn’t look like a carriage, and, anyway, where is the horse?”

“Listen!” the woman cried. “What a terrible noise! Where’s it coming from?”

“Up there! Look up at the sky! What is it? It’s gone.”

“It must have been some kind of bird.”

“It can’t have been. It was so noisy and so fast!”

“Let’s cross the road.”

“Quick! That horseless carriage is coming towards us!”

“Whew! We might have been killed!”

“Hasn’t the world become an awful place!”

“You can’t be sure of anything any more!”

Now put yourself in their position in a city 150 years in the future.

약 150년전에 죽은 한 남자와 녀인이 오늘의 우리 세계를 돌아보고있습니다. 그들은 거리를 따라 걸어가고있는중입니다.

《저게 뭐요?》 사나이가 물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분명 마차같은데. 바퀴가 달려있고 좌석들이 있군요.》

《당신이 분명 잘못 보았소. 그럴리가 있나. 마차같진 않소. 어쨌든 말이 없잖소.》

《들어봐요!》 녀인이 소리질렀습니다. 《이 무슨 끔찍한 소리예요! 어디서 나는거예요?》

《저기 우에서 난 소리요! 하늘을 쳐다보오. 뭘가? 사라져버렸어.》

《분명 무슨 새 같은거였어요. 》

《그럴리 있소. 소리가 참 요란하고 굉장히 속도가 빠른거였소.》

《길을 건너가자요. 》

《서두르오. 말없는 마차가 우리쪽으로 내달아오고있소!》

《후… 하마트면 죽을번 했군!》

《세상이 참 무서운 곳으로 되고말았군요!》

《뭐가 뭔지 갈피를 잡을수 없군!》

이제 여러분들도 150년이후의 도시에서 이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 있어보십시오.

At a Great Expense
막대한 비용으로

A man was trying to build an electric motor-car. He worked in an office in the town during most of the week, but on Saturdays and Sundays he stayed at home in the country and worked on his electric car. Every Monday he told his friends at the office about his work on the car, but his news about it was never very good. Then at last one Monday morning he came to the office and said to his friends, "I have done it! I have driven from my home to here by electricity!"

His friends were all very glad. "How much did it cost to get here by electricity?" they asked.

"Three hundred and two pounds," he answered. "Two pounds for the electricity, and three hundred pounds for the electric wires from my house to the car."

한 사람이 전기자동차를 만들려고 애쓰고있었다. 그는 한주치고 대부분은 도시에 있는 사무소에서 일했으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교외에 있는 집에 눌러앉아 전기자동차를 연구하였다. 매주 월요일마다 그는 사무소에 있는 친구들한테 자기가 연구하는 차가 어느 정도 되였는가를 얘기하군 하였는데 그 소식이란 그리 씨원한것은 못되였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날 마침내 그는 사무소에 나가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였다. 《해내고말았네! 집에서 여기까지 전기로 차를 몰고 왔다니까!》

친구들은 모두 대단히 기뻐하였다. 《그래 예까지 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하고 그들이 물었다.

《302£일세.》 그가 대답했다. 《2£는 전기값이고 300£는 집에서부터 차에까지 련결하는 전기줄값이요.》

A little learning is a dangerous thing.
얕은 지식은 위험한것이다.
(from "Essay on Criticism" by Alexander Pope)

"Mine Are Still Greater."
《나의것이 훨씬 더 크다.》

Einstein's fame endured, and brought an extraordinary assortment of mail.

On 3 January 1943 a student wrote to him mentioning among other things that she was a little below average in mathematics and had to work at it harder than most of her friends.

Replying in English from Princeton on 7 January 1943, Einstein wrote in part as follows:

Do not worry about your difficulties in mathematics; I can assure you that mine are still greater.

아인슈타인의 명성이 자자해지자 별의별 특이한 우편물이 다 날아들었다.

1943년 1월 3일 한 학생이 그에게 보낸 편지에서 쓰기를 다른것가운데서도 수학이 평균이하로 좀 떨어지는데 대다수의 동무들보다 더 열심히 수학공부를 해야겠다고 했다.

아인슈타인은 1943년 1월 7일 프린스톤에서 영어로 써보낸 회답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수학공부에서 애로가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느끼는 애로가 훨씬 더 크다는것을 학생에게 장담할수 있기때문이요.》

Einstein and a Farmer's Son
아인슈타인과 농민의 아들

On 11 July 1947 an Idaho farmer wrote to Einstein telling that he had given his son the name Albert and wondering if

Einstein would write a few words that could keep “as talisman” to encourage the son as he grew up. Einstein responsded in English on 30 July 1947 with these words:

Nothing truly valuable arises from ambition or from a mere sense of duty; it stems rather from love and devotion towards men and towards objective things.

Enclosing a snapshot of little Albert, the delighted father wrote back saying that, as a token of appreciation, he was sending Einstein a sack of Idaho potatoes. It turned out to be quite a big sack.

1947년 7월 11일 아이더호에 있는 한 농민이 아인슈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쓰기를 아들에게 앨버트라는 이름을 달아주었는데 아인슈타인더러 그 애가 자라면서 용기를 얻을수 있게 《부적으로서》 간직할수 있는 말을 몇마디 써주실수 있겠는가고 물었다. 아인슈타인은 1947년 7월 30일에 영어로 이런 회답을 써보냈다.

《진정으로 가치있는것치고 야심이나 순수 의무감으로부터 생겨나는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다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대상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부터 생겨나는것입니다.》

어린 앨버트의 속사사진을 함께 부치면서 기쁨에 겨운 아버지는 감사의 표시로 아인슈타인에게 아이더호감자 한포대를 보낸다고 회답편지에서 썼다. 그것이 대단히 큰 포대라는것이 알려졌다.

-To understand one thing well is better than understanding many things by halves.

한가지를 잘 아는것이 여러가지를 한절반 아는것보다 낫다.

-One who has no purpose is a latent patient.

목표없는 사람은 잠재적인 환자이다.

Einstein and a Birthday Gift
아인슈타인과 생일선물

Einstein was notoriously unconcerned about his attire, which was often quite sloppy. In 1955, early in March, the children in a fifth grade class in an elementary school in the state of New York became aware not only of Einstein's existence but also of the fact that his seventy-sixth birthday would fall a few days hence. With the help of their teacher, they sent Einstein a letter on 10 March wishing him many happy returns, and with the letter they sent a present consisting of a tie clasp and of cuff links.

On 26 March 1955 Einstein wrote back in English as follows:

Dear children,

I thank you all for the birthday gift you kindly sent me and for your letter of congratulation. Your gift will be an appropriate suggestion to be a little more elegant in the future than hitherto. Because neckties and cuffs exist for me only as remote memories.

It was Einstein's last birthday.

아인슈타인은 옷차림에 관심을 전혀 돌리지 않는것으로 유명하였는데 단정치 못한 차림새를 하기가 일쑤였다. 1955년 3월초 뉴욕주의 어느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아인슈타인이 생존해있을뿐더러 며칠후이면 생일 76돐을 맞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였다. 선생의 도움으로 그들은 아인슈타인의 생일을 축하하여 3월 10일 그에게 편지를 보내였으며 이와 함께 넥타이꽂개와 장식이 있는 소매단추를 선물로 보내였다.

1955년 3월 26일 아인슈타인은 영어로 된 다음과 같은 회답편지를 보내였다.

《사랑하는 학생들,

저에게 친절하게 생일선물과 축하편지를 보내주신데 대해 여러

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선물은 제가 지금까지 하고 다니는것보다 앞으로 좀더 단정한 차림새를 하기를 바라는 적절한 의견으로 될것입니다. 왜냐면 넥타이나 소매끝동 같은것은 저한테는 아득한 추억으로만 존재하기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생일이였다.

"What Is Algebra?"
《대수학이란 무엇인가?》

One day ten-year-old Albert Einstein asked his uncle, "What is algebra?"

Uncle Jacob lived with the Einsteins. He was accustomed to a daily flood of questions from the boy, and replied with a smile, "Algebra is a lazy kind of arithmetic. When you don't know something you call it x and then look for it."

To Albert, the lover of hard puzzles, this humorous remark served as an enterance into a whole new world.

어느날 10살난 앨버트 아인슈타인이 삼촌에게 물었다. 《대수학이라는게 뭐나요?》

삼촌 쟈꼬브는 아인슈타인의 가족과 함께 살고있었다. 그는 조카에게서 매일 홍수처럼 터져나오는 질문에 습관되여있었던지라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였다.《대수학이란 게으른 산수나 같은것이란다. 뭔가 모를게 있으면 그걸 X라고 부르고나서는 그걸 찾는다.》

어려운 수수께끼들을 좋아하던 앨버트는 이 해학적인 말로 하여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로 발을 들여놓을수 있었다.

Give me the liberty to know, to write, and to arguefreely according to conscience, above all liberties.

다른 모든 자유보다도 나에게 량심에 따라 자유롭게 알고 글쓰고 론쟁할 자유를 달라.

(John Milton, 1608-1674, 영국시인)

A Source of Embarrassment
당황하게 만드는 근원

By the time Albert Einstein was fourteen, he was a source of embarrassment to his teachers because he would not be taught what he did not enjoy learning. The teachers considered him a bold boy; yet we know that he was not. He was shy and had very little confidence in himself, but his desire for knowledge was so strong that it drove him to ask question upon question.

There was one teacher who was perhaps more honest than the others. He kept Albert after school.

"I must tell you something, Albert."

"Yes, sir?"

"The great number of questions that you ask me in class which I cannot answer, and which probably no one can answer, have caused me much embarrassment."

"I'm very sorry, but I want to know---"

"Yes, yes! The whole world wants to know the answers to your questions. I must ask you not to give me any more trouble. Please do not ask me any more questions in the classroom."

Whether the boy agreed we do not know, but perhaps this teacher had caught some glimpse of the great future ahead of Einstein.

14살에 이르러서 앨버트 아인슈타인은 자기를 배워주는 선생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근원이였으니 그 리유는 그가 배우기 싫은 과목은 아예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때문이다. 교원들은 그를 두고 꺼리는것이란 없는 아이라고들 여기고있었지만 알고보면 그렇지 않았다. 내성적인데다 자기자신에 대한 자신감은 거의 없다싶이한 애였지만 지식에 대한 갈망이 그토록 강렬하였던지라 질문에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였던것이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정직하다고 할수 있는 선생이 한명 있었다.

그는 수업이 끝나자 앨버트더러 남으라고 이르는것이였다.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앨버트.》

《예?》

《네가 수업시간에 내가 대답할수 없고 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무수히 들이대니 그때문에 몹시 난처해지누나.》

《미안합니다만 전 알고싶어서…》

《그래, 그래! 네가 물어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온 세상이 다 알고싶어한다. 부탁하건대 더이상 괴롭히지 말아주렴. 교실안에서 제발 나에게 더 물어보지 말거라.》

소년이 응했는지는 모르나 아마도 이 선생이 아인슈타인의 앞길에 놓여있는 뛰여난 장래를 내다보았는지도 모른다.

3. Literature and Art
문학과 예술

A Good Dancer and His Teacher
훌륭한 무용가와 그의 선생

A famous dancer had a son to whom he had taught all that he knew about dancing. One evening, the father presented his son at a recital.

After the performance, a friend came to the father and said: “Do you know your son is even better than you?”

“I’m sure of it,” answered the father, a proud smile on his face. “I didn’t have as good a teacher as he did.”

어느 유명한 무용배우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무용과 관련하여 자기가 알고있는 모든것을 아들에게 깡그리 가르쳐주었다. 어느날 저녁 아버지는 아들을 독무회에 출연시켰다.

공연이 끝난 후 한 친구가 아버지에게 와서 말했다. 《아들이 자네보다 훨씬 낫다는걸 알고있나?》

《알다뿐이겠나.》 아버지의 얼굴에는 자부심에 넘친 미소가 흘렀다. 《난 그 애가 두었던 선생만큼 훌륭한 선생을 두어본적이 없네.》

“Which Do You Like?”
《어느것을 사겠는가?》

Customer: I would like a book, please.
Bookseller: Something light?
Customer: That doesn’t matter - I have my car with me.

손님: 책을 좀 삽시다.
책판매원: 가벼운것을요?
손님: 상관없습니다. 차가 있으니까요.

People who go after riches only, do not find it.
재부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얻지 못한다.

The Real Reason
진짜 리유

A: Why did they hang that picture?
B: Perhaps they couldn’t find the artist.

A: 저 그림은 왜 걸어놓았을가?
B: 미술가를 찾지 못해서겠지.

At an Interview
기자회견에서

When the Beatles, four British musicians arrived at an airport of the United States, a reporter asked. “Is there anything you want to take home from here?”

John Lennon replied, “The Rockfeller Center.”
And the reporter asked, “What do you think of Beethoven?”
Ringo said, “I love him, especially his poems.”
※ The Beatles-영국의 남성4중창단. 1962년에 결성되였다가 1970년에 해산됨. John Lennon이 책임자였음.

영국의 4중주단인 비틀즈가 미국의 한 비행장에 도착했을 때 한 기자가 물었다. 《귀국할 때 여기서 가져가고싶은것이 없는지요?》
죤 레논이 대답했다. 《록펠러쎈터를 가져가겠소.》
그러자 그 기자가 물었다. 《베토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링고가 말했다. 《난 그를 사랑합니다. 그의 시를 특별히 사랑하지요.》

-Man is the only being that can laugh or weep.
인간은 웃고울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Woman is not always weaker than man.
녀자가 남자보다 항상 약한것은 아니다.

Shakespeare in Daily Conversation
일상생활속에 살아있는 쉐익스피어

(1) A Mad Fisherman
미친 어부

A: That fisherman must be mad. Every time he catches a fish he throws it back into the water.
B: There’s method in his madness (**Hamlet** 2:2:208); he hopes to catch them again when they are big enough to eat.

A: 저 어부가 틀림없이 미쳤어. 고기를 낚아낼 때마다 도로 물속에 던져넣으니.
B: 《미치광이치고는 제법 궁리가 있다.》(《햄리트》 2막 2장 208행) 했거늘. 먹을만 하게 큰 다음에 잡으려는거지.

(2) Trash
쓰레기

A: Somebody had stolen my purse.
B: Who steals your purse steals trash.(“**Othello**” 3:3)

A: 돈지갑을 도적맞혔어.
B:《돈지갑을 훔치는자 쓰레기를 훔치더라.》(《오셸로》 3막 3장).

(3) The Head
우두머리

A: Since I became the head of the company, I have so many things to think about, I can’t sleep properly.
B: Uneasy lies the head that wears a crown.(“**King Henry Ⅳ**” 3:1)

A: 회사의 책임자가 된 다음부터 생각해야 할게 어떻게나 많은지 잠을 제대로 잘수가 없네.
B: 《왕관을 쓴 우두머리 불안속에 누워있도다.》(《헨리 4세》3막 1장)

-To be a poet is to apprehend the true and thebeautiful.
시인으로 된다는것은 진실한것과 아름다운것을 깨닫는다는것이다.
(from “A Defense of Poetry” by Percy ByssheShelley)
- Success comes to those who strive.

Praying Hands
기도드리는 손

Albert Durer, a German painter, was a poor artist when young. He and his friend began to live and paint together. Soon it became clear that Durer was a far better artist than his friend. As they had little money, it was also clear that something had to be done.

One day, the friend said to Durer. “I’ll go to work and get the money needed to support us. Later, when money starts coming in from your paintings, I’ll go back to painting again.” Durer agreed.

Time passed, and finally Durer became famous. There was enough money coming in from his work to support both men. Now his friend had time to paint again. But he found that he could no longer paint. The long years of hard work had damaged his sensitive hands. He felt so sad that one day he knelt before a window, and prayed.

Just then Durer entered the room. He saw his friend’s hands that were folded in prayer and made a sketch of his work - worn hands. He had been asked by a church to do a painting of the death of the Virgin Mary. In it he was going to paint one man kneeling in prayer.

This painting became famous for the part showing the praying hands. They touched the heart of man.

Today, the “Praying Hands” is one of the most reproduced works of art in the world. This painting made Durer more famous, but no one knows the name of his selfless friend.

도이췰란드화가 앨버트 뒤라는 젊었을 때 가난하게 살았다. 그는 친구와 함께 살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얼마 안있어 뒤라가 친구보다 훨씬 더 훌륭한 미술가라는것이 명백해졌다. 그들에게

는 돈이 많지 못했으므로 무슨 일이든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 역시 명백하였다.

어느날 친구가 뒤라에게 말했다. 《일하러 나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벌겠네. 후날 자네가 그린 그림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 다시 그림을 그리지.》 뒤라는 그에 동의했다.

세월은 흘러 뒤라는 유명한 화가가 되였다. 두 사람이 살아가기엔 넉넉한 돈이 그에게 들어왔다. 그때에 와서 친구는 다시 그림을 그릴 시간을 얻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다시는 그림을 그릴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오래동안 고된 일을 하다보니 손에서 감각이 없어져버리고만것이다.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그는 어느날 창문앞에 꿇어앉아 빌었다.

바로 그때 뒤라가 방안에 들어왔다. 그는 빌고있는 친구의 손을 보고 일을 하여 뭉틀해진 그 손을 소묘로 그리였다. 교회로부터 성모 마리아의 죽음에 대한 그림을 그려달라는 청탁을 받은 그였다. 그는 그 그림속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그려넣으려 하였다.

이 그림은 기도를 드리는 손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하여 유명해졌다. 그 두손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였던것이다.

오늘날 《기도드리는 손》은 세계적으로 제일 훌륭한 예술작품의 하나로 되고있다. 이 그림으로 하여 뒤라는 더욱 유명해졌지만 누구도 그의 사심없는 친구의 이름을 모르고있다.

※ Albert Durer (1471-1528); 도이췰란드문예부흥의 대표적화가, 판화가

Poetry is the record of the best and happiest momentsof the happiest and best minds.

시가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훌륭한 인간들의 가장 훌륭하고 가장 행복한 순간들의 기록이다.

(from “A Defense of Poetry” by Percy ByssheShelley)

Jonathan Swift and His Servant
죠너선 스위프트와 하인

Once Swift traveled on horseback, and his servant Tom was with him. In the evening they put up at an inn, where they stayed for the night. The next morning Swift called for his boots, which Tom at once brought to him.

When the master saw them, he said to his servant; "How is this, Tom? My boots aren't cleaned!"

"No, sir," replied Tom. "Because you are going to ride and the roads are so bad, I thought there would be no use in cleaning them. They will soon be dirty again."

"Very well, Tom." said Swift. "Go and get the horses ready, and bring them out at once."

"I haven't had my breakfast yet, sir," replied Tom.

"What's the use of it?" said Swift. "If you had your breakfast now, you would soon be hungry again."

한번은 스위프트가 하인인 톰을 데리고 말을 타고 길을 떠났다. 저녁에 그들은 주막집에 들려 하루밤을 지냈다. 다음날 아침 스위프트가 장화를 찾자 하인이 제꺽 가져왔다.

그는 신발을 보며 하인에게 말했다. 《어떻게 된거야, 톰. 장활 닦지 않았구만!》

《이제 말을 타고 가시겠는데 길이 너무 한심하니 닦아야 필요 없습니다. 또 인차 덟어지겠는걸요.》 톰이 대답했다.

《아주 잘했네, 톰. 가서 말들을 준비시켜 냉큼 끌어내게.》

《아직 아침을 먹지 못했는데요, 주인님.》

《그럴 필요가 뭔가?》 스위프트가 말했다. 《이제 아침밥을 먹으면 또 인차 배가 고파나겠는데.》

What Is Modern Music?
현대음악이란 무엇인가?

George liked very much Beethoven's ninth symphony, but Helen, his sister didn't.

"It's a marvelous piece of music." said he.

"Well, everyone is entitled to his own opinion. But I prefer rock music." was Helen's reply.

"I think modern music that's popular now will be completely forgotten by the year 2000." George continued, "All the noise these modern musicians make is just meant to hide their lack of skill and creativity."

죠지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무척 좋아하였다. 그러나 그의 누이 헬렌은 그렇지 않았다.

《정말 그 음악은 훌륭해.》 죠지가 말했다.

《그래, 사람마다 보는 견해가 다 있어. 난 록크음악이 낫더라.》 헬렌의 말이였다.

《지금 류행되는 현대음악은 2000년에 가선 완전히 잊혀지고말거야.》 죠지는 계속했다. 《현대음악가들이 만들어내는 소음이라는건 모자라는 재간과 창조성을 감추기 위한것에 지나지 않는거야.》

-Poets are the unacknowledged legislators of the world.
시인들이란 승인을 받지 않은 세계의 립법자들이다.
(from "A Defense of Poetry" by Percy Bysshe Shelley)
-Wealth is no guarantee of happiness.
재산이 결코 행복의 담보는 아니다.

The Artist and the Farmer
미술가와 농군

An artist went to a beautiful part of the country for a holiday, and stayed with a farmer. Every day he went out with his paints and his brushes and painted from morning to evening, and then when it got dark, he went back to the farm and had a good dinner before he went to bed.

At the end of his holiday he wanted to pay the farmer, but the farmer said, “No, I do not want money - but give me one of your pictures. What is money? In a week it will all be finished, but your painting will still be here.”

The artist was very pleased and thanked the farmer for saying such kind things about his paintings.

The farmer smiled and answered, “It is not that. I have a son in London. He wants to become an artist. When he comes here next month, I will show him your picture, and then he will not want to be an artist any more, I think.”

휴가기간에 한 미술가가 농촌의 어느 아름다운 고장으로 가서 한 농군과 지낸적이 있었다. 그는 매일 색감과 붓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림을 그리다가 날이 어두워서야 돌아와 차려놓은 훌륭한 식사를 하고나서 자리에 들군 하였다.

휴가가 끝나는 날에 값을 치르려는데 농군이 말했다. 《아니, 난 돈이 필요없네. 그저 당신이 그린 그림이나 하나 주시우, 돈이란 뭐겠소? 한주일안으로 거덜나고말걸요. 하지만 당신의 그림은 언제나 여기에 걸려있을거요.》

미술가는 몹시 기뻐하면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두고 그렇듯 친절한 말들을 해주어서 고맙다고 농군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농군은 웃음을 띠우며 대답했다. 《그런게 아니우다. 내 아들애 하나가 런던에 있지요. 늘 미술가가 되고싶어하는 애지요. 래달에 걔가 여기 돌아오거든 당신의 그림을 보여주겠수다. 그렇게 되면 그 녀석이 아마 다시는 미술가가 될 생각을 하지 않을거우다.》

Fifteen Years and Fame
15년과 명성

Robert Benchley, a famous humorous writer said:

"It took me fifteen years to discover that I had no talent for writing, but I couldn't give it up, because by that time I was too famous."

유명한 유모아작가 로버트 벤츨리는 말하였다.

《나한테 글쓰는 재간이 없다는것을 발견하기까지에는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에 와서 보니 자신이 너무나도 유명해진 까닭에 글쓰는것을 포기할수 없었다.》

-Poet is the happiest, the best, the wisest, and themost illustrious of man.

시인은 사람들가운데서도 가장 행복하고 가장 훌륭하며 가장 현명하고 가장 걸출한 사람이다.

(from "A Defense of Poetry" by Percy ByssheShelley)

-Books are the windows on a new world.

책은 새 세계를 비치는 창문이다.

-To read good books improves the mind.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과정에 수양이 된다.

-Music is meat for the spirit.

음악은 마음의 량식이다.

-To be ignorant of what occurred before you were bornis to remain always a child.

자기가 태여나기 전에 있은 일을 모르는 사람은 언제고 어린애로 남아있게 된다.

4. Servicemen and Military Life
군인과 군인생활

A Captain and a Pilot
선장과 비행사

Jim: I want to be a captain, but I can't swim.
Tim: Never mind. My father is a pilot but he can't fly.

짐: 난 선장이 되고싶어. 그런데 헤염을 칠줄 모르거든.
팀: 걱정말아. 우리 아버진 비행사지만 날줄 모른단다.

The Date of a Regular Meeting
정기회의날자

Before the last war, officers in the navy had a lot more freedom when their ship was in port than they have nowadays. They were expected to lead a busy social life, and to take an active part in sport ashore. It was therefore rather difficult for them to find time to do all their other duties.

Usually, all the officers in a ship used to have a regular meeting together once a week to receive orders from their captain, make reports and discuss any business that had to be discussed, such as who should represent the ship in the next football match.

One such meeting was being held on board one day, and after the regular business had been completed, the time came to discuss the date of the next meeting. Friday of the next week was suggested, and so was Monday of the week after, but both of them interfered with somebody's arrangements for the weekend, and in the end it was generally agreed that the meeting should be

held on Wednesday, as this would be the least likely day to interfere with anybody's convenience, since it was right in the middle of the week.

As the officers were leaving, however, one of them was heard to say, "Wednesday is the worst day, because it interferes with two weekends!"

전쟁이 끝나기 전에 해군장교들은 배가 항구에 정박해있을 때에는 지금보다도 자유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 그들은 사교생활로 분망한 시간을 보냈으며 해변가에서 벌어지는 체육경기에도 적극 참가해야 했다. 그러다보니 그들로서는 오히려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할 시간을 얻기가 더 힘들었다.

보통 함선에서 근무하는 모든 장교들은 한주일에 한번 한데 모여 정기회의를 열고는 선장에게서 명령을 받고 사업보고를 한 다음 다음번 축구경기에는 누가 함선을 대표하여 참가하겠는가 하는것과 같은 문제를 토의해야 했다.

어느날 갑판에서 그런 회의가 한창 진행되고있는데 정상적인 업무를 다 마무리하고난 뒤에 다음번 회의날자를 토의해야 할 때가 되였다. 다음주에는 금요일로 하고 그 다음주에는 월요일로 하자는 안들이 제기되였는데 그 두개 안들이 다 일부 사람들의 주말휴식준비에 지장이 되였으므로 종당에는 수요일이 한주의 바로 가운데날이여서 그 누구의 편의에도 저촉될것 같지 않아 수요일에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데 대체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장교들이 막상 자리를 뜨려는데 한 장교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수요일은 제일 나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다름아닌 두개의 주말에 다 지장을 주기때문입니다.》

He who never made a foe makes no friend.
원쑤가 없는 사람에게는 벗도 없다.

"Throw It Away First"
《먼저 던져라》

Some young soldiers who had recently joined the army were being trained in modern ways of fighting, and one of the things they were shown was how an unarmed man could trick an armed enemy and take his weapon away from him. First one of their two instructors took a knife away from the other, using only his bare hands; and then he took a rifle away from him in the same way.

After the lesson, and before they went on to train the young soldiers to do these things themselves, the two instructors asked them a number of questions to see how well they had understood what they had been shown. One of the questions was this: "Well, you now know what an unarmed man can do against a man with a rifle. Imagine that you are guarding a bridge at night, and that you have a rifle. Suddenly you see an unarmed enemy soldier coming towards you. What will you do?"

The young soldier who had to answer this question thought carefully for a few seconds before he answered, and then said, "Well, after what I have just seen, I think that the first thing I would do would be to get rid of my rifle as quickly, as I could so that the unarmed enemy soldier couldn't take it from me and kill me with!"

군대에 갓 입대한 몇몇 애숭이병사들이 신식싸움전법을 훈련받고있었는데 그들에게 보여준것들가운데는 무기를 휴대하지 않은 사람이 무장한 적을 어떻게 속여서 무기를 빼앗아내겠는가 하는것도 들어있었다. 그들을 가르치는 두 교관중에서 먼저 한사람이 맨손으로 상대에게서 칼을 빼앗아내였고 그다음 역시 같은 방법으로 총을 빼앗아냈다.

상학이 끝나고 신입병사들에게 배운 내용을 자체로 익히도록 하

기 전에 두 교관은 그들이 배운것을 얼마나 잘 소화하였는가를 알아보려고 숱한 질문들을 들이대였다. 그중에는 이런 질문도 있었다. 《이젠 무기를 휴대하지 않은 사람이 무기를 휴대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버리는지 알게 되였소. 가령 밤에 다리보초를 서고있는중인데 무기를 휴대하고있다고 하기요. 무기를 휴대하지 않은 적병이 전혀 뜻밖에 당신들 있는쪽으로 오는것을 발견하였소. 어떻게 하겠는가?》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병사는 몇초동안 곰곰히 생각해보고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 방금 배운바에 의하면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기를 휴대하지 않은 적이 저에게서 무기를 빼앗아 절 죽이지 못하게 냉큼 무기를 벗어 버리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 Big Mistake
큰 실책

At the beginning of the First World War, John Robinson was a soldier in the army. He went to France with a lot of other soldiers, and lived in a cold, wet, muddy camp. The rain came into his tent, there was mud and water on the floor, and the food was not good.

Then he became an officer and went to work in the army in Paris. He lived very pleasantly there in a warm house, had very good food, and enjoyed himself.

After some months, he met one of his old friends from the camp.

"You made a big mistake when you left our camp," said this friend.

"Oh?" said John Robinson. "Why?"

"Well," said the soldier, "the week after you left, they put wood floors in our tents!"

1차대전이 시작되였을 때 죤 로빈슨은 군대에서 병사로 복무하고있었다. 그는 다른 많은 병사들과 함께 프랑스에 갔는데 춥고 눅눅하고 질적질적한 천막안에서 지내였다. 비물이 천막안으로 들어오

고 바닥에는 온통 진흙탕인데다 먹는것은 한심했다.

그러다 장교가 되여 빠리에 주둔하고있는 군대에서 복무하기 시작하였다. 거기서 그는 아늑한 집에서 퍼그나 즐거운 생활을 하고있었고 식사질은 아주 괜찮아 만족하게 지내고있었다.

몇달후 그는 천막에서 지내던 옛 친구를 만났다.

《자네 우리 천막을 떠날 때 큰 실책을 범하였어.》 하고 친구가 말하였다.

《엉?》 죤 로빈슨이 물었다. 《왜서 그런가?》

《건말이야,》 그 병사는 말했다. 《자네가 떠난 다음주에 천막안에 마루바닥을 깔았단말일세!》

"Don't You Know the Clock?"
《시계도 모르는가?》

The war had begun, and George had joined the air force. He wanted to be a pilot, and after some months he managed to get to the air force training school, where they taught pilots to fly.

There, the first thing that new students had to do was to be taken up in a plane by an experienced pilot, to give them some idea of what it felt like. Even those who had traveled as passengers in commercial airline planes before found it strange to be in the cockpit of a small fighter plane, and most of the new students felt nervous.

The officer who had to take the students up for their first flight allowed them to fly the plane for a few seconds if they wanted to and if they were not too frightened to fly, but he was always ready to take over as soon as the plane started to do dangerous things.

George was one of those who took over the controls of the plane when he went up in it for the first time, and after the officer had taken them from him again, George thought that he had better ask a few questions to show how interested he was

and how much he wanted to learn to fly. There were a number of instruments in front of him, so he chose one and asked the officer what it was.

The officer looked at him strangely for a moment and then answered, “That—is the clock.”

전쟁이 시작되여 죠지는 공군에 입대하였다. 그는 조종사가 되고싶어서 몇달후에 가까스로 조종사들에게 비행법을 배워주는 공군양성학교에 갔다.

거기서 신입생들이 먼저 해야 할것은 경험이 있는 조종사가 모는 비행기에 타보는것이였는데 이것은 비행기를 탄다는것이 어떤것인가 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였다. 전에 려객기를 타고 려행해본 사람들조차도 소형전투기의 조종실에 탔다는것이 이상한 감을 자아냈는데 아닌게아니라 신입생들의 대다수가 신경이 켕겨있었다.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는 학생들을 데리고 올라타게 된 장교는 그들더러 원한다면 그리고 별로 두렵지 않다면 몇초동안 비행기를 조종하도록 허락하긴 하였으나 비행기가 위험한 동작을 할라치면 제꺽 넘겨받군 하였다.

맨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을 때 비행기의 조종간을 넘겨받은 사람들가운데는 죠지도 있었다. 장교가 그한테서 다시금 조종간을 넘겨받았을 때 죠지는 자기가 하늘을 나는데 얼마나 흥미를 가지고있으며 또 얼마나 날고싶어하는지 보여주려고 몇가지 질문을 들이대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앞에는 계기들이 많았는데 그는 그중 하나를 택하고서 그게 뭔가고 장교에게 물었다.

한동안 장교는 이상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다가 대답하는것이였다.

《그건-시계요.》

-Mistakes are their own instructors.
오유는 그것자신의 교사이다.
(Quintus Horatius Flaccus, B.C 65-B.C 8, 고대로마의 시인)
-Attack is the best defence.
공격은 최상의 방어이다.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뭉치면 살고 갈라지면 죽는다.
-The more danger, the more honor.
위험을 무릅쓸수록 명예도 많은 법이다.

A Seat for a Beautiful Girl
아름다운 처녀가 앉을 자리

Mr. Robinson had to travel somewhere on business, and as he was in a hurry, he decided to go by air. He liked sitting beside a window when he was flying, so when he got on to the plane, he looked for a window seat. He found that all of them had already been taken except for one. There was a soldier sitting in the seat beside this one, and Mr. Robinson was surprised that he had not taken the one by the window; but, anyhow, he at once went towards it.

When he reached it, however, he saw that there was a notice on it. It was written in ink and said, “This seat is reserved for proper load balance. Thank you.” Mr. Robinson had never seen such a notice in a plane before, but he thought that the plane must be carrying something particularly heavy in its baggage, so he walked on and found another empty seat, not beside a window, to sit in.

Two or three other people tried to sit in the window seat beside the soldier, but they too read the notice and went on. Then, when the plane was nearly full, a very beautiful girl stepped into the plane. The soldier, who was watching the passengers coming in, quickly took the notice off the seat beside him and in this way succeeded in having the company of the girl during the whole of the trip.

로빈슨씨는 사업상 용무로 어딘가 다녀와야 했는데 급한 일인지라 비행기를 타고 가기로 결심하였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면 창문곁에 앉기를 좋아하였으므로 비행기에 오르자 창문가의 좌석을 찾아보았다. 한자리만을 내놓고는 비여있는 좌석이란 없었다. 이 좌석열에는 한 군인이 앉아있었는데 로빈슨씨는 그가 창문가에 있는 좌석을 차지하지 않는것을 보고 놀라워하면서도 어쨌든 곧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정작 가보니 좌석우에 쪽지가 한장 놓여있었다. 잉크로 이런 글이 씌여져있었다. 《이 좌석은 적당한 짐균형을 맞추기 위해 비워두는 좌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로빈슨씨는 비행기에 이런 쪽지가 있는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었지만 비행기가 분명 특별히 무거운 짐을 짐칸에 싣고 나르므로 손님들이 적당한 균형을 맞추는것이 필요한 모양이라고 여겨져 계속 걸어나가 창문옆이 아닌 다른 빈 자리를 찾아 앉았다.

다른 두세명의 손님들이 군인옆의 창문좌석에 앉으려고 하였으나 그 사람들 역시 쪽지를 보고는 그냥 걸어나갔다. 그러던중 좌석이 거의다 찰무렵 퍼그나 아름답게 생긴 처녀가 비행기에 올랐다. 그러자 손님들이 들어오는것을 지켜보고있던 그 군인이 제꺽 쪽지를 치워버리는것이였다. 이런 방법으로 려행 전과정을 그 처녀와 함께 앉아가는데 성공한것이다.

“I can Speak French.”
《난 프랑스말을 할줄 아네.》

The soldiers had just arrived in France. None of them could speak any French, except Harry, who boasted that he knew the language very well.

The other soldiers did not really believed it because they knew that he was always boasting about something, and that what he said about himself was seldom true.

For some days, the soldiers were all kept in the camp, so they had no need or opportunity to speak any French. But then the day came when they were allowed to leave for the weekend.

"Now we can see whether you really speak French or not," they said to Harry.

"All right," Harry answered. "Come with me, and I will show you."

About ten minutes after they had left the camp, they saw a pretty girl of about twenty on the other side of the road. They would all have liked to speak to her, but of course none of them knew any French except (perhaps) Harry.

"Now is your chance to show us whether you can really speak French, Harry," said one of his friends. "Go and speak to that girl."

"All right," Harry answered, and he crossed the road, smiled, bowed politely to the girl and started to speak to her. He had said only a few sentences when the girl's face turned red and she smacked his face angrily and walked off.

Harry crossed the road to his friends again, his face all smiles, and said, "There you! I told you I could speak French, didn't I?"

병사들이 금방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였다. 해리를 내놓고는 누구도 프랑스말이라고는 한마디도 할줄 몰랐는데 해리는 자기가 프랑스말을 아주 잘한다고 뽐냈다. 사실말이지 다른 병사들은 그가 늘쌍 뭐든 으시대기를 좋아하고 또 그가 늘어놓는 자랑이 대체로 허풍이라는것을 알고있는지라 그가 프랑스말을 안다는 사실을 실지 믿지들 않고있었다.

며칠동안 병사들은 병영안에 꾹 박혀있다나니 프랑스말을 할 필요도 또 그럴 기회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다들 주말에는 외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이젠 자네가 프랑스말을 진짜 하는지 못하는지 볼수 있게 됐네.》 다들 해리에게 말했다.

《좋아.》해리는 대답했다. 《나와 함께 가자구. 내 보여줄테니.》

병영을 떠난지 10분쯤 되여서 그들은 길 반대켠에서 20살가량 나보이는 어여쁜 처녀를 보았다. 그 처녀에게 말을 걸고싶었지만 (아마도) 해리를 내놓고는 누구도 프랑스말을 몰랐다.

《지금이야말로 자네가 정말 프랑스말을 할줄 아는지 보여줄수 있는 기회일세, 해리.》한 동료가 말했다. 《가서 저 처녀한테 말을 걸어보라구.》

《좋네.》 대답을 하고난 해리는 도로를 건너가 그 처녀에게 미소를 지어보이며 깍듯이 머리숙여 인사하고는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그가 겨우 몇문장을 말했는가싶은데 처녀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성이 나서 그의 얼굴을 찰싹 때리고는 훌 가버렸다. 해리는 도로를 건너 친구들한테로 돌아와 온 얼굴에 웃음을 담고 말했다. 《보라구! 내 말하지 않았나. 프랑스어로 말할줄 안다구.》

An Object at Attack
공격대상

When sailors are allowed ashore after a long at sea, they sometimes get drunk and cause trouble. For this reason, the navy always has naval police in big ports. When sailors cause trouble, the naval police come and deal with them.

One day, the naval police in one big seaport received an urgent telephone call from a bar in the town. The barman said that a big sailor had got drunk and was breaking the furniture in the bar. The petty officer who was in charge of the naval police guard that evening said that he would come immediately.

Now, petty officers who had to go and deal with sailors who were violently drunk usually chose the biggest naval policeman they could find to go with them. But this particular petty officer did not do this. Instead, he chose the smallest and weakest-looking man he could find to go to the bar with him and arrest the sailor who was breaking the furniture.

Another petty officer who happened to be there was surprised when he saw the petty officer of the guard chose this small man, so he said to him, “Why don’t you take a big man with you? You may have to fight the sailor who is drunk.”

"Yes, you are quite right," answered the petty officer of the guard. "That is exactly why I am taking this small man. If you saw two policemen coming to arrest you, and one of them was much smaller than the other, which one would you attack?"

※ "Petty officer" is a rank in the Navy. It is above a sailor, but below a full officer.

해병들은 바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 상륙허가를 받으면 때로 곤드레만드레 취하여 말썽을 일으키는 때가 있다. 이런 리유로 하여 해군에서는 큰 항구들에 언제나 해군경찰을 두군 한다. 해병들이 말썽을 일으키면 해군경찰이 와서 그들을 처리하군 한다.

어느날 어느 큰 항구의 해군경찰이 시내에 있는 술집에서 신고전화를 받았다. 술집주인이 말하기를 허우대가 큰 한 해병이 취하여 매대가구들을 들부시고있다는것이였다. 그날 저녁 해군경찰대 당직하사관은 자기가 이제 곧 그리로 가겠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 가서 폭주한 해병들을 단속해야 하는 하사관들은 될수록 허우대가 제일 큰 해군경찰을 골라 함께 가군 하였다. 그러나 이 특이한 하사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에 제일 키가 작고 허약해보이는 사람을 골라서 함께 술집으로 가서 가구를 마스는 해병을 체포하려고 하였다. 그때 우연히 그 장소에 있던 다른 하사관이 그가 작은 사람을 선택하는것을 보고 놀라서 물었다.

《왜 큰 사람을 택하여 함께 데리구 가지 않나? 술 취한 해병을 상대로 싸울수도 있을텐데.》

《옳소. 아주 지당한 말이요.》 하사관이 대답했다. 《바로 그래서 내 이 작은 사람을 데리구 가는거요. 자기를 체포하러 두 사람의 경찰이 오는데 그중 한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작은 사람이라는것을 알게 된다면 자넨 그때 누굴 공격할텐가?》

-Be careful not to believe all the nice things that are said to you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하는 모든것을 다 믿지는 말라.

(from “The Canterbury Tales” by Geoffrey Chaucer, 1340?-1400)
-What is beautiful is not always good.
아름답다고 다 좋은것은 아니다.

Who Is a Fool?
누가 바보인가?

King Frederick the Great of Prussia had a very fine army, and none of the soldiers in it were finer than his Giant Guard, who were all extremely tall men. It was difficult to find enough soldiers for these, as there were not many men who were tall enough.

Frederick had made it a rule that soldiers who did not speak German could be admitted to the Giant Guards, and this made the work of the officers who had to find men for them even more difficult. When they had to choose between accepting or refusing a really tall man who knew no German, the officers used to accept him, and then teach him enough German to be able to answer if the king questioned him.

Frederick sometimes used to visit the men who were on guard around his castle at night to see that they were doing job properly, and it was his habit to ask each new one that he saw three question: “How old are you?”, “How long have you been in my army?” and “Are you satisfied with your food and your conditions?” The officers of the Giant Guards therefore used to teach new soldiers who did not know German the answers to these three questions.

One day, however, the king asked a new soldier the questions in a different order. He began with, “How long have you been in my army?” The young soldier immediately answered,

"Twenty-two years, Your Majesty." Frederick was very surprised. "How old are you then?" He asked the soldier. "Six months, Your Majesty," came the answer. At this Frederick became angry. "Am I a fool, or are you one?" He asked. "Both, Your Majesty," the soldier answered politely.

프로씨아의 프레드리크대왕에게는 아주 훌륭한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병사들중에서도 알쭌히 키가 쭉 빠진 사람들로 꾸려진 왕의 거인친위대원들이 제일 멋이 있었다. 키가 큰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므로 이 친위대 대원을 할만 한 병사들을 고른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였다.

프레드리크가 도이췰란드어를 모르는 병사들을 거인근위대에 받아들일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었기때문에 근위대원으로 쓸만 한 사람들을 물색해야 하는 장교들의 사업은 더더욱 힘들어졌다. 도이췰란드어를 모르지만 실지 키가 큰 사람을 받아들일것인가 말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이면 장교들은 그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에게 왕이 물어보거든 대답할수 있을 정도의 도이췰란드어를 배워주군 하였다.

프레드리크는 가끔 밤에 자기 성곽주변 보초를 서고있는 병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근무를 제대로 서는가를 알아보군 하였는데 초면인 사람에게는 《몇살인가?》, 《나의 군대에 입대한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식사질과 생활조건은 만족한가?》하는 세가지 질문을 들이대는것이 그의 버릇이였다. 때문에 거인친위대장교들은 도이췰란드어를 모르는 신입병사들에게 이 세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배워주군 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왕은 한 신입병사에게 종전과는 다른 순서로 물었다. 왕은 먼저 《나의 군대에 입대한지 얼마나 되는가?》하고 물었다. 병사는 즉시에 대답하였다. 《22년입니다, 전하.》 프레드리크는 몹시 놀랐다. 《그럼 자넨 몇살인가?》하고 그는 병사에게 물었다. 《여섯달 되였습니다, 전하.》 병사가 대답하였다. 이 말에 프레드리크는 화가 났다. 《내가 머저린가 아니면 자네가 머저린가?》하고 그는 물었다.

《둘 다입니다, 전하.》 병사는 깍듯이 대답했다.

I am the master of my fate:
I am the captain of my soul.
나는 나의 운명의 주인
나는 나의 넋의 선장.
(Alexander Pope, 1688-1744, 영국의 시인)

"Throw Some Sand."
《모래를 좀 뿌리라.》

The soldiers had just moved to the desert, and as they had never been in such a place before, they had a lot to learn.

As there were no trees or buildings in the desert, it was, of course, very hard to hide their trucks from enemy planes. The soldiers were therefore given training in camouflage, which means ways of covering something so that the enemy cannot see where it is. They were shown how to paint their trucks in irregular patterns with pale green, yellow, and brown paints, and then to cover them with nets to which they had tied small pieces of cloth.

The driver who had the biggest truck went to a lot of trouble to camouflage it. He spent several hours painting it, preparing a net and searching for some heavy rocks with which to hold the net down. When it was all finished, he looked proudly at this work and then went off to have his lunch.

But when he came back to the truck after he had had his meal, he was surprised and worried to see that his camouflage work was completely spoilt by the truck's shadow, which was growing longer and longer as the afternoon advanced. He stood looking at it, not knowing what to do about it.

Soon an officer arrived, and he too saw the shadow, of course.

"Well," he shouted to the poor driver,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it? If an enemy plane comes over, the pilot will at once

know that there is a truck there."

"I know, sir." answered the soldier.

"Well don`t just stand there doing nothing!" said the officer.

"What shall I do, sir?", asked the poor driver.

"Get your spade and throw some sand over the shadow, of course!" answered the officer.

병사들이 금방 사막으로 이동해왔는데 이전에는 그런 곳에 주둔해있은적이 한번도 없었던지라 배워야 할것이 많았다.

사막에 나무도 건물도 없었으므로 적비행기들로부터 자동차들을 숨기기가 무척 힘겨웠다. 따라서 병사들은 위장훈련을 받았는데 그것은 적들이 대상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게 뭐든 덮어씌우는 방법들이였다. 그들은 연록색, 누런색 그리고 밤색뼁끼를 가지고 마구 자동차에 색칠을 하고나서 자그마한 천쪼박지들을 매달아놓은 그물들을 차에 씌우는 방법을 배웠다.

제일 큰 차를 가진 운전수는 차위장이 여간만 시끄럽지 않았다. 뼁끼칠을 하고 그물을 준비하고 그물을 아래로 내리끌수 있게 매달아놓을 무거운 돌을 몇개 찾아내고 하면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였다. 그 모든것을 다 끝내자 그는 자기가 해놓은것을 흡족하게 보고나서 점심을 먹으러 갔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차에 돌아와 오후가 되면서 점점 더 길어지는 자동차그림자로 하여 자기가 해놓은 차위장이 완전히 못쓰게 되여버린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으며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운전사는 선자리에서 그것을 지켜보기만 할뿐 어찌할바를 모르고있었다.

곧 한 장교가 그리로 왔는데 물론 그 역시 그 그림자를 보게 되였다.

《그렇다면》하고 장교는 가엾은 운전사에게 소리쳤다.《이제 어떻게 할셈인가? 적비행기가 나타나면 조종사가 거기에 자동차가 있다는걸 대뜸 알아차릴게 아닌가.》

《알고있습니다, 장교님.》병사는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저 그렇게 맹탕 서있지만 말란 말이요!》 장교가 말했다.

《어떻게 하랍니까, 장교님?》가엾은 운전사가 물었다.

《어떻게 할게 있나, 삽을 가져다 그림자우에 모래를 뿌려야지!》하고 장교가 말했다.

The Only Way to Save Your Life
목숨을 살리는 유일한 길

Some boys join the navy when they are quite young, and are then given a course of training as sailors. It is a long course, both on land and at sea, and during it the boys study things like mathematics and science as well as learning to tie knots, fire guns, and do other practical things.

One of the important things they are taught is, of course, how to swim. In the old days, many sailors were unable to swim, but nowadays it is rare to find one that cannot.

At one school for sailor boys, the swimming instructor was very good. He had never had a boy whom he had failed to teach to swim by the time the course ended. One year, however, there was one particular boy on the training course who seemed quite unable to learn to swim. The instructor tried giving him extra lessons, he tried throwing him into the pool at the deep end, and he tried holding him with a rope tied to the end of fishing rod while he attempted to swim, but he had no success at all, whatever he did. In the end, as the time drew near when the course was due to end, he had to admit defeat.

One day, he called the boy aside after the swimming lesson and said to him, “John, I have tried very hard to teach you to swim, but I have failed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Now I want to give you a piece of advice. Listen carefully.”

“Yes, sir.” answered the boy.

“Well,” the instructor went on, “If you are ever in a ship and it sinks, just jump over the side into the sea, go right down to the bottom and run to the shore as fast as you can. That is the only way will save your life.”

일부 소년들은 퍽 어린 나이에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으로서의

훈련을 받는다. 훈련과정은 긴데다가 뭍에서와 바다에서 진행하는데 그동안에 그들은 매듭을 매고 총을 쏘는 등 실천적인 문제들을 배우는것은 물론 수학과 기타 자연과목 같은것을 배운다.

그들이 배우는데서 중요한것의 하나는 물론 헤염치는 법이다. 이전에는 헤염을 칠줄 모르는 해병들이 많았지만 지금에는 그런 해병들을 찾아보기가 드물다.

어느 한 해병학교의 수영교원은 수준이 퍽 높은 사람이였다. 그가 학교과정안이 끝날무렵까지 헤염치는 법을 종시 배워주지 못한 학생은 단 한명도 없었다. 그러나 어느해 특이한 학생이 한명 훈련과정안을 받으러 들어왔는데 수영하는 법을 정말 받아먹지 못하는 것 같았다. 교원이 과외수업을 주려고 애쓰기도 하고 물이 깊은 수영장에 던져넣기도 하고 그가 헤염치려고 시도할 동안에는 낚시대의 끝에 동여맨 바줄에다 그를 묶어서 쳐들기도 하였지만 그 어떤 노력도 전혀 성공을 보지 못하였다. 결국 과정안이 끝날 때가 닥쳐와서 교원은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어느날 그는 수영수업이 끝난 후에 그 소년을 곁에 불러놓고 말했다. 《죤, 내 학생한테 수영법을 배워주느라 여간 애쓰지 않았지만 내 일생에서 처음으로 실패하고말았소. 이제 학생한테 한가지 충고를 주고싶소. 주의깊게 들으시오.》

《예, 선생님.》학생이 대답했다.

《뭔가 하니,》 교원은 말을 이었다. 《학생이 이제 배에 타게 되거든 배가 가라앉을 때 꼭 바다로 뛰여들어 밑바닥까지 곧장 내려가서 최대한 빨리 해변가로 뛰여가도록 하라구. 그게 학생의 목숨을 살릴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Whether we succeed or fail depends on whether wemake efforts or give up in the middle of the way.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것은 끝까지 노력하느냐 중도반단하느냐 하는데 달려있다.

5. Doctor and Patient
의사와 환자

Stop Smoking
금연

Doctor: Have you made your resolution yet?
Patient: Yes, I'm going to give up smoking.
Doctor: What, again?!

의사: 벌써 결심을 내렸소?
환자: 예, 담배를 끊으렵니다.
의사: 뭐라구요, 또요?!

A Good Advice
훌륭한 권고

Doctor: Believe me, you're in no danger. All you need is fresh air. I'd advise you to do more walking, to move about more. What's your profession?
Patient: Postman, doctor.

의사: 내 말을 믿으시오. 생명의 위험은 없습니다. 당신한테 필요한 것은 신선한 공기입니다. 그러니 전보다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돌아다니기를 권고하는바입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환자: 우편배달부입니다, 선생님.

Health is the best medicine.
건강은 최상의 보배이다.

Drunken Dog
취한 개

A phone call to a vet from an elderly woman. “My dog lapped some amount of benzene. What step should I take?”

“Nothing. When the dog runs out of benzene it convalesces.”

한 중년부인이 수의사한테로 전화를 걸어왔다. 《우리 개가 벤졸을 좀 핥았구만요. 무슨 대책을 취해야 할가요?》

《전혀 필요없습니다. 벤졸기운이 다 빠지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 Books have led some to learning and others to madness.
> **책은 어떤 사람들은 학문에로, 어떤 사람들은 광증에로 인도해왔다.**
> (Francesco Petrarca, 1304-1374, 이딸리아의 시인, 인문주의자, 이딸리아문예부흥의 주창자)

Solution
해결책

Bert: Doctor, there’s a ringing in my ears. Is there anything I can get for it?

Doctor: Yeah, an answering machine.

버트: 의사선생님. 귀안에서 계속 종소리가 울립니다. 치료방법이 없습니까?

의사: 있지요. 수화기를 드십시오.

The Coming Year
래년에

A friend who has been in agonies with toothache appealed to Kevin for an consultation.

"Just go to a dentist," suggested the latter recklessly.

"You think I'm going to wine and dine some one of no nodding acquaintance with me for every trifle?" complained the patient adding boastfully, "My son will graduate as a dentist the coming years."

이발이 쏴놔 고통받던 한 친구가 케빈에게 방조를 청하였다.

《치과의사에게 가면 되겠구만.》케빈이 무심히 대답했다.

《자넨 내가 만나면 머리 한번 끄떡하지 않는 사람한테 하찮은 일때문에 술과 식사를 대접하리라 생각하나?》 하고 환자는 불평하더니 자랑스레 덧붙이는것이였다. 《내 아들이 래년에 치과의사로 졸업할거네.》

Professional Advice
전문가적충고

After being examined by the doctor, an old mountaineer was given definite instructions as to what he should do. Just as he was about to leave the office the doctor said: "Look here, you forgot to pay me."

"Pay you for what?" countered the old mountaineer.

"For my professional advice," replied the doctor.

"No, sir," he said, "made up my mind I ain't going to take it."

의사한테서 진찰을 받은 후에 한 늙은 등산가는 앞으로 어찌어찌해야 한다는 명백한 가르침을 받았다. 등산가가 방을 나서려는 찰나에 의사가 말했다. 《잠간만, 돈을 내시지 않았습니다.》

《무엇때문에 돈을 물어요?》 늙은 등산가가 반문하였다.

《전문가적인 충고를 준 값으로지요.》 의사가 대답했다.

《웬걸요, 선생. 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구 결심했거든요.》

Cold Cure
감기치료

“Is it right that vitamin C cures a cold? I’ve had several colds this year.”

《비타민 C가 감기를 고치긴 고칩니까? 올핸 여러번이나 감기에 걸렸으니말입니다.》

A Wonderful Advice
훌륭한 충고

A patient comes to consult his doctor. He says, “Doctor, I’m very nervous. Every time I sing, tears come to my eye. What can I do?”

The doctor replies, “Put cotton in your ears.”

한 환자가 조언을 받으려고 의사를 찾아왔다. 그가 말했다. 《선생님, 정말 신경질이 나는군요. 노래를 부를적마다 눈물이 나옵니다. 어찜 좋습니까?》

의사가 대답했다. 《귀안에 목화솜을 넣으시지요.》

The Kind Doctor
친절한 의사

One day a woman went to Chekhov’s house. She said to him, “My husband is very ill, and he cannot work. Will you please come to see him?”

Chekhov followed the woman to her home. He saw that they were very poor people. There was no food in the house, and the rooms were very cold. Chekhov looked at the sick man. Then he said to the woman, “Come to my house this afternoon, and I will give you something. It will help your husband.”

In the afternoon the woman went to Chekhov's house. He gave her a box and he said, "Take this to your husband. It will make him better."

When the woman reached her home, she opened the box. It was full of money. She went to the shops, and bought some food. She also bought wood to make a fire. Soon her husband was well again.

한 녀인이 체호브의 집으로 찾아와 말했다. 《남편이 몹시 앓아 일을 못하는군요. 가서 좀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체호브는 녀인을 따라 그의 집으로 갔다. 무던히도 가난하게 살았다. 집에 먹을것이란 아무것도 없었고 방은 몹시 싸늘하였다. 그는 환자를 보고는 녀인에게 말했다. 《오후에 우리 집에 오시거든 드릴것이 있습니다. 차도가 있을겁니다.》

오후에 녀인은 체호브의 집으로 갔다. 체호브는 통 하나를 주면서 말했다. 《이걸 남편에게 가져가시오. 병이 나을겁니다.》

녀인이 돌아와 통을 열어보니 돈이 가득 들어있었다. 그는 상점으로 가서 먹을것을 좀 샀다. 물론 땔나무도 샀다. 남편은 인차 병을 털고 일어났다.

> The most unfailing herald, companion, and follower ofthe awakening of a great people to work a beneficalchange in opinion or institution, is poetry.
>
> 견해나 관습에서 유익한 변화를 일으키려는 많은 사람들에게있어서 인식의 가장 믿음직한 예고자이며 길동무이며 추종자는시가이다.
>
> (from "A Defense of Poetry" by Percy Bysshe Shelley)

A Quack Doctor
돌파리의사

Mrs. Jenkins went to see her doctor one day, because her heart was giving her trouble.

The doctor listened to her heart carefully and did a few other things. Then he said. “Well, Mrs. Jenkins, stop smoking, and then you’ll soon be quite all right again.”

“But doctor,” answered Mrs. Jenkins quickly, “I’ve never smoked. I don’t like smoking.”

“Oh, well,” said the doctor, “then don’t drink any more alcohol.”

“But I don’t drink alcohol,” answered Mrs. Jenkins at once.

“Stop drinking tea and coffee then,” the doctor said to her.

“I only drink water,” answered Mrs. Jenkins. “I don’t like tea or coffee.”

The doctor thought for a few seconds and then said, “Well, …er …do you like fried potatoes?”

“Yes, I like them very much,” answered Mrs. Jenkins.

“All right, then stop eating those,” said the doctor as he got up to say goodbye to Mrs. Jenkins.

어느날 젠킨즈부인은 심장이 말썽을 부려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는 심장의 박동소리를 주의깊게 듣고나서 몇가지 다른것을 하였다. 그리고는 말했다. 《에, 젠킨즈부인, 담배를 끊으십시오. 그러면 인차 퍽 나아질겁니다.》

《한데 의사선생,》 부인이 제꺽 대답했다. 《담배피워본적이라고는 없는데요. 전 흡연을 좋아 안해요.》

《아, 그렇군요.》의사가 대답했다. 《그럼 이제부턴 술을 마시지 마시오.》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걸요.》 부인이 즉시에 대답했다.

《그럼 차와 커피를 마시지 마십시오.》

《난 물만 마실뿐이예요.》 젠킨즈부인이 대답했다. 《차나 커피는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의사는 잠간 생각해보더니 말했다. 《그럼 …에 …튀긴 감자는 좋아하시는가요?》

《예, 그건 대단히 좋아합니다.》 젠킨즈부인이 대답했다.

《옳습니다. 그럼 그걸 들지 마시오.》 의사는 이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잘 가라고 말했다.

Miss Green and Her Doctor
그린양과 의사

Miss Green was very fat. She weighed 100 kilos, and she was getting heavier every month, so she went to see her doctor.

He said, “You need a diet, Miss Green, and I’ve got a good one here.” He gave her a small book and said, “Read this carefully and eat the things on page 11 every day. Then come back and see me in two weeks’ time.”

Miss Green came again two weeks later, but she wasn’t thinner; she was fatter. The doctor was surprised and said, “Are you eating the things on page 11 of the small book?”

“Yes, doctor,” she answered.

The next day the doctor visited Miss Green during her dinner. She was very surprised to see him.

“Miss Green,” he said, “Why are you eating potatoes and bread? They aren’t in your diet”.

“But, doctor,” Miss Green answered, “I ate my diet at lunch time. This is my dinner.”

그린양은 몸이 몹시 뚱뚱하였다. 몸무게가 100㎏이나 나갔다. 그런데도 달달이 몸무게가 불어나 의사한테 보이러 갔다.

의사가 말했다. 《규정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린양. 여기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린양에게 자그마한 책을 내밀었다. 《주의깊게 읽어보고 매일 11페지에 있는것들을 잡수시오. 돌아갔다가 두주일후에 다시 찾아오시오.》

그린양은 두주일 지나서 다시 의사를 찾아왔는데 약해지기는커녕 도리여 더 불어났다. 의사는 아연해서 물었다. 《그 책의 11페지에 씌여진대로 식사를 하고있습니까?》

《그럼요, 선생님.》 그가 대답했다.

다음날 의사는 저녁식사시간에 그 녀자의 집을 찾았다. 의사를 보자 그린양은 깜짝 놀라는것이였다.

《그린양, 어째서 감자와 빵을 드는거요? 당신의 료법엔 그런게 들어있지 않소.》

《한데 선생님,》그린양이 대답했다. 《전 점심식사시간에 규정식사를 하였어요. 이거야 저녁인걸요.》

A Swallowed Horse
삼켜버린 말

One day a man went to see his doctor and said to him, “I’ve swallowed a horse, doctor, and I feel very ill.”

The doctor thought for a few seconds and then said, “All right, Mr. Lloyd, I’ll help you. Please lie down on this bed.”

The doctor’s nurse gave the man an injection, the man went to sleep, and the doctor went out quickly to look for a horse in the town. After half an hour he found one, borrowed it and took it into his office, so when Mr. Lloyd woke up, it was there in front of him.

“Here’s the horse, Mr. Lloyd,” the doctor said. “I’ve taken it out of your stomach, and it won’t give you any more trouble now.”

At first Mr. Lloyd was happy, but then he looked at the horse again and said, “But, doctor, my horse was white, and this one’s brown!”

어느날 웬 사람이 의사를 찾아와서 말했다. 《말 한마리를 삼켰더니 선생, 몹시 말째군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고서 말했다. 《좋습니다, 로이드씨, 도와드리죠. 이 침대에 누우십시오.》

간호원이 주사를 놓자 그 사람은 잠에 들었다. 그러자 의사는 얼른 밖으로 나가 시내에서 말을 찾았다. 반시간후에 그는 한마리를 찾

아 빌려가지고 사무실로 끌고 들어왔다. 로이드씨가 깨여나보니 앞에 말 한마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로이드씨.》의사가 말했다. 《당신의 배에서 꺼냈으니 이젠 그놈이 더이상 피롭히지 않을겁니다.》

처음엔 로이드씨가 기뻐하더니 말을 다시 보고서 말했다. 《한데 의사선생. 내 말은 흰놈인데 이놈은 밤색말이군요!》

How Old Is She?
몇살인가?

A woman was having some trouble with her heart, so she went to see the doctor. He was a new doctor, and did not know her, so he first asked some questions, and one of them was, "How old are you?"

"Well," she answered, "I don't remember, doctor, but I will try to think." She thought for a minute and then said, "Yes, I remember now, doctor! When I married, I was eighteen years old, and my husband was thirty. Now my husband is sixty, I know; and that is twice thirty. So I am twice eighteen. That is thirty-six, isn't it?"

한 녀인이 심장에 동통이 와서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는 새로 오다보니 녀인을 몰랐다. 그래서 몇마디 물었는데 그중에는 《당신은 몇살입니까?》하는 물음도 있었다.

《에, 》 녀인이 대답했다. 《의사선생, 떠오르지 않는데 어디 생각해보자요.》 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하였다. 《옳지, 이제야 생각나요! 결혼했을 땐 18살이였고 남편은 30살이였어요. 지금 남편이 60살인데 그건 30의 두배예요, 그러니 난 18살의 두배예요. 36살이 맞지요?》

-Luck and merit still go hand in hand.
행운과 성공은 서로 나란히 있다.

-Love flows from the heart.
사랑은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Love looks not with eyes, but with the mind.
사랑은 눈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
-He is truly happy who makes others happy.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진실로 행복하다.
-He is unworthy to live who lives only for himself.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삶의 가치가 없다.

"I Won't Be Operated by My Butcher!"
《난 도살자의 손에서 수술을 받지 않겠소!》

Dick was a clever boy, but his parents were poor, so he had to work in his spare time and during his holidays to pay for his education. In spite of this, he managed to get to the university, but it was so expensive to study there that during the holidays he found it necessary to get two jobs at the same time so as to earn enough money to pay for his studies.

One summer he managed to get a job in a butcher's shop during the daytime, and another in a hospital at night. In the shop, he learnt to cut meat up quite nicely, so the butcher often left him to do all the serving while he went into a room behind the shop to do the accounts. In the hospital, on the other hand, he was, of course, allowed to do only the simplest jobs, like helping to lift people and to carry them from one part of the hospital to another. Both at the butcher's shop and at the hospital, Dick had to wear white clothes.

One evening at the hospital, Dick had to help to carry a woman from her bed to the place where she was to have an operation. The woman was already feeling frightened at the thought of the operation before he came to get her, but when she

saw Dick, that finished her.

“No! No!” she cried. “Not my butcher! I won’t be operated on by my butcher!” and fainted away.

딕크는 령리한 아이였으나 부모들이 가난하다보니 여가시간과 방학기간에 일하여 학비를 벌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렇게 하여 겨우 대학에 갈수 있었으나 대학공부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었으므로 학비를 물만 한 돈을 벌자면 방학기간에 2중직업을 얻는것이 필요하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어느해 여름 그는 간신히 낮시간에는 육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일하는 직업을 얻었다. 육류점에서는 고기를 매우 섬세하게 잘라내는 일을 배웠으므로 주인은 가끔 모든걸 그한테 맡기고 그동안에 상점뒤방에 들어가 회계를 하군 하였다. 한편 병원에서는 물론 사람들을 실어서 병원의 여기저기로 나르는것을 거들어주는것과 같은 제일 간단한 일을 맡아하군 하였다. 육류점에서나 병원에서나 딕크는 하얀 위생복을 입어야 했다.

어느날 저녁 병원에서 딕크는 한 녀인을 침대에서 수술실로 날라가는것을 거들어주어야 했다. 수술을 받을 생각에 이미전부터 두려움을 느끼고있던 찰나에 딕크가 녀인을 데리러 갔다. 순간 녀인이 딕크를 알아보았는데 그것은 녀인에게 치명적인 타격으로 되였다.

《안돼! 안돼!》 녀인이 웨쳤다. 《난 도살자한테선 안 받겠소! 우리 집 도살자의 손에서 수술을 받지 않을테야!》하고는 기절해버렸다.

Tobacco Advertising
담배광고

People say:

“Three hundred people die day in Britain from smoking related illness. 9 out of 10 smokers started while in their teens, they say. For the sake of the children and the adults they later become, shouldn’t we stamp out smoking advertising now?”

A spokesman of a tobacco Company says:

“The tobacco industry claims that advertising does not persuade people to start smoking: it only persuades them to change brands.”

A Doctor of Medicine says:

“But only 2% of smokers change brands each year.”

Then what’s the conclusion?

사람들은 말한다.

《영국에서는 흡연과 관련한 질병으로 매일 300명이 죽는다. 10명의 흡연자들중 9명이 10대의 나이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어린이들과 미래의 어른들을 위하여 우리가 담배광고를 내걸지 말아야 하지 않는가?》

어느 한 담배회사의 대변인은 말한다.

《광고가 사람들에게 흡연을 권고하는것이 아니라고 담배회사는 주장합니다. 광고는 다만 그들더러 다른 상표의 담배를 피워보라고 권고할따름입니다.》

의학박사는 말한다.

《그러나 겨우 2%의 흡연자들만이 매해 다른 상표의 담배를 피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인가?

To live is not to breathe.
산다는것은 숨쉰다는것이 아니다.

Helen’s Bad Tooth
헬렌의 삭은 이발

Helen was eight years old, and one day one of her teeth began hurting. She cried in her class at school, and her teacher said kindly, “Why are you crying, Helen?”

“Because one of my teeth hurts,” answered Helen.

"Speak to your mother about it," said the teacher, "and then go and see the dentist."

That afternoon Helen spoke her mother about her tooth, and her mother took her to the dentist a few days later. The dentist looked at the tooth and then he said to Helen, "It's very bad. I'm going to take it out, and then you're going to get a nice, new tooth next year." He pulled the tooth out.

The next day Helen's teacher asked her about the tooth. She said to her, "Does it still hurt, Helen?"

"I don't know," Helen answered.

"Why don't you know?" the teacher said.

"Because the dentist's got it," Helen answered.

헬렌이 8살 나던 해 어느날 이발 한대가 쏴나기 시작했다. 수업시간에 그가 쿨쩍거리니 선생이 부드럽게 물었다. 《어째서 울고있나요, 헬렌?》

《이발 하나가 쏴서 그럽니다.》 헬렌이 대답했다.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다음 가서 의사한테 보이라요.》선생이 말해주었다.

그날 오후 헬렌이 어머니한테 이발소리를 하니 어머니가 며칠 지나서 의사한테로 그를 데리고 갔다. 의사는 이발을 보고나서 헬렌에게 말했다.《이발이 몹시 삭았구나. 이제 뽑을테니 다음해에 좋은 이발이 새로 나올게다.》 의사는 그 이발을 뽑았다.

이튿날 헬렌의 선생이 썩은 이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아직두 쏘느냐, 헬렌?》

《모르겠습니다.》 헬렌이 대답했다.

《왜 모른다는거냐?》 선생이 물었다.

《의사가 가졌으니깐요.》 헬렌이 대답했다.

6. Physical Culture and Health
체육과 건강

Knockout
노카우트

Father: What is knockout?
Son: Father, a knockout is when a boxer learns the number one to ten in horizontal position.

아버지: 노카우트가 뭐냐?
아들: 아버지, 노카우트란 권투선수가 가로누워서 1부터 10까지의 수자를 배울 때를 말하는거예요.》

"I've Had Enough."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The coach commands the players.
"Right turn! Left turn! About turn! Forward march!…"
One of players leaves the line shrugging his shoulders.
"And where you off to?"
"I've had enough! You don't know yourself what you want! You've changed your mind a dozen times in a few minutes."

감독이 선수들에게 구령을 준다. 《우로 돌앗! 좌로 돌앗! 뒤로 돌앗! 앞으로 갓!…》
한 선수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렬에서 떨어진다.
《여, 떨어져서 어델 가?》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감독님자체가 자기 할바를 모르고있습니다. 몇분동안에 자기 생각을 수십번이나 바꾸니말입니다.》

He laughs best who laughs last.
최후에 웃는자가 참말로 잘 웃는자이다.
(Sir John Vanbrugh, 1664-1726, 영국의 극작가, 건축가)

A Mighty Slow Race
초저속경기

At a racecourse a man called Johnson was placing heavy bets on a horse called Speed King in the third race. After a while a stranger tapped him on the shoulder. "I wouldn't risk all that money on Speed King if I were you. He hasn't got a chance."

"That's what you think," said Johnson. "How do you know Speed King won't win?"

"If you really want to know," said the stranger. "I happen to be the owner of Speed King and I know it isn't going to win that race."

Johnson looked thoughtful for a moment. "Is that so?" He replied at last. "Then it's going to be a mighty slow race. I own the other five horses."

경마장에서 죤슨이라는 사람이 세번째 주로에 선 《속도왕》이라고 부르는 말에 많은 돈을 걸고있었다. 얼마후 웬 낯선 사나이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하였다. 《나같으면 <속도왕>에게 그 많은 돈을 투자하는 모험을 하지 않겠소. 행운을 가져본적이 없는 말이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속도왕>이 이기지 못한다는걸 어떻게 아십니까?》

《정 알고싶다면 말해주지요.》 그 손님이 말했다. 《우연히 <속도왕>을 손에 넣었던적이 있어서 이번 경마에서 이기지 못하리란걸 알고있지요.》

죤슨은 잠시 생각을 굴렸다. 《그렇습니까?》 마침내 그는 말했다. 《그러면 이번 경기는 <초저속경마>로 될것입니다. 다른 5필의 말은 내것이니까요.》

The Girl on the Roof
옥상우의 처녀

One day Jillian went up on to the roof of her office at the B.B.C. to sunbathe. But when she tried to go back to work after half an hour she couldn't open the door again. Suddenly she knew what to do. She took a pencil and paper from her handbag and wrote a little letter to Martin: "I'm on the B.B.C. roof. Please help me." Then on the other side she wrote: "Will you please take this letter to Mr. Martin Fry?" and she wrote the address of Martin's office.

Jillian threw her letter down into the street and saw a man pick it up. He read it, looked up at Jillian and shouted, "Don't worry. I will. I'll take it." So, seeing him walk away with the letter, Jillian lay down again to sunbathe. But what she didn't see was a policeman on the corner of the street, who stopped the man with her letter.

The policeman took the paper from him and read it. Then he went quickly across the road to a telephone box and called the police station. "There's a young woman on the roof of the B.B.C. I think perhaps she's going to jump off. Will you phone the fire station and tell them to bring their longest ladder? And send an ambulance too."

Five minutes later there were three fire engines and two ambulances outside the B.B.C. Six policemen were stopping people and cars. A police helicopter was flying low over the roofs and on another roof across the road a clergyman was trying to shout to Jillian. "Will you listen to me? You won't jump, will you? Don't do anything. We shall be with you in a few minutes."

But while all this was happening Jillian was lying in the sun. "Somebody's making a lot of noise down there," she thought. "But I won't look. I don't want anybody to see me. I'll just lie

here and wait for Martin."

And while the policemen and firemen and ambulance men were running about outside the B.B.C., the first policeman was taking Jillian's letter to martin. Martin jumped up from his desk. "Come on, be quick."

When they got back to the B.B.C., everybody was watching the roof.

"I'm going up to her in the lift" said Martin. He was in the lift, saying to himself, "I must get her down safely. I will get her down safely."A minute later he pushed open the roof door, and there was Jillian sunbathing.

"Hello, Martin," she said. "Look, I've been getting brown. Thank you for coming, but I couldn't open that silly door. I say. Now I must go back to my desk. And-er-Martin, you won't tell anybody about this, will you? Or I shall lose my job. Goodbye for now."

Martin stood with his mouth open outside her office door. In the street outside a car full of newspapermen was stopping and another fire engine with a long ladder was arriving.

BBC방송국에서 일하는 질리언이 하루는 자기 사무실지붕우에 올라가 일광욕을 하였다. 그런데 30분이 지나 내려오자고 하니 문을 열수가 없었다. 문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손가방에서 연필과 종이를 꺼내서 마틴에게 보내는 쪽지편지를 썼다. 《전 지금 BBC방송국 지붕우에 있어요. 좀 도와달라요.》 그리고 다른쪽 면에는 《이 편지를 마틴 프라이씨에게 전달해주시겠습니까?》하고 쓰고는 마틴의 사무실주소를 썼다.

질리언이 편지를 거리에 내리던졌는데 웬 사람이 그것을 집어드는것이 보였다. 그는 편지를 읽어보고는 질리언을 올려다보며 소리쳤다. 《걱정마오. 내 꼭 갖다주겠소.》 그 사람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것을 보고나서 질리언은 드러누워 일광욕을 계속했다. 그러나 거리모퉁이에 있던 경찰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을 단속하는것을 보지 못했다.

경찰은 편지를 받아서 읽어보고는 도로를 가로질러 공중전화소에 뛰여가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BBC방송국 지붕우에 웬 처녀가 있습니다. 뛰여내리려는것 같습니다. 소방대에 전화해서 제일 긴 사다리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까? 참, 구급차도 보내주십시오.》

5분후에 BBC방송국앞에 소방차 3대와 구급차 2대가 도착하였다. 6명의 경찰들이 차와 행인들을 차단하였다. 경찰직승기 한대가 지붕우를 날고 도로 건너편 건물옥상우에는 목사가 올라가 질리언에게 소리질렀다. 《내 말이 들리오? 뛰여내리지 않지요? 제발 가만있소. 곧 그리로 가겠소.》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있는 동안 질리언은 해별속에 그냥누워만 있었다. 《아래서 뭐라구 되겐 소리치고있구나. 그래두 내려다보지 않을테야. 날 보면 안돼. 그저 여기 누워 마틴이 오길 기다리겠어.》하고 그는 생각했다.

경찰들과 소방대원들, 구급차 의사들이 BBC방송국주변을 분주히 돌아치는 동안 맨처음 편지를 읽어본 경찰이 질리언의 편지를 가지고 마틴에게 갔다. 마틴은 책상에서 뛰쳐일어났다. 《빨리 갑시다!》

그들이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지붕우를 지켜보고있었다.

《내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지요.》 마틴은 말했다. 승강기안에서 그는 중얼거렸다. 《무사히 데리구 내려와야 해. 무사히 데리구 내려오구말겠어.》 잠시후에 그가 옥상문을 열고 보니 질리언은 한창 일광욕을 하고있는중이였다.

《아이, 오셨군요.》 질리언이 말했다. 《보세요. 살갗이 탄걸. 와주어 고마와요. 저 미련한 문짝을 열수가 있어야죠. 전 빨리 사무실로 돌아가야 해요. 그리구 저… 마틴, 이 일에 대해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으면 일자릴 잃게 돼요. 그럼 안녕히.》

마틴은 질리언의 사무실문앞에서 입을 하 벌린채 서있었다. 그때 거리에는 신문기자들을 가득 태운 승용차 한대와 긴 사다리를 실은 소방차가 도착하였다.

Amuse the reader at the same time that you instruct him.
독자들을 가르치되 동시에 그들을 즐겁게 하라.
(Quintus horatius Flaccus, B.C 65- B.C 8, 고대로마의 시인)

An Excellent Exercise
훌륭한 운동

Mr. Smith is a bank clerk and the only exercise he takes is walking to and from the bank. He takes the same route every morning as follows: two blocks east to Rose Park, where he takes the path diagonally across the park to the southeast. After leaving the park, he walks three blocks south along the river, then turns east and crosses the bridge. One block north of the bridge is the bank building where Mr. Smith works.

스미스씨는 어느 은행의 서기인데 그가 하는 운동이라야 은행으로 걸어갔다가 걸어서 돌아오는것이다. 그는 매일 아침 다음과 같은 꼭같은 로정을 밟는다. 장미공원까지 동쪽으로 두 구획, 거기서부터 대각선으로 길을 잡아 공원을 가로질러 동남쪽으로 간다. 공원을 떠나서는 강을 따라 남쪽으로 세 구획 걸어가서 동쪽으로 돌아서 다리를 건는다. 다리의 북쪽으로 한 구획 가면 스미스씨가 일하는 은행청사가 있다.

Everybody Is Jogging
모두가 천천히 달린다

As a young woman ran by, the old man sitting on the park bench asked, “What are you running for?” The woman smiled. “I’m not running, I’m jogging,” she said, and she kept on running slowly through the park.

Jogging — running slowly for long distances has become popular. Most of people begin jogging because they hear it is very good exercise. Jogging makes the heart stronger and helps people lose weight. It can also help them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Donald Robbins, who is forty-two years old and works in an

office, began jogging a few years ago because he felt he was too fat. At first he could only run about 100 yards. It took him three months to be able to run a mile. But two years later, he ran in a marathon race — over twenty-six miles. Many people who love jogging, like Donald Robins, feel that if they can succeed at jogging, they can succeed at other things also, and quite often this feeling helps them at their jobs.

Does jogging cost much? No, it costs almost nothing. But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a good pair of shoes that were made especially for jogging. They protect your feet and legs from the shock of running on hard roads.

How fast should you go? Jog with a friend and talk to each other as you run. If you find it difficult to talk, you're going too fast.

How far should you jog? Remember not to go too far too soon. In fact, you should walk, not run. Do some short jogs, but no more than what you can do easily. After that, increase your distance a quarter or half miles every another week. Maybe, you too run in a marathon. Thousands of people do.

한 젊은 부인이 곁을 지나쳐 뛰여가니 공원의자에 앉아있던 늙은이가 물었다. 《무슨 일루 뛰는거요?》 녀인은 미소를 지었다. 《뛰지 않아요. 빨리 걷고있지.》 녀인은 이렇게 말하며 공원을 거쳐 천천히 그냥 뛰였다.

빨리걷기 즉 장거리를 천천히 달리는 운동은 오늘 대중화되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천천히 달리기가 아주 좋다는 소리를 듣고 이 운동을 시작한다. 이 운동은 심장을 든든하게 하고 몸무게를 줄인다. 기분 또한 상쾌하게 해준다.

어느 한 사무소에서 일하는 42살 나는 도날드 로빈즈는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느낌이 들어 몇년전에 이 운동을 시작하였다. 처음엔 겨우 100yd정도를 뛸수 있었다. 석달이 지나서야 1mi(마일)을 달릴수 있었다. 그러나 이태후 그는 26mi이나 되는 마라손경기에

나갔다. 도날드 로빈즈와 같이 이 운동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서 성공할수 있다면 다른 일에서도 성공할수 있다고 느끼고있으며 이와 같은 느낌은 퍼그나 자주 그들의 직업활동에 도움이 된다.

빨리걷기를 하는데 품이 많이 드는가? 아니다. 거의나 들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이 운동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좋은 신발을 신는것이다. 그 신발은 굳은 도로우를 달릴 때 생기는 충격으로부터 발과 다리를 보호해준다.

얼마만한 속도로 뛰여야 하는가? 친구와 함께 달리되 뛰면서 옆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라. 말하기가 힘들면 지내 빨리 뛰는것이다.

얼마만큼 뛰여야 하는가? 지나치게 멀리, 지나치게 빨리 뛰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명심하라. 사실 걷되 뛰지 말아야 한다. 좀 짧은 거리를 천천히 달리되 쉽게 할수 있을 정도로 하라. 그다음 두주일에 한번씩 4분의 1mi이나 반mi거리를 늘이라. 아마 몇년후이면 여러분들도 마라손에 참가할수 있을것이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있다.

-Good can never come out of evil.
  악에서는 결코 선이 나올수 없다.
-Out of the mouth comes evil.
  입에서부터 악이 나온다.

How to Lose Weight
체중을 줄이는 법

"Here is an exercise that is guaranteed to keep your weight down — turn your head slowly from side to side every time you are offered a second helping."

《체중을 틀림없이 줄일수 있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곱배기하라고 식사를 권할 때마다 천천히 좌우로 머리를 돌려보십시오.》

What Is Marathon?
마라손이란?

Teacher: What is marathon?
Pupil: Marathon is Phidippides.
Teacher: How can you say so?
Pupil: The marathon exhausts any man, just like Phidippides.

교원: 마라손이란 무엇입니까?
학생: 마라손은 피디피데스와 같습니다.
교원: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어요?
학생: 꼭 피디피데스처럼 사람들의 맥을 뽑아놓거든요.

※ 마라톤전투에서 아테네병사 Phidippides가 자기 편의 승리를 알리기 위하여 마라톤으로부터 아테네까지 뛰여간 일을 기념하여 1896년 4월에 아테네에서 처음으로 마라손이 진행되였다.

-Opportunities will flit by while we sit regretting the chances we have lost.
기회라는것은 놓친 기회때문에 앉아서 후회하고있는 동안에도 놓치기 일쑤이다.
-A wise man will make more opportunities than he finds.
현명한 사람은 차례지는것보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낸다.

7. History and Geography
력사와 지리

Captain Cook and a Kangaroo
쿠크선장과 캉가루

Captain Cook, the famous British explorer, and his shipmates discovered Australia in the late eighteenth century. One day they found a strange animal jumping around the land, carrying its young in a body pouch. With curiosity the explorers asked the natives in that part what they called the animal. They said, "Kangaroo." It meant "I don't know" in the native Australian language.

The name "Kangaroo" came from it and this new name continued to be used.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인 쿠크선장은 선원들과 함께 18세기 후반기에 오스트랄리아를 발견했다. 어느날 그들은 여기저기 뛰여다니는 이상한 짐승을 보게 되였는데 그 동물은 주머니에 새끼를 가지고 다니고있었다. 호기심이 동해난 탐험가들은 그 짐승의 이름이 무엇인가고 그곳 원주민들에게 물었다. 그들은 《캉가루》라고 하였다. 그 뜻은 오스트랄리아원주민들의 말로 《모르겠다》는 말이다.

《캉가루》라는 이름은 거기서부터 나왔는데 그때 새롭게 지은 이름은 오늘까지도 계속 불리워지고있다.

History may mean either the record of events or the events themselves.
력사는 사건기록 혹은 사건 그자체라고도 할수 있다.

The Prince of Wales
웨일즈의 왕자

Many years ago king of England took his soldiers to Wales. The Queen went with them. The king and Queen stayed at a big castle in North Wales.

Some of the people of Wales came to visit the king. They said to him, “Give us a prince. We want a prince of Wales. We don’t want a prince from England. We don’t want a prince who speaks English.”

The king promised them a prince. A few days later, he called the people to the castle. He said, “I shall give you a prince. Your prince has lived his life in Wales. He cannot speak one word of English. He is a real prince of Wales. Would you like to meet him?”

“Yes, yes!” the people cried. “Show us our prince.”

Then the king went into another room. When he came back, he was carrying a little baby. “Here is your prince,” he said. “He is my first son. He was born in this castle three days ago. He is the prince of Wales.”

옛날에 잉글런드의 왕은 웨일즈로 군대를 끌고갔다. 왕후도 함께 갔다. 왕과 왕비는 북부웨일즈의 큰 성곽에 머물렀다.

몇몇 웨일즈사람들이 왕을 만나러 왔다. 《우리에게 왕자를 주사이다. 웨일즈의 왕자를 주사이다. 잉글런드출신왕자는 우리한테 필요없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왕자가 필요없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왕자를 주겠노라 약속하였다. 며칠후 사람들을 성곽으로 불러들이고 그는 말했다. 《왕자를 주겠노라. 그대들의 왕자는 온 생을 웨일즈에서 살아왔다. 그는 영어를 한마디도 모르노라. 그는 진짜 웨일즈왕자이다. 그대들은 만나보겠는가?》

《예! 예!》사람들이 웨쳤다. 《우리 왕자를 보여주사이다.》

그러자 왕은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그가 도로 나왔을 때 그의 손에는 갓난애기가 들려져있었다. 《그대들의 왕자이다. 나의 맏아들이다. 사흘전에 이 궁전에서 태여났다. 그는 웨일즈의 왕자이노라.》

The Riddle of the Terrible Sphinx
무서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Sphinx had the head of a woman, the body of a lion, the wings of a bird, and the tail of a big snake. It has eaten hundreds of people on their way to the nearby city of Thebes.

When a man, whose name was Oedipus was about to pass, the sphinx leaped in front of him and said. “I will let you pass safely if you can answer my riddle.”

Oedipus trembled. If he could not answer the riddle, he would be torn apart and eaten. But he knew it couldn’t be helped.

“What is it that walks first on four legs; then on two legs, and finally on three legs?”

Oedipus thought for a long time and finally he replied. “The answer is ‘man.’ He crawls on all fours as a baby, then learn to walk on two legs, and finally needs a stick in his old age.”

The mad sphinx howled with rage. It threw itself off the mountain to its death on the rocks below .

스핑크스는 녀자의 머리에 사자의 몸뚱아리를, 새의 날개에 커다란 뱀의 꼬리를 가진것이다. 그놈은 테베시로 가는 길에서 수백명의 사람들을 잡아먹었다.

외디프스라는 사람이 막 지나치려는 찰나 스핑크스가 그의 앞에 훌쩍 나타나더니 말했다.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풀면 무사히 지나보내마.》

외디프스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수수께끼에 대답하지 못하면 온몸이 갈가리 찢기우고 먹히울것이다. 그렇다고 별다른 도리가 없다는것을 그는 알았다.

《처음엔 네발걸음하다가 다음엔 두발걸음, 그러다 나중엔 세발걸음을 하는게 무엇인가?》

외디프스는 오래동안 생각하다가 마침내 대답했다. 《사람이지요.

갓난아이때는 두팔 두다리로 기여다니다가 두발로 걷는 법을 배우고 나중에는 나이들어 지팽이를 짚고 다닙니다.》

스핑크스는 격분에 차 울부짖었다. 그러더니 산에서 떨어져 밑에 있는 바위에 몸을 짓쫗고 죽고말았다.

What Did He Exclaim?
뭐라고 부르짖었는가?

Teacher: Now Johnny, what did Caesar exclaim when Brutus stabbed him?

Johnny: Ouch!

선생: 죤니학생, 브루투스가 칼로 찔렀을 때 케자르가 뭐라구 부르짖었는가요?

죤니: 아이고!

An Earthquake and a Safe Place
지진과 안전한 곳

A: If we should have another big earthquake like the one in 1923, what would you do?

B: I've already decided on a safe place, and I'd go there at once.

A: 1923년때와 같은 대지진이 또 일어난다면 넌 어떻게 하겠니?

B: 미리 안전한 곳을 봐두었으니 즉시 거기루 갈테야.

Impression of an Old Castle
옛 성에 대한 인상

Dave's class at school were studying English history, and one day their teacher said to them, "Well, boys, on Friday we're all going to get on a bus and go to Conway. There's a beautiful castle there, and we're going to visit it." The boys were very

happy when they heard this. “Now, has anybody got any questions?” the teacher asked.

“How old is the castle, sir?” Dave asked.

“It’s about seven hundred years old, Dave,” the teacher answered.

On Friday the boys visited Conway Castle. “Well,” Dave’s mother said to him when he got home, “did you like the castle, Dave?”

“Not very much,” Dave answered. “The stupid people built it too near the railway.”

데이브의 학급이 수업시간에 영국력사를 배우고있었는데 어느 날 선생이 말했다. 《학생동무들, 금요일에 우리모두 뻐스를 타고 콘웨이에 가게 돼요. 거긴 아름다운 성곽이 있는데 그곳을 견학하게 돼요.》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몹시 좋아하였다. 《그럼 물어볼게 있습니까?》 선생이 물었다.

《성곽이 몇살쯤 됩니까, 선생님?》 데이브가 물었다.

《한 700살쯤 돼요.》선생이 대답했다.

금요일에 학생들은 콘웨이성곽을 참관하였다. 《그래 성곽이 마음에 들더냐?》 데이브가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물었다.

《별로 모르겠어요.》데이브가 대답했다.《바보같은 사람들이 철길가까이에 너무 바투 지었더군요.》

8. Language and Custom
언어와 관습

Seven Serving Men
일곱명의 봉사자들

We keep seven honest serving men. They teach us many, many things. Their names are *What* and *Why* and *When* and *Where* and *Who* and *Which* and *How*.

They work very hard for us.

우리한테는 일곱명의 충실한 봉사자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많고많은것을 가르쳐준다. 그들의 이름은 What, Why, When, Where, Who, Which 그리고 How이다.

그들은 우리들을 위해 부지런히 일한다.

Bon Appetit and Goldberg
*Bon Appetit*와 골드버그

A Mr. Goldberg, from Pinsk, coming to London, shared a table in the ship's dining room with a Frenchman. Mr. Goldberg could speak neither French nor English; the Frenchman could speak neither Russian nor Yiddish.

The first day out, the Frenchman approached the table, bowed and said, "*Bon appetit!*"

Goldberg, puzzled for a moment, bowed back and replied "Goldberg."

Every day, at every meal, the same routine occurred.

On the fifth day, another passenger took Goldberg aside and said to him in Russian, "Listen, the Frenchman isn't telling you his name. He's saying, 'Good appetite.' That's what '*Bon*

appetit!' means."

At the next meal, Mr. Goldberg, smiling, bowed to the Frenchman and said, "*Bon appetit!*" And the Frenchman, smiling, replied, "Goldberg."

핀스크에서 런던으로 가는 골드버그라는 한 손님이 배식당에서 프랑스사람과 한 식탁에 앉게 되였다. 골드버그씨는 프랑스어로도 영어로도 말할줄 몰랐고 프랑스사람은 로어로도 이디쉬어로도 말할줄 몰랐다. 다음날 그 프랑스사람이 식탁에 다가와 머리를 숙여 인사하며 말하였다. "보나쁘띠뜨!" 골드버그씨는 한순간 몸둘바를 몰라하다가 머리를 숙여 응대하였다. 《골드버그입니다.》

매일 매끼 같은 일이 반복되였다. 5일째 되는 날에 다른 손님이 골드버그씨를 한옆으로 데리고 가더니 로씨야말로 말해주었다. 《이보시오. 저 프랑스사람은 당신한테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게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있습니다. <식성이 좋으시군요>하고요. <보나쁘띠뜨!>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다음번 식사때 골드버그씨는 웃으며 프랑스사람에게 꾸벅 머리를 숙여보이고는 말하였다. "보나쁘띠뜨!" 그러자 프랑스사람은 웃으며 대답했다. 《골드버그입니다.》

-I often quote myself. It adds spice to my conversation.

나는 때로 나자신의 말을 인용하군 한다. 그것은 나의 대화에 짜릿한 맛을 더해준다.

(George Bernard Shaw, 1856-1950, 아일런드태생의 영국의 극작가, 평론가, 1925년 노벨문학상 수상)

-A peasant and philosopher may be equally satisfied, but not equally happy.

농사군과 철학자는 다같이 만족할수 있으나 꼭같이 행복하지는 않다.

Why Men Walk on Dangerous Side
왜 남자들은 위험한 쪽으로 걸어다니는가?

English Houses had no lavatories or sinks in the 16th century. People used chamber pots for dirty water and wastes. They used to empty these chamber pots out of the upper-story windows of their houses into the gutters below.

In those days, therefore, a walk along the city streets was often a little dangerous for a couple. So the gentleman showed his gallantry by taking the side nearest to the gutter when they went for a walk. He was actually in danger of a dirty shower from a chamber pot.

16세기 영국의 집들에는 위생실이나 하수통이 없었다. 사람들은 오강에 더러운 물이나 오물들을 담았다. 그들은 살림집 웃층 창문밖으로 이 오강안의것을 밑에 있는 물받이홈에다 쏟아버리군 하였다. 그러다보니 그 시절 남녀가 함께 거리를 거니는것은 흔히 어느 정도 위험을 동반하는 일이였다. 그래서 신사들은 산보길에 나설 때면 물받이홈에 제일 가까운쪽을 택하여 걸음으로써 자기의 정중성을 나타내였다. 사실상 오강에서 쏟아져내리는 오물소나기는 남자가 다 들쓰게 되여있었다.

Some things which we think good often bring us mostunhappiness.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어떤것들이 종종 가장 큰 불행을 가져다주는 때가 있다.

(from " The Canterbury Tales" by Geoffrey Chaucer)

Big Ben
비그 벤

People in many parts of the world write to Big Ben. Some of them send birthday present. One present was a bottle of oil.

Big Ben is not a person, but a great clock in a tower of the Parliament building in London. The people of London like to see Big Ben's four faces and hear the bell on the hour.

Big Ben's story starts in 1834. In that year the old Parliament building burned down. Its clock tower crashed to the ground. People wanted a new building and a new clock.

So the big clock was made in two years. Five more years passed before the clock tower was finished. The giant bell began to ring on July 11, 1859.

A meeting of Parliament was called to give it a name. One man said, "Let's call it the Queen of bells." "Then, shall we call it Victoria?" said another.

The talk about names went on and on. Then Benjamin Hall stood up to speak. He was a big man and people called him Big Ben. He was responsible for making of the clock. By this time were all tired. Someone shouted, "Let's call it Big Ben and give up our talk."

Everybody laughed, and the meeting ended. But Big Ben it was from then on.

세계의 많은 지역들에서 사람들은 비그 벤에게 편지를 보내온다. 생일선물을 보내오기도 한다. 그 선물가운데는 기름 한병도 있었다.

비그 벤은 사람이 아니라 런던에 있는 의회청사탑에 걸려있는 대형시계이다. 런던사람들은 비그 벤의 네면을 쳐다보기 좋아하며 시간에 맞춰 울리는 종소리를 즐겨 듣는다.

비그 벤의 력사는 1834년으로부터 시작된다. 그해에 의사당건물이 불에 타 무너졌다. 시계탑은 땅에 떨어져 산산이 깨여졌다. 사람들은 새로 건물을 짓고 시계를 새로 만들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이태후에 대형시계가 만들어졌다. 5년이 더 지나 시계탑공사가 끝났다. 1859년 7월 11일에 류달리 큰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 종에 이름을 달기 위해 국회가 열렸다. 누군가가 말했다.

《종들의 녀왕이라고 부릅시다.》, 《그럼 빅토리아라고 부를가요?》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름을 두고 론의가 거듭되였다. 그때 벤쟈민 홀이 말하려고 일어났다. 몸집이 우람찬 사람이여서 사람들은 그를 비그 벤(큰 벤)이라고 불렀다. 시계제작을 책임졌던 사람이였다. 그때쯤 되여 다들 지친 때였다. 누군가가 소리쳤다. 《비그 벤이라구 부르고 론의는 그만 둡시다.》

모두가 웃었으며 그것으로 회의는 끝났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종의 이름은 비그 벤으로 불리워지게 되였다.

By Habit
습관적으로

Teacher: Why men and women button their clothes in opposite ways?
Bill: No reasons for this. We do so by habit.

교원: 왜 남자들과 녀자들은 서로 반대로 옷단추를 채울가요?
빌: 아무런 리유도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럽니다.

"Two Languages Are Spoken in Our City."
《우리 도시에서는 두개 언어가 사용됩니다.》

A gentleman was walking down a street in Montreal. He went into a restaurant to have lunch. He wanted to wash his hands before lunch. He pushed a button with the letter "C" on it. He thought that cold water would come out, but hot water came out and he burned his fingers.

The man went to the manager, and said, " 'C' means 'cold', doesn't it? Why does the button for hot water have the letter 'C' on it?"

The manager said, "Oh, I'm sorry, but 'C' is for a French

word 'chaud', and it means 'hot'."

"But the other button has the letter 'C' on it, too," said the man.

"That means 'cold'. You see, both English and French are spoken in this city," said the manager.

한 신사가 몬트리올의 거리를 걸어가고있었다. 그는 점심을 먹으려고 어느 한 식당에 들어갔다. 식사전에 손을 씻고싶었다. 그래서 《C》라는 글자가 씌여진 단추를 눌렀다. 찬물이 나올줄 알았는데 뜨거운 물이 나와 손가락을 뎄다.

그는 주인에게 다가가 말했다.《<C>가 <차다>는 소리가 아니요? 왜 뜨거운 물 수도꼭지우에다 <C>자를 붙여놓았소?》

주인은 말했다.《아하, 미안합니다. <C>자는 프랑스어로 <chaud>를 말하는데 <뜨겁다>는 소립니다.》

《그런데 다른 꼭지에도 <C>자가 있구만요.》

《그것은 영어로 <차다>는 뜻입니다. 보시는것처럼 우리 도시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쓰이고있지요.》 주인은 말했다.

In Fact
사실은…

A foreigner visited a country on business. One day he came out to the street. It's a nuisance when there aren't any public conveniences nearby, and you need one very badly. So did this man. He asked one of the passers-by: "Would you kindly tell me where I can wash my hands?"

The passer-by knew English, but a little. He understood that this foreigner wanted to wash his hands and said, "Please wait a little." He ran somewhere and after a few minutes came back with a basinful of water in the hand.

The foreigner shrugged his shoulders, and said, "A thousand thanks."

한 외국인이 사업상용무로 한 나라를 방문하였다. 어느날 그는 거리로 나왔다. 소변을 봐야 할 때 가까이에 위생실이 없으면 몹시 급한 법이다. 이 사람이 바로 그러했다. 그는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했다. 《위생실이 어데 있는지 좀 알려주겠습니까?》

지나가던 사람은 영어를 조금밖에 알지 못했다. 그는 이 외국인이 손을 씻을 물을 요구하는줄로 알고 말했다. 《좀 기다리십시오.》 그는 어디론가 뛰여가더니 조금후에 물 한소랭이를 떠가지고 나타났다.

그 외국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s to Not Knowing French
프랑스어를 모르는 탓에

Two young British tourists were traveling in France when a policeman stopped their car and gave it in a search. He found a bag of white powder, which looked suspicious.

"Drougue?" asked the heroin-conscious policeman.

"Yes, dogs," they replied, and promptly found themselves in jail.

Analysis of the powder revealed that it was a chemical which gives off a smell, used to discourage dogs from using the sides of the car as a toilet.

The tourists were set free, after promising to take a few French lessons before their next vacation in France.

젊은 영국인 관광객 두명이 프랑스에서 려행하고있을 때 한 경찰이 그들의 차를 세우고 차안을 검사하는것이였다. 그는 의심스러워보이는 하얀 가루주머니를 발견했다.

《마약이요?》 헤로인이라고 단정한 경찰이 물었다.

《예. 개들을 위한것이지요.》하고 대답하자 즉시로 그들은 구류되고말았다.

가루를 분석한 결과 그것이 개들이 승용차옆에 와서 변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데 쓰이는 냄새를 풍기는 화학제품이라는것이 판명되였다.

두 관광객은 다음부터는 프랑스어수업을 어느 정도 받고 프랑스에서 휴가를 보내겠다는 다짐을 하고서야 석방되였다.

※ drougue와 dog는 발음이 류사하다.

It is easy to think that you understand something until you try to put it into words.

말로 표현하려고 하기 전까지는 리해하고있다고 생각하는것이 편리하다.

(Francis Herbert Bradley, 1851-1935, 영국의 철학가)

Not I But They…
내가 아니라 그들이…

Mr. Day was a teacher at a school in a big city in the north of England. He usually went to France or Germany for a few weeks during his summer holidays, and he spoke French and German quite well.

But one year Mr. Day said to one of his friends, “I’m going to have a holiday in Athens. But I don’t speak Greek, so I’ll go to evening classes and have Greek lessons for a month before I go.”

He studied very hard for a month, and then his holidays began and he went to Greece. When he came back a few weeks later, his friend said to him, “Did you have any trouble with your Greek when you were in Athens, Dick?”

“No, I didn’t have any trouble with it,” answered Mr. Day. “But the Greeks did!”

데이씨는 잉글런드 북부의 어느 큰 도시의 학교선생이였다. 보통 여름방학이 오면 그는 몇주일간 프랑스와 도이췰란드에 가군하였는데 그러다보니 프랑스어와 도이췰란드어를 퍽 잘하였다.

그러나 어느해 데이씨가 한 친구에게 말했다. 《아테네에서 방학을 보내려고 하네. 한데 그리스어를 알아야지. 떠나기 전에 한달동안 야간학교에 가서 그리스어수업을 받겠네.》

그는 한달동안 직심스레 공부하다가 여름방학이 시작되여 그리스로 갔다. 몇주일후에 그가 돌아왔을 때 친구가 물었다. 《아테네에 가서 그리스어때문에 자네 난처한 일이라도 당하지 않았나, 딕크?》

《아니, 내가 난처해진적은 없었네.》 데이씨의 대답이였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난처해하더구만 뭐.》

9. Traffics and Communications
교통과 체신

"Well Done!"
《잘했다!》

The train back from London was very crowed as usual, but anyway I eventually managed to find a seat after I looked for ages. It was in a non－smoking compartment, unfortunately. Next to me was a very smart-looking older woman. A scruffy-looking bloke sat opposite her. After a few minutes this bloke took a cigarette out of his pocket and started to light it. The woman politely asked him not to smoke and pointed at the no-smoking sign. The bloke carried on as if she didn't say anything and then leaned forward and blew smoke in his face. I felt angry myself by this time but the woman was amazing! She jumped up, took the fire extinguisher and soaked him in water. He was so surprised that he dropped his cigarette, which the water put out anyway. Then she calmly picked his cigarette up,

put it in the bin and went on reading. It was brilliant! The whole compartment, who watched the episode with great interest, applauded.

런던에서 돌아오는 기차는 여느때처럼 사람들로 꽤 붐비고있었지만 어쨌든 나는 장시간동안 찾아헤매다가 끝내 자리 하나를 겨우 잡을수 있었다. 불행하게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차칸이였다. 내옆에는 퍽 세련된 맛이 엿보이는 나많은 녀인이 앉았다. 단정해보이지 않는 느리광이가 그 녀인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잠시후 이 느리광이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더니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녀인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깍듯이 요구하며 흡연금지간판을 가리켜보였다. 느리광이는 녀인의 말은 듣지도 못한듯 앞으로 몸을 기웃하고서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불었다. 이쯤되고보니 나자신이 화가 동해올랐다. 그런데 그 녀인의 행동은 참으로 놀라웠다! 녀인은 자리를 차고 일어나 소화기를 가져다가 그에게 물을 뿜어대였다. 깜짝 놀란 느리광이는 담배를 떨어뜨렸다. 이렇든저렇든 물에 담배불이 꺼졌다. 그때에 녀인은 침착하게 그 담배대를 집어들더니 휴지통에 집어넣고 책을 계속 읽기 시작했다. 얼마나 멋진 행동인가! 흥미를 가지고 그것을 지켜보던 온 차칸이 박수를 쳤다.

A man should hear a little music, read a little poetry, and see a fine picture every day of his life.
인간은 살아있는 매일매일 음악도 듣고 시가도 읽으며 훌륭한 그림도 보아야 한다.
(John Wolfgang von Geothe, 1749-1832, 도이췰란드의 시인, 극작가, 소설가, 정치가)

Special Delivery
특별운송

When I got to the airport the plane from Chicago, which my brother was traveling on had been delayed in Denver because of

engine trouble and was expected to be about an hour late.

I happened to see a display of flight bags, which reminded me all of a sudden of my briefcase and I realized that I was not carrying it now. Quickly I thought back, and realized that I must have put it down the airline ticket counter. I hurried back to get it, but my briefcase was nowhere in sight. I asked the agent if by any chance it had been turned in. He shook his head. At that moment I happened to glance over his shoulder at the conveyor belt that was moving baggage from the check-in counter down to the loading platforms and I shireked, “There it is! How do I get it back now? I’m not going anywhere. I’m just here to meet a flight.”

The agent told me that the only way he could trace it would be to have claim form with a description of what the briefcase looked like. He took my telephone number and assured me they would call as soon as they located the briefcase, and that they would deliver it to my address as soon as they got it back.

In the meantime, my brother’s flight had arrived and after getting his suitcases, we headed for my car in the parking lot. During the drive home I had plenty of time to tell him all about my unfortunate experience. When we got home and were unloading the car, I could hardly believe my eyes when my brother brought a briefcase out of the car, which he had found on the floor in the back seat. It was the briefcase I thought I had lost. I realized that at that moment the airline people were painstakingly checking each piece of luggage on their flights, looking for my briefcase. I dreaded the thought of having to call them and tell them I had found it in my car.

The telephone was ringing as we walked in the house. Answering it, I was shocked when an airline employee identified himself and said, “We have good news for you! We located your briefcase in Denver and it is already abroard another flight

coming back. It should be in at eleven o'clock and will be delivered to you shortly after midnight by special messenger,"

비행장에 도착하니 나의 동생이 탄 시카고 발 비행기가 기관고장으로 덴버에서 지체하고있었으며 한시간정도 늦어질것이 예견되였다.

나는 려행가방그림을 우연히 띠여보고 불현듯 내 가방에 생각이 미쳐 지금 그것을 가지고있지 않다는것을 느끼였다. 급히 생각을 더듬어보았더니 분명히 비행기표판매구에 내려놓은 생각이 났다. 급히 달려가 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취급자에게 혹시 신고된것이 없는가고 물었다.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그의 어깨너머로 검사매대로부터 짐 싣는 홈에로 짐들을 실어나르는 벨트콘베아를 띠여보고 소리질렀다. 《저기 있다! 어떻게 하면 가방을 도로 찾을수 있소? 난 아무데도 가지 않소. 비행기마중을 나온 사람이요.》

취급자는 그것을 찾을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가방이 생긴 형태를 밝힌 청구서를 만드는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의 전화번호를 받으면서 가방을 찾자마자 전화해주겠다는것과 그것을 손에 넣자마자 내 주소로 보내주겠다고 확답하는것이였다.

그러는 동안에 동생이 탄 비행기는 도착했고 동생의 짐을 찾은후 우리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쪽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동안 나는 내가 겪은 불행한 일에 대해 장시간 이야기해주었다. 집에 도착하여 짐을 부릴 때 동생이 차뒤좌석의 바닥우에서 찾아낸 가방을 꺼내는것을 보자 나는 내 눈을 믿을수가 없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 가방이였던것이다. 그 시각에 항공회사직원들은 모든 비행기들에서 짐들을 하나하나 검열하며 내 가방을 찾아 고생하고있을것이다. 그들한테 전화를 걸어 차안에서 그것을 찾아냈다는 말을 할 생각을 하니 겁이 더럭 났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니 전화종소리가 울리고있었다. 전화를 받으며 항공회사직원이 자기 신분을 밝히며 이야기하는 순간 나는 숨이 꺽 막히는듯 하였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방을 덴버에서 찾았는데 돌아오는 비행기에 이미 실은 뒤입니다. 비행기가 11시에 들어서는데 특별운송으로 자정이 넘어 인차 전달될겁니다.》

The Letterbox Key
편지함열쇠

An English had very good housekeeper. When he left for his summer holiday, he asked her to post him all letters that she would receive during his absence. During July he received no letters. So he telephoned his home and asked his housekeeper what had happened. She explained that he had forgetten to leave her the letterbox key. He apologized and promised to post her the key.

During August he still received no letters though the housekeeper had told him that there were many letters in the letterbox. So when he returned home, he said angrily. The housekeeper said, “It’s not my fault. I couldn’t open the the letterbox because the envelop containing the letterbox key was in the letterbox that was locked.”

한 영국사람이 아주 훌륭한 가정부를 한사람 두고있었다. 여름휴가를 떠나면서 그는 자기가 없는 동안 집에 오는 편지를 몽땅 부쳐달라고 부탁하였다. 7월 한달동안 그는 한통의 편지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집에 전화를 걸어 왜 편지를 보내지 않는가고 물었다. 가정부는 주인이 그만 잊고 편지통열쇠를 떨궈두고 가지 않았기때문이라고 리유를 밝히였다. 주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편지로 그 열쇠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편지통안에 편지가 많이 와있다고 가정부가 이야기하였지만 8월에도 여전히 편지를 한통도 받아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집에 돌아오자 화를 내며 말했다. 가정부는 말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편지통열쇠가 들어있는 편지봉투가 잠겨져있는 편지통안에 있다보니 편지통을 열수가 없었습니다.》

An Old Lady in an Aeroplane
비행기를 탄 로파

An old lady in an aeroplane had a blanket over her head and she did not want to take it off. The airhostess spoke to her, but the old lady said, “I have never been in an aeroplane before, and I am frightened. I am going to keep this blanket over my head until we are back on the ground again!”

Then the captain came. He said, “Madam, I am the captain of this aeroplane. The weather is fine, there are no clouds in the sky, and everything is going very well.”

But she continued to hide. So the captain turned and started to go back. Then the old lady looked out from under the blanket with one eye and said, “I am sorry, young man, but I don’t like aeroplanes and I am never going to fly again. But I’ll say one thing,” she continued kindly, “you and your wife keep your aeroplane very clean!”

비행기우에 올라탄 한 로파가 머리에 담요를 뒤집어쓰고는 벗을 념을 하지 않았다. 비행기안내원처녀가 그에게 말하였는데 그 로파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난 여태 비행기라는걸 한번도 타본적이 없어서 겁이 더럭 나누만. 땅에 다시 내리기 전까진 이 담요를 그냥 쓰고있으려고 하오!》

그때 기장이 왔다. 그는 말했다. 《부인, 제가 이 비행기의 기장입니다. 날씨는 개인 상태이고 하늘엔 구름 한점 없으니 모든게 아주 잘될겁니다.》

한데도 그 로파는 계속 얼굴을 감추는것이였다. 그래서 기장은 몸을 돌려 되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때 로파가 한눈으로 담요밑을 기웃이 내다보며 말했다. 《미안하네만 젊은이, 난 비행기라는걸 좋아하지 않아서 다신 날아볼 생각이 없네. 그래두 한가진 말하겠네.》 그는 상냥스레 말을 이었다. 《자네와 자네 처가 자네네 비행기를 퍼그나 깨끗하게 거두는구만.》

Explanation
설명

Policemen: Why were you driving so fast in a built-up area, madam?

Madam: My brakes aren't very good, and I was hurrying home before I had an accident.

경찰: 부인, 건물들이 꽉 들어찬 구역에서 왜 그렇게 속도를 내여 차를 몹니까?

부인: 제동기가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사고가 나기 전에 서둘러 집에 가느라고 그랬습니다.

> Wise men care not for what they cannot have.
> 현명한 사람들은 가지지 못할것은 보지도 않는다.

Trouble with the Police
경찰에 시끄러움을 당하다

One day Jillian was riding home fast on her scooter. Martin was behind her in his car. She wanted to arrive first. Suddenly a policeman stopped her.

"You are driving too quickly. You have broken the law. Please give me your name and address."

"Excuse me, but how do you know that I've broken the law?"

"We have some new radar equipment. My friend down the road has the radar and when a car goes past him he can easily see its speed. When a car goes too quickly past him he pushes a switch. That tells me to stop the car."

"Oh, dear," Jillian thought sadly, "what's the penalty for driving too quickly? Five pounds?"

Then suddenly the policeman said, "Here's somebody in a car.

He’s driving dangerously. Look at him. Yes, my friend has pushed the switch, so this driver has broken the law, too. I must stop him.”

It was Martin, driving quickly towards them. As the policeman was going to put up his hand to stop Martin, Jillian said quietly “Oh,” and dropped prettily to the ground with her eyes shut.

“She has fainted,” the policeman said “Oh, what can I do?” Carefully he took Jillian’s hand and looked at her face. “Come on, Miss, don’t lie there,” he said. “Oh, dear, now that car has gone and I didn’t stop it. And I didn’t see its number. Now why did this silly girl faint? Come on, Miss, open your eyes.” He started to take off her scooter helmet.

“Where am I?” said Jillian, opening one eye and looking quickly down the road. Martin’s car was not there.

“You fainted,” the policeman said kindly with his arm round her. “Don’t worry. Were you worrying because I stopped you? Go home carefully and have a cup of tea. I’m not going to take your name and address now. That’s better,”

“Thank you,” she said, standing up. “You are very kind. May I go now?”

So Jillian drove slowly home. Martin was waiting outside her house in his car.“ Do you know what happened to me?” she said, laughing, and got into Martin’s car. She was starting to tell him about the radar equipment, when a police car stopped behind them. Jillian’s kind policeman got out, holding her handbag.

“You dropped this, Miss Grey,” he said, “and your name and address were inside it. Wait a minute,” he said looking at Martin’s car and Jillian’s red face, “I think I’ve seen this car before. Here is your handbag. Now I want to ask you two some questions.”

어느날 질리언이 오토바이를 타고 빠른 속도로 집으로 가고 있었다. 마틴은 자기 차를 타고 그뒤를 따르고있었다. 질리언은 자기가 먼저 집에 도착하고싶었다. 갑자기 한 경찰이 질리언을 멈춰세웠다.

《지나치게 속도를 높여 모는군요. 규정을 어겼습니다. 어서 이름과 주소를 대시오.》

《실례이지만 제가 규정을 어겼다는것을 어떻게 압니까?》

《우린 새로운 전파탐지기를 설치했소. 나의 친구가 도로아래에 그 설비를 가지고있는데 차가 지나갈 때면 그 차의 속도를 손쉽게 알아내오. 지나치게 빨리 지나가는 경우 스위치를 눌러 나더러 세우라고 련락해주오.》 경찰이 하는 말이였다.

《어마나, 어쩌나.》질리언은 속상해서 생각했다. (벌금이 얼마일가? 5￡?)

그때 불쑥 경찰이 말했다. 《차 한대가 오누만. 무섭게 운전하고 있소. 보시오. 내 친구가 스위치를 눌렀소. 그러니 이 차도 규정을 위반했소. 단속해야겠군.》

그들쪽으로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있는 차는 마틴의 차였다. 경찰이 손을 들어 차를 세우려고 할 때 질리언이 《아!》하는 가느다란 신음소리와 함께 눈을 감고 그대로 도로바닥에 쓰러졌다.

《까무라쳤군. 어허, 어쩐다?》 경찰은 조심스레 질리언의 손을 잡고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여보시오, 아가씨, 여기에 눕지 마오. 아하, 참, 차가 지나가버렸으니 단속하지 못했군. 차번호도 보지 못했는걸. 하필이면 이때 이 실없는 처녀가 까무라쳤을가? 이보시오, 아가씨, 눈을 뜨오.》 경찰은 질리언이 쓰고있는 오토바이보호모를 벗기기 시작했다.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질리언은 한눈으로 재빨리 도로아래쪽을 훔쳐보며 말했다. 마틴의 차는 거기에 없었다.

《당신은 까무라쳤댔소.》 경찰은 그를 안으며 말했다.《내가 단속하니 겁이 났댔소? 조심해서 집으로 돌아가 차나 마시오. 이름과 주소는 적지 않겠소. 그러는게 낫지.》

《고마워요.》질리언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꽤 친절하시군요. 인젠 가도 돼요?》

질리언은 집으로 천천히 오토바이를 몰았다. 마틴은 그의 집밖에 세워둔 차안에서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이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질리언은 웃으며 마틴의 차에 올라탔다. 그가 전파탐지기에 대해 막 이야기하려는데 경찰차가 그들의 뒤에 와 멈춰섰다. 질리언이 만났던 그 친절한 경찰이 그의 손가방을 들고 내렸다.

《그레이아가씨, 이걸 두고 갔더군. 그런데 가방안에 주소와 이름이 있더군요. 가만 있자…》 경찰은 마틴의 차와 질리언의 빨개진 얼굴을 보면서 말을 이었다. 《차가 낯익은걸. 자, 가방을 받으시오. 이제 당신들 두 사람에게 몇가지 물어볼게 있소.》

Stick a Stamp on Yourself!
네 몸에 우표를 붙이렴!

One afternoon my neighbour's children were playing hide-and-seek in the street just outside the post-office. Young Ian, who is only five years old, found the perfect place to hide. His sister, Janet, had shut her eyes and was counting up to ten when Ian noticed that the small metal door of the letterbox had been left open. The postman had just taken all the letters out and had gone into the post-office to see if there were any parcels. Ian climbed into letterbox and pulled the door from the inside so hard that it locked. Soon realizing what he had done, he became very frightening and started crying.

Meawhile, Janet was looking for him everywhere but could not find him. It was lucky she happened to stop outside the letterbox and hear her brother's cries. She immediately ran to tell the postman who hurried out to unlock the metal door. Ian was now free, but he had had such a bad fright that he could not stop crying. The postman, however, soon found a way of making him laugh again. He told him "Next time you want to hide in a letterbox, please remember to stick a stamp on yourself!"

어느날 오후 우리 옆집애들이 우편국 바로 앞거리에서 숨박곡질을 하면서 놀고있었다. 5살밖에 되지 않는 이완이 숨기에는 그저 그만인 곳을 찾아내였다. 누나인 제니트가 눈을 감고 열까지 세고 있을 때 이완은 우편통의 자그마한 철문이 열려져있는것을 띠여보았다. 우편통신원이 금방 편지들을 몽땅 꺼내가지고 소포가 있지 않나 알아보느라 체신소안으로 들어간 뒤였다. 이완은 우편통안으로 기여들어가 문을 안에서 잡아당기였는데 너무 세게 당기는바람에 그만 덜커덕 채워지고말았다. 자기가 무슨짓을 했는가를 인차 깨달은 그는 겁이 덜컥 나 엉엉 울기 시작했다.

한편 제니트는 그를 찾아 온데를 돌아보았지만 애가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도 우편통밖에서 우연히 걸음을 멈추고서 동생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였다. 제니트가 그달음으로 우편통신원에게 달려가 알려주자 통신원은 황급히 달려나와 철문을 열었다. 이완은 이젠 풀려나게 된데도 어떻게나 소스라쳐 놀랐는지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한데 통신원이 이런 말을 하여 애를 다시 웃기였다.《이담에 우편통안에 숨고싶거든 잊지 말고 네 몸에 우표 한장 붙이거라!》

"Nonchalance"
《무관심》

Conductor: (to a passenger) Will you remove this suitcase from the aisle?

Passenger: I will not.

Conductor: Then I will throw it out.

Passenger: Go ahead.

Conductor: All right. Here goes! (The Conductor throws it out of the train.) Now what do you say to that?

Passenger: I don't care. It was not mine anyway.

차장: (손님에게) 나다니는 길에서 트렁크를 치워주시겠어요?

손님: 내가 왜 해요.

차장: 그럼 내가 밖으로 내던지겠어요.

손님: 그렇게 하시죠.

차장: 좋아요. 날아갑니다!(차장은 그것을 렬차밖으로 내던진다.) 자, 하실 말씀이 있어요?

손님: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내것이 아닌걸요.

-Every well-trained youth and girl ought to be taught the elements of music early and accurately.

잘 교양된 젊은이와 처녀라면 응당히 어릴적에 그리고 정확히 음악의 원리들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John Ruskin, 1819-1900, 영국의 저술가, 평론가)

-A man is rich or poor according to what he is, not according to what he has.

사람은 재산이 아니라 인품에 따라 부자와 빈자로 갈라진다.

A Good Traveller
훌륭한 려행가

My friend and I were driving along a country road, when we overtook a well-dressed woman carrying a pertrol can. We sptopped and offered her a lift. She got in and, after a while, I asked her where she had left her car.

"I have no car," she said. "If I want to go anywhere, I pick up my can and start to walk. It never fails; somebody always stops. I have travelled hundreds of miles this way."

친구와 함께 교외로 차를 타고가는데 휘발유통을 들고가는 잘 차려입은 녀인을 지나치게 되였다. 차를 세우고 타라고 권하였다. 그가 올라타자 나는 어디다 차를 두었는가고 물었다.

《차가 없어요.》 녀인은 말했다.《전 어디든 길을 떠나고싶을 땐 휘발유통을 들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럼 틀림없이 차를 세워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벌써 수백mi이나 왔는걸요.》

Which is Better?
어느것이 나은가?

Tom had a car crash the other day. He himself wasn’t injured but his old car ended up badly damaged.

Paul: The brakes are worn, so you must have them repaired?

Tom: Yes, I must. Must I have the body of the car repaired?

Paul: Of Course. You must also get the broken headlights replaced.

Tom: Oh no! I won’t have anyhting done to the old car. I’d rather buy a new one.

일전에 톰은 차사고를 냈다. 본인은 상하지 않았지만 그의 낡은 차가 심하게 파손되여 멎었다.

폴: 제동기가 다 나갔어. 수리해야겠지?

톰: 옳아, 그래야겠어. 차체도 수리해야 하지 않나?

폴: 물론. 깨여진 전조등도 교체해야겠네.

톰: 아니 됐네! 그 낡은걸 다 그대로 두겠네. 차라리 새 차를 사는게 낫겠어.

“What Do You Do?”
《어떻게 하겠니?》

John: When you are driving your car and you see a yellow traffic light, what do you do?

Michel: I slow down because the light is going to turn red. What do you do?

John: I hurry up because the light is going to turn red.

죤: 차를 몰고가다 노란 신호등을 보면 어떻게 하겠니?

마이클: 속도를 늦추지. 빨간 신호등으로 바뀔테니까. 넌 어떻게 하겠어?

죤: 냅다 몰지 뭐. 빨간 신호등으로 바뀌기 전에.

Speed Limit
속도제한

Jack had a small, red car, and he liked driving it very fast. This was all right when he was out in the country, but in town and big villages driving fast is dangerous, so there is always a speed limit. In Jack's country it was fifty kilometres an hour. Jack often drove faster than that through towns.

One day Jack was driving his small, red car through a town when a very young policeman stopped him and said, "You were driving at more than fifty kilometres an hour, sir. Please give me your name and address."

Jack looked at the young policeman carefully for a few seconds and then said to him, "But I started my journey less than an hour ago!"

The policeman was new to this work and did not know the answer to Jack's excuse. He thought for a few seconds and then let Jack go.

잭크에게는 빨간 소형승용차가 있었는데 차를 고속으로 몰기를 좋아하였다. 교외에 나갔을 때는 별일 없었으나 시내에서나 큰 부락에서는 차를 빨리 모는것이 위험한것이여서 늘 속도제한이라는것이 뒤따른다. 잭크의 마을에서는 제한속도가 50km/h였다. 잭크는 가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차를 몰고 시내를 달리군 했다.

어느날 잭크가 그 빨간 소형승용차를 몰고 시내를 가는데 애젊은 경관이 그를 멈춰세우더니 말했다. 《시간당 50km를 초과하여 차를 몰았습니다. 이름과 주소를 대야겠습니다.》

잭크는 몇초동안 젊은 경관을 찬찬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한데 난 차를 몰고 떠난지 한시간도 못되는데요.》

경관은 이 일이 처음이다나니 잭크의 구실에 맞춤한 대답을 찾지 못하였다. 그는 한동안 생각해보고는 잭크를 보내였다.

Music is irresistible; its charities are countless; it stirs the feeling of love, peace and friendship as scarce any mortal agent can.

음악은 참으로 매력적인것이니 그가 가지고있는 자비로움은 헤아릴수 없으며 그가 불러일으키는 사랑과 평온 그리고 우의의 감정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수 없다.

(William Makepeace Thackeray, 1811-1863, 영국의 소설가)

Because of the Name
이름탓으로

Mr. Knott was a teacher. He taught in a big school in London. He lived a long way from the school, so he was usually quite tired when he got home. At nine o'clock one evening, when he was in bed, the telephone bell rang in the hall of his small house, so he went downstairs, picked up the telephone and said, "This is Whitebridge 3165. Who's speaking, please?"

"Watt," a man answered.

"What's your name, please?" said Mr. Knott.

"Watt's my name," was the answer.

"Yes, I asked you that. What's your name?" Mr. Knott said again.

"I told you. Watt's my name," said the other man. "Are you Jack Smith?"

"No, I'm Knott," answered Mr. Knott.

"Will you give me your name, please?" said Mr. Watt.

"Will Knott," answered Mr. Knott.

Both Mr. Watt and Mr. Will Knott put their telephones down angrily and thought, "That was a rude, stupid man!"

노트씨는 교원이였다. 그는 런던에 있는 어느 큰 학교에서 일하고있었다.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데서 살고있다보니 집에 돌아오면 몹시 피곤을 느끼군 하였다. 어느날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그마한 집전실에서 전화종소리가 울려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수화기를 들었다. 《와이트브리지 3165번지입니다. 미안하지만 누구십니까?》

《워트요.(뭐라구요?)》 그 사람이 대답했다.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노트씨가 말했다.

《워트가 내 이름이요.(내 이름이 뭔가구요?)》이것이 대답이였다.

《예, 그걸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노트씨가 다시 물었다.

《당신한테 말했소. 워트가 내 이름이라구.(내 이름이 무엇인가를.)》 저쪽에서 말했다. 《당신이 잭크 스미스씨이신가요?》

《아니요. 난 노트요.(난 아니요.)》 노트씨가 대답했다.

《저한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워트씨가 말했다.

《윌 노트요.(알려주지 않겠소.)》 노트씨는 대답했다.

워트씨와 노트씨는 화를 내며 쾅 전화기를 내려놓고 생각했다. 《무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로군.》

"How Did You Lose Your Way There?"
《어떻게 길을 잃으셨나요?》

Mrs. Brown's old grandfather lived with her and her husband. Every morning he went for a walk in the park and came home at half past twelve for his lunch.

But one morning a police car stopped outside Mrs. Brown's house at twelve o'clock, and two policemen helped Mr. Brown to get out. One of them said to Mrs. Brown, "The poor old gentleman lost his way in the park and telephoned to us for help, so we sent a car to bring him home."

Mrs. Brown was very surprised, but she thanked the

policemen and they left.

"But, grandfather," she then said, "you have been to that park nearly every day for twenty years. How did you lose your way there?"

The old man smiled, closed one eye and said, "I didn't quite lose my way. I just got tired and I didn't want to walk home!"

브라운부인의 늙은 할아버지는 그 녀자와 그 녀자의 남편과 함께 살았다. 매일아침 그는 공원에 산보를 나갔다가는 12시 30분에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오군 하였다.

그러나 어느날 오전 12시에 경찰차가 브라운부인의 집앞에서 멎어서더니 그 집 할아버지가 두명의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리는것이였다. 한 경찰이 브라운부인에게 말했다. 《이 가엾은 늙은이가 공원에서 길을 잃고 경찰에 전화하여 도움을 청하였길래 우리가 차를 보내여 모셔왔습니다.》

브라운부인은 깜짝 놀랐으나 경찰들에게 사례하였다. 경찰들이 가버리자 부인은 물었다.

《아이, 할아버지. 그 공원이야 여태껏 20년동안 매일이다싶이 가시던 곳이 아니나요? 어떻게 길을 잃으셨나요?》

늙은이는 웃더니 한눈을 감으며 말했다. 《길을 잃기야 뭘. 그저 피곤해서 걸어오고싶지 않더라니까.》

"I Am in the Wrong Street!"
《거리를 삭갈렸군!》

Mr. Williams, who was always a very careful driver, was driving home from work one evening when he came to a crossroads. It had a "Slow" sign, so he slowed down when he came to the main road, looked both ways to see that nothing was coming, and then drove across without stopping completely.

At once he heard a police whistle, so he pulled in to the side of the road and stopped. A policeman walked over to him with a

notebook and pencil in his hand and said, “You didn’t stop at that crossing.”

“But the sign there doesn’t say ‘Stop’,” answered Mr. Williams. “It just says ‘Slow’, and I did go slow.”

The policeman looked around him, and a look of surprise came over his face. Then he put his notebook and pencil away, scratched his head and said, “Well, I’ll be blowed! I am in the wrong street!”

윌리암스씨는 차를 늘 매우 조심히 모는 운전수인데 어느날 저녁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어느 한 도로교차점에 이르렀다. 교차점에는 《속도 천천히》라는 표식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기본도로까지는 차를 천천히 몰고가 도로 량옆을 살피며 오는 차가 없다는것을 확인하고 차를 완전히 세우지 않은채로 교차점을 건넜다.

그 순간에 경찰의 호각소리가 들려와 그는 차를 도로측면에 가까이 대고 멈춰세웠다. 경찰이 수첩과 연필을 손에 든채로 가까이 다가와서 말했다. 《당신은 저 교차점에서 차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표식판에는 <멈춰설것>이라는 말이 없군요.》 윌리암스씨가 대답했다. 《그저 <속도 천천히>라는 표시만 있길래. 그 말대로 천천히 몰았을뿐인데요.》

사위를 두리번두리번 살펴보던 경찰의 얼굴에는 놀라움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러더니 그는 수첩과 연필을 치워버리고는 머리를 긁적거리며 말했다. 《허, 욕을 볼번 했는걸. 거리를 삭갈렸군!》

“Give Me the Parcels!”
《그 꾸레미는 주시우!》

Mr. and Mrs. Davies had left their Christmas shopping very late. There were only a few days more before Christmas, and of course the shops and streets were terribly crowded, but they had to get presents for their family and friends, so they started out

early one morning for the big city, and spent several tiring hours buying the things they wanted in the big shops.

By lunch-time, Mr. Davies was loaded down with parcels of all shapes and sizes. He could hardly see where he was going as he and his wife left the last shop on their way to the railway station and home. Outside the shop they had to cross a busy street, made even busier than usual by the thousands of people who had come by car to do their last-minute Christmas shopping.

Mr. and Mrs. Davies had to wait for the traffic lights to change, but as Mr. Davies could not see in front of him properly, he gradually moved forward into the road without realizing it. Mrs. Davies saw this and became worried. Several times she urged her husband to come back off the road, but without success. He could not hear her because of the noise of the traffic.

Finally she shouted in a voice that could be heard clearly above all the noise, "Henry! If you intend to stand in that dangerous position a moment longer, give me the parcels!"

데이비스부부는 퍽 늦어서야 크리스마스선물을 사러 집을 나섰다. 크리스마스까지는 이제 겨우 며칠밖에 안 남았는지라 상점들과 거리들은 끔찍이도 사람들로 번잡하였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한테 줄 선물은 마련해야 했으므로 어느날 아침 일찌기 대도시로 떠나 큰 상점들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사느라 지루한 몇시간을 보내였다.

점심때가 되여 데이비스씨는 갖가지 종류에 갖가지 크기의 꾸레미들을 잔뜩 짊어지게 되였다. 안해와 함께 맨 마지막상점을 떠나 정거장과 집으로 가는 길에 나섰을 때는 앞을 거의나 볼수 없을 정도였다. 상점밖에서 그들은 교통이 복잡한 거리를 건너야 했는데 거리는 상점문을 닫기 전에 크리스마스선물을 사려고 차를 타고 온 숱한 사람들로 전에없이 붐비였다.

데이비스부부는 교통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려야 했는데 데이비스씨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다보니 신호등을 못 본채 도로안쪽으로 발볌발볌 나가는것이였다. 데이비스부인은 더럭 근심이 생겼다.

몇번이나 남편더러 도로에서 물러서라고 재촉했으나 보람이 없었다. 오가는 차들의 소음때문에 말이 들리지 않았던것이다.

드디여 데이비스부인은 그 모든 소음을 짓누르고 쨋쨋하게 들리는 소리로 고함질쳤다. 《헨리! 그 위험한델 좀더 서있을 작정이면 그 꾸레밀 제발 나한테 줘요!》

-He is truly rich who desires nothing, and he is truly poor who covets all..

욕심없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고 욕심많은 사람은 실지로 가난한 사람이다.

-One who is happy at home is truly happy everywhere.

제 집안에서 행복한 사람이야말로 어디서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He who grasps at too much will lose all.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모든것을 잃게 된다.

10. Workplace and Labour
일터와 로동

A Weathercock
변덕쟁이

There are two men in important positions in my office—Mr. Thompson and Mr. White. Everyone enjoys working for Mr. Thompson, but no one likes Mr. White.

Mr. Thompson is always thoughtful and considerate when he wants something done he'll say, "Would you mind getting this information for me, please?" Mr. White is just the opposite. He usually shouts across the room. "Get me this memorandum, and

hurry up."

Mr. White surprised us this mornig, though. At first we thought he must be ill. He was kind and agreeable. "Mr. Butler," he said, "If it isn't too much trouble for you, could you please make these telephone calls for me?" June Butler was astonished. Immediately after that Mr. White said, "Miss Reed, would you be so kind as to open the window? It's rather warm in here." Then he spoke to me. "I'd appreciate it very much if you'd post these letters for me."

We couldn't imagine why he was behaving so strangely. Was he ill? Did need a doctor? Or had Mr. White just changed his personality?

The situation was soon cleared up. "Ladies," Mr. Thompson said, "I've been told that the chairman of the company will be here soon. He's very interested in the welfare of his employees and will have some questions to ask you about your working conditions here."

우리 사무실에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사람은 톰프슨씨이고 다른 사람은 와이트씨이다. 다들 톰프슨씨의 밑에서 일하기를 좋아하지만 와이트씨는 싫어한다.

톰프슨씨는 언제나 모든 일에 사려깊고 무던히도 친절하다. 누구에게 일을 시킬 때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대신에 이 물건을 좀 가져다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와이트씨는 정반대이다. 그는 방이 떠나가게 호통치기 일쑤이다. 《내게 그걸 가져오라구, 냉큼.》

그런데 오늘 아침 와이트씨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처음에는 그가 앓는줄로 알았다. 그는 친절하고 상냥스러웠다. 《버틀러씨, 별로 수고스럽지 않다면 저한테 전화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쥰 버틀러는 어리둥절하였다. 바로 그다음 와이트씨는 말했다. 《리드양, 친절을 베풀어 창문을 좀 열어주시지 않겠소? 방안이 좀 덥구만.》 그리고는 나에게 말했다. 《저대신에 이 편지들을 부쳐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소.》 그가 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우리는

알수 없었다. 그가 지금 앓고있지 않을가? 의사가 필요한가? 그의 됨됨이 달라지기라도 했단 말인가?

우리들의 의혹은 인차 풀리였다.

《부인들》 톰프슨씨가 말했다. 《회사사장이 곧 여기에 오시겠답니다. 종업원들의 생활에 관심이 대단한분이니 이제 여기서 일하는 여러분들의 로동조건에 대해 몇가지 물어보실겁니다.》

The Do-it-yourself Painters
자체로 하는 도장공들

Peter and Liz were painting the bedroom windows on ladders. Both of them were in old clothes. There was paint on their clothes, on their hands and on their faces but very little paint on the bedroom windows. They had decided to paint the house themselves because the painters wanted fifty pounds for the job.

"We've put more paint on ourselves than we've put on the house," said Liz, laughing.

"I don't think," Petter said sadly, "we are very good painters."

Wet paint was running down the wall from the bedroom windows. More paint was running down ladders. At the bottom of one of the ladders there was a big pool of paint.

"That's where you dropped a tin of paint on yourself," Peter said, "I think we've made a big mistake, deciding to do it ourselves, but you wanted to try."

"Painting isn't our job, I know now, but you wanted to do it yourself. I'm coming back in a minute."

Liz came back and said sadly. "I've just been on the telephone with the painters. I wanted to know if they were free tomorrow, but they aren't. A silly man has just telephoned and asked them to go to his house. He tried to paint the house himself and now he wants them to clean up the mess he's made. He's going to give them sixty pounds."

피터와 리즈가 사다리우에서 침실창문에 한창 뼁끼칠을 하고있었다. 두 사람 다 낡은 작업복차림이였다. 옷이며 눈, 얼굴에 잔뜩 뼁끼가 발렸지만 창문은 얼마 칠해진것이 없었다. 도장공을 부르면 50￡를 주어야 했으므로 자체로 뼁끼칠하기로 결심한 그들이였다.

《집에 칠한것보다 몸에 묻은 뼁끼가 더 많아.》 리즈가 웃으며 말했다.

《우린 훌륭한 도장공이 못되는게야.》피터가 서글프게 말했다.

침실창문에서는 채 마르지 않은 뼁끼가 벽으로 흘러내리고있었다. 사다리로는 더 많은 뼁끼가 흘러내렸다. 사다리 맨밑에는 흘러내린 뼁끼가 커다란 못을 이루었다.

《그건 네가 한통 쏟뜨린거야.》피터가 말했다. 《우리자체로 뼁끼칠하자고 한것부터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하자고 했어.》

《뼁끼칠이 우리 할 일이 아니라는건 이젠 알겠어. 하지만 자체로 하자고 한건 너야. 내 갔다가 인차 돌아올게.》

리즈는 돌아와 맥이 풀려 말했다.《방금전에 도장공한테 전화하러 갔댔어. 래일 시간이 있겠는지 알고싶다 했더니 시간이 없대. 어느 어리석은 사람이 금방 전화로 자기네 집에 오라고 부탁했다는거야. 제손으로 뼁끼칠했다가 한심하게 된걸 다시 해달란대. 도장공에게 60￡를 주겠다는거야.》

Knowledge and human power are synonymous.
지식과 인간의 힘은 같은 말이다.
(Francis Bacon, 1561-1626, 영국의 철학가, 정치가, 수필가, 경험론의 창시자)

Fortunately
다행히도

Julia Frost works in a large office. Work starts at 9 but she often gets there late. She is five minutes late today. Two typists are talking about her.

"Does the manager know she often comes late?"
"No, he doesn't. He often comes late too!"

쥴리아 흐로스트는 큰 사무소에서 일한다. 일은 9시에 시작하지만 그는 자주 지각하군 한다. 오늘은 5분 늦게 출근한다. 두명의 타자수가 쥴리아를 두고 말한다.
《쥴리아가 자주 늦는걸 사장은 알고나 있을가?》
《알게 뭐야. 그도 자주 지각하는데 뭐!》

My strength is as the strength of ten, Because my heart is pure.
나의 힘 열의 힘과 같도다. 왜냐면 나의 마음 순결하기에.
(Alfred Tennyson, 1809-1892, 영국의 시인)

"Easy Money"
《공짜돈》

The president of a company was on an inspection tour of his plant. He noticed a boy loafing around, so he said, "Young man, what's your weekly wage?"
The boy answered, "Thirty dollars."
The boss pulled out thirty bucks from his pocket and said, "Here take these. You are fired!"
After the boy was gone, he asked one of his assistants, "What was his job at our plant anyway?"
"The boy didn't work here at all," was the answer.

한 회사의 사장이 공장을 시찰하러 나갔다. 한 소년이 하는 일없이 돌아다니는것을 보고 사장이 말했다. 《얘야, 너 주당로임이 얼마냐?》
소년이 대답했다. 《30US$예요.》

사장은 주머니에서 30US$를 꺼내주면서 말했다.《자, 받거라. 너는 해고다!》

소년이 사라지자 그는 동행하는 한사람에게 물었다.《한데 우리 공장에서 그가 하는 일이 뭐였소?》

《여기서 일하는 애가 아닙니다.》대답은 이러했다.

The Reason of Being Absent
결석리유

Mary: Hello, Mr. Green. This is Mary speaking.
Mr. Green: Hello, Mary.
Mary: My husband George will be absent from work today.
Mr. Green: I see. Has he gotten a cold?
Mary: No. But I'm keeping him at home today, Mr. Green—he's the only one in the office without a bad cold.

매리: 그린씨, 매리입니다..
그린: 안녕하오, 매리.
매리: 오늘 저의 남편 죠지가 출근을 못할것 같습니다.
그린: 알겠소. 감기에 걸렸소?
매리: 아니요. 오늘은 제가 남편을 집에 붙잡아두려구요, 그린씨. 부서에서 우리 남편만이 독감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After Three Months
석달후에

Rose left school when she was seventeen years old and went to a college for a year to learn to type. She passed her examinations quite well and then went to look for work. She was still living with her parents.

A lot of people were looking for typists at that time, so it was not difficult to find interesting work. Rose went to several

offices, and then chose one of them. It was near her parents' house. She thought, "I'll walk there every morning. I won't need to go by bus."

She went to the office again and said to the manager, "I want to work here, but what will you pay me?"

"We'll pay you ￡27 now," the manager answered, "and ￡30 after three months."

Rose thought for a few seconds before she answered. Then she said, "All right, then I'll start in three months' time."

로즈는 17살에 학교를 졸업하고 1년동안 단과대학을 다니며 타자술을 배웠다.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자 그는 직업을 구하러 나갔다. 로즈는 아직 부모들과 함께 살고있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타자수를 요구하고있던 때라 괜찮은 직업을 얻기는 힘들지 않았다. 로즈는 여러 사무소들을 찾아다니다가 그중 한곳을 선택하였다. 사무소는 부모들의 집가까이에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매일아침 걸어서 다니자. 뻐스 탈 필요는 없어.》

그는 다시 그 사무소에 들어가 경영주에게 물었다. 《여기서 일하고싶긴 한데 얼마를 지불하시겠어요?》

《지금은 27£를 주겠소.》 경영주가 대답했다. 《그리구 석달후엔 30£를 주지.》

로즈는 한동안 생각하다 대답했다. 《좋아요. 그럼 석달후에 일을 시작하지요.》

A Bill for Two Mice
두마리의 쥐계산서

The manager of a small building company was very surprised to get a bill for two white mice which one of his workmen had bought. He sent for the workman and asked him why he had had the bill sent to the company.

"Well," the workman answered, "you remember the house we

were repairing in Newbridge last week, don’t you? One of the things we had to do there was to put in some new electric wiring. Well, in one place we had to pass some wires through a pipe thirty feet long and about an inch across, which was built into solid stone and had four big bends in it. None of us could think how to do this until I had a good idea. I went to a shop and bought two white mice, one of them male and the other female. Then I tied a thread to the body of the male mouse and put him into the pipe at one end, while Bill held the female mouse at the other end and pressed her gently to make her squeak. When the male mouse heard the female mouse’s squeaks, he rushed along the pipe to help her. I suppose he was a gentleman even though he was only a mouse. Anyway, as he ran through the pipe, he pulled the thread behind him. It was then quite easy for us to tie one end of the thread to the electric wires and pull them through the pipe.”

The manager paid the bill for the white mice.

어느 한 자그마한 건설회사 사장은 회사의 한 로동자가 산 두마리의 백쥐계산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그 로동자를 데려오게 하고 왜 그 계산서를 회사에 보냈는가고 물었다.

《그건,》 그 로동자가 대답했다. 《전주에 뉴브리쥐에서 우리가 보수하고있던 집이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해야 했던 일의 하나가 새 전기선을 끌어들이는것이였습니다. 그런데 한곳에서 길이가 30ft(피트)이고 직경이 1in(인치)가량 되는 관속으로 전기선을 통과시켜야 했는데 굳은 돌속에 설치해넣은것인데다 그 돌속에 네군데나 구부러진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누구도 생각못하고있는데 피뜩 좋은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전 상점엘 가서 백쥐 두마리를 샀습니다. 한마린 수컷이고 다른건 암컷이였지요. 그다음 난 수컷의 몸뚱아리에다 실을 동여매 관 한끝에서 들이밀고 빌은 암쥐를 다른 끝에다 갖다대고 살며시 눌러주며 찍찍소리를 내도록 하였지요. 수컷이 암컷이 내는 소리를 듣자 그를 도와주려고 관속으로 냅다 달

려오는것이였습니다. 비록 한갖 쥐에 불과하긴 하였어도 신사더군요. 어쨌든 그놈이 관속을 내달아오면서 뒤에 실을 달고왔지요. 그렇게 해서 우린 쉽게 실꾸리 한끝을 전기선에다 매가지고 관속으로 끌어당길수가 있었답니다.》

사장은 두마리의 백쥐계산서를 물었다.

-There are many fools covered in silver.

은으로 도금칠한 바보들이 많더라.

(from a Comedy "The Merchant of Venice" by William Shakespeare)

-He who pretends to be your friend is your most dangerous enemy.

친구인체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원쑤이다.

-The weight of a book is always proportional to the depth of pains the writer has experienced.

작품의 무게는 언제나 그것을 쓴 사람이 겪은 고뇌의 깊이에 정비례한다.

-Those who like borrowing, dislike paying.

빌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갚기 싫어한다.

11. Dinning Room and Food
식당과 음식

"Call Me Mother."
《날 어머니라 부르렴.》

A friend and her husband were enjoying a romantic evening at an expensive restaurant when they saw an elderly lady. She was sitting all alone looking in their direction. They smiled back politely and the old lady went across to their table. "I' m sorry to

trouble you," she began, trying not to cry, "but you look like my daughter. She was killed last year and I do miss her terribly. I wonder if you would do something very kind for me?" The couple said yes. "It would make me very happy if, just as I'm leaving, you would say, 'Goodbye mum', and wave to me."

"Certainly," the couple replied. How could they possibly refuse? A few minutes later the old lady stood up to leave so the couple waved and said "Goodbye" as "Mum" walked out.

Then the couple asked for their bill. But after checking and rechecking, they called the manager because they thought the total was wrong.

"This £25 is for your mother's meal," the manager told them. "Before she left she said that her daughter would pay."

한 녀동무가 자기 남편과 함께 어느 고급료정에서 즐거운 저녁시간을 보내다가 웬 중년부인을 보았다. 녀인은 그들쪽을 바라보며 홀로 앉아있었다. 그들이 친절하게 미소를 지어보내자 녀인은 그들의 식탁으로 건너왔다. 《페를 끼쳐드려 미안하군요.》 울음을 터치지않으려고 애쓰며 녀인은 말문을 열었다. 《임잔 꼭 내 딸처럼 생겼구만. 그앤 작년에 죽었는데 난 그애가 정말 보고싶어. 임자네들이 친절을 베풀어 나를 위해 한가지 일을 해줄수 있지 않을가?》 부부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했다.《내가 여길 뜰 때 <안녕히 가세요, 엄마.>하고 말하며 나에게 손을 흔들어준다면 내 얼마나 행복하겠나.》

《그렇게 하지요.》 부부는 말했다. 차마 그 부탁을 어떻게 거절할수 있었으랴?

좀 있어 그 부인이 떠나가려고 일어나자 부부는 손을 흔들며 《엄마》가 밖을 나설 때 《안녕히 가세요.》하고 말했다.

그다음 부부는 계산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계산하고 또 계산해봐도 총액이 차이나 그들은 주인을 불렀다.

《이 25￡는 당신들의 어머니식사값입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였다. 《떠나기 전에 하는 말이 자기 딸이 돈을 물거라더군요.》

Very Expensive Food
매우 비싼 음식

Once, long ago, two men from the Far Wes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ceived an invitation to a banquet, arranged by the Governor of the State.

Why they were invited nobody knows, but anyhow, they got an invitation.

At the banquet -- the first they had ever been to -- they saw the guests take tiny little bit of something from a small pot.

The two men whispered to each other that it must surely be a very expensive kind of food because the guests took only very little of it. When their turn came, they both took two big spoonfuls of the brownish paste in the small pot and put it all in their mouths.

You can guess what happened when I tell you that the brownish substance in the small pot was … mustard.

오래전에 한번은 미국의 극서부지방에서 온 두 사람이 주지사가 마련한 연회에 초청되였다. 어떻게 되여 그들이 초청을 받게 되였는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초청장을 받았다.

난생처음 참가해보는 연회에서 그 두 사람은 손님들이 작은 단지에서 무엇인지 극히 조금씩 꺼내는것을 보았다. 손님들이 아주 작은 량만 먹는걸로 보아 아주 값비싼 음식이 틀림없을거라고 두 사람은 수군수군하였다. 차례가 되자 그들은 작은 단지안에 있는 약간 밤색을 띤 풀같은것을 두숟갈씩 푹푹 떠서 통채로 입안에 넣었다. 작은 단지안에 있는 거무스레한 물질이 겨자라고 말하면 무슨 일이 생겼겠는지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Information
정보

After an evening in a nightclub, a gay party at one of the tables rose to leave, beckoning to a waiter. One of them asked, "Is it raining outside?"

"Sorry," came the waiter's cold reply, "this isn't my table."

야간유흥장에서 어느 한 식탁을 차지하고 저녁을 먹고난 한무리의 화류패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접대원을 손짓하여 찾았다. 한사람이 물었다. 《지금 밖에서 비가 오오?》

《미안하지만》 접대원은 쌀쌀하게 대답했다. 《여긴 내가 맡은 식탁이 아닙니다.》

Fish and guests smell at three days old.
물고기와 손님은 3일이 지나면 냄새난다.

Or Else…
그렇지 않으면…

The man sitting at the bar had obviously drunk enough and the barman said he wouldn't serve him. The man got very angry and broke out in a rage. "Look," he said. "I know how much I can drink! I know I've had enough and I haven't had enough yet! So give me another drink, or I'll smash your head in!"

The barman was just about to answer when a little white mouse popped out of the man's top pocket and said: "Yeah! And the same goes for your cat, too!"

매대에 앉은 사람이 곤드레만드레 취하니 접대원이 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손님은 화가 잔뜩 나 왈칵 성을 냈다. 《이봐. 내 주량은 내가 알아. 충분히 마셨는지 아직 채 못 마셨는지는 내가 안단 말이야. 그러니 더 달란 말이야. 그렇지 않다간 그 대가릴 박살낼테다.》

접대원이 막 대꾸하려는 찰나 손님의 웃주머니에서 작은 흰쥐가 냉큼 뛰여나와 말했다. 《옳아요! 그리구 당신의 고양이대가리도 박살내세요!》

An Honest Waiter
고지식한 접대원

There was a truly honest waiter in a certain restaurant where two young businessmen go for lunch. The first time they asked him what kind of coffee the restaurant served.

He told them, “It’s our own blend--today’s and yesterday’s.”

두 젊은 실업가가 점심식사하러 가는 어느 료정에 참으로 고지식한 접대원이 한명 있었다. 맨처음 그들은 료정에서 어떤 커피를 봉사하는가 물었다.

접대원이 말했다. 《어제것과 오늘것을 한데 섞은 커피입니다.》

The Delightful Poison
즐거움을 주는 독약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great ruler in Persia. What he liked best were grapes. He wanted to enjoy them, even when they were out of season, and had his servants store grapes in jars.

But one day an accident took place. The sweet grapes were crushed in a jar. By and by their juice began to give out a strange smell. Its taste was also so strange that the ruler had his servants put it into another jar. This was labeled POISON, but they forget to throw it away.

One of the servants had grown tired of life and made up her mind to leave the world forever. By chance she saw the labled jar. It was the very thing that she was looking for. She secretly

drank some of the juice. Soon she felt warm and strange; finally she fell asleep. When she came to herself, she drank some more. No one really knows why she did so. Perhaps at first she thought that she had taken too little poison to kill herself. She kept drinking until there was no more “poison” left in the jar. Far from dying, she had most delightful feelings.

She honestly told her master what she had done. The drink soon spread all over Persia and was called “the delightful poison.”

옛날옛적에 페르샤에 한 대통치자가 살고있었다. 그가 제일 좋아한것은 포도였다. 제철이 아닌 때에조차 포도를 먹고싶어서 그는 시종들더러 단지들에 포도를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사고가 생겼다.

어느 한 단지안에 넣은 달디단 포도들이 터졌던것이다. 차츰 포도즙에서 이상한 냄새가 풍겨나기 시작하였다. 그 맛 또한 이상하여 통치자는 하인들더러 그것을 다른 단지에 넣도록 하였다. 《독약》이라는 딱지를 붙여놓았지만 그만 잊어먹고 내다버리지 못하였다.

어느날 한 시종이 살기가 지겨워 영원히 세상을 하직할 생각을 품었다. 우연히도 그는 딱지를 붙여놓은 단지를 띠여보았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찾고있던것이였다. 몰래 그 즙을 조금 마셨다. 곧 속이 따가와나고 기분이 이상해지더니 나중에 깊은 잠에 들어버렸다. 정신이 들자 그는 좀더 마시였다. 왜 그랬는지 실상은 누구도 모른다. 처음엔 지내 조금 마셔서 죽지 못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냥 마시다보니 나중에는 단지안에 《독약》이 조금도 남지 않았다. 죽기는커녕 기분이 전에없이 즐거워졌다.

그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하여 주인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 음료는 곧 온 페르샤에 퍼졌으며 《즐거움을 주는 독약》이라고 불리워졌다.

A thing of beauty is a joy forever.
아름다운것은 영원한 기쁨이여라.
(from an Epic Poem “Endymion” I. 1 by John Keats)

Mr. Smith's Blunders
스미스씨의 실책

Mr. Smith is well known in Washington because of his many social blunders.

At some dinner party, he was seated beside a very fine woman. The woman tried to do polite though she had never met Mr. Smith before. She turned to Mr. Smith and said, "Do you see that gray-haired man at the end of the table?"

"Oh, yes. Who is he?" asked Mr. Smith.

"He's the secretary of the Interior!" she answered. Mr. Smith said, "So that's the Secretary of the Interior! I'm afraid that I find nothing wonderful about him."

The woman did not say anything. But Mr. Smith went on. "I really can't see how he became the secretary. He is perhaps the president's close friend."

"It hardly matters whether you like the secretary or not," she said. "He was chosen because the president thought he was the man for the job. If he does the job well, you should not complain."

"That's just it," Mr. Smith went on. "No one does the things he does. He is a complete fool!"

"Sir!" said the woman. "Do you know who I am?"

"No," answered Mr. Smith.

"I am the secretary's wife," she said.

Mr. Smith was surprised, but he went on. "Madam, do you know who I am?"

"No, I don't," she answered.

"Thank god!" cried Mr. Smith, as he quickly left the table.

스미스씨는 사회적실책을 많이 저지른것으로 하여 워싱톤에 잘 알려져있다.

어느 만찬회에서 그는 퍽 아름다운 부인옆에 자리를 잡았다. 그 부인은 스미스씨를 한번도 만난적이 없었지만 상냥하게 처신하려고 애썼다. 그는 스미스씨를 돌아보며 물었다. 《식탁옆에 앉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이 보입니까?》

《아, 보입니다. 누군데요?》 스미스씨가 물었다.

《내무장관이랍니다.》 부인의 대답이였다.

《그러니 저 사람이 내무장관이군요! 훌륭한데라고는 전혀 없는 것 같구만요.》 스미스씨가 말했다.

부인은 더이상 아무말도 하지 않았지만 스미스씨의 이야기는 계속되였다. 《어떻게 장관이 됐는지 정말 모르겠구만. 아마 대통령의 가까운 친구인 모양이지요.》

《당신에게 내무장관이 마음에 들던말던 문제될거야 없지요. 대통령이 그가 적임자라고 생각되였기때문에 선출한거예요. 그가 그 일을 잘하고있다면 불만스러워하지 말아야지요.》

《그야 그렇지요.》 스미스씨는 계속하였다. 《누구도 그가 하는 일들을 하지 않소. 그는 완전한 백치요!》

《손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오.》 스미스가 대답했다.

《저 내무장관의 처랍니다.》

스미스씨는 깜짝 놀랐으나 이내 말을 이었다. 《부인,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몰라요.》

《하느님 맙시사!》 스미스씨는 황급히 식탁을 떠났다.

The Great Eater
대식가

A woman went into a restaurant down by the railroad tracks to eat. There were a couple of tough-looking men sitting at a table. One of them said to the waiter, “Give me a T-bone steak an inch and a half thick. Cook it for one minute only.” then the other fellow said. “Give me a whole hindquarter. Serve it raw.”

When the waiter came over to the woman, she said to him in a loud voice, “Give me a sharp butcher knife and alive cow. I’ll cut off I want!”

한 녀인이 철길옆 식당으로 식사하러 들어갔다. 그런데 한 식탁에 험상궂게 생긴 두 사람이 앉아있었다. 한사람이 접대원에게 말했다. 《나한테 T자형의 뼈가 붙은 1.5in두께의 소고기점을 가져다주시우. 딱 1분간만 끓여주.》 그러자 다른 사람이 말했다. 《나한텐 뒤다리 하나를 통채루 주시우다. 날것채로요.》

접대원이 녀인에게 다가가자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나한텐 날을 세운 고기베는 칼과 살아있는 소를 가져다주세요. 내 먹고픈대로 잘라먹을테니.》

Waitress and Tip
녀접대원과 사례금

Dear Ann Landers:

Why do people tip the waitress when the cook spends hours preparing the food and the dishwasher does the dirty work? The waitress sits and smokes while the real work is being done in the kitchen. All she does is carry out the plates and collect that nice tip. I wish you’d blast this unfair practice.

-Mad

Dear Mad:

The waitress is the one whose personality (or lack of it) makes the first impression on the guest. She takes the order and carries the trays that sometimes weigh 30 pounds. She also keeps her eye on the table and makes sure everyone has what he wants - more water, more coffee, steak, sauce, more butter, extra napkin, etc. A good waitress doesn’t have time to sit around and smoke. She works like a horse and deserves the tip.

친애하는 앤 랜더즈씨,

료리사가 음식준비를 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설겆이군은 지저분한 일을 하는데 사례금은 어째서 접대부가 받습니까? 진짜일은 주방안에서 하는데 그동안에 접대부는 앉아서 담배만 피웁니다. 그가 하는 일이란 료리들을 날라내가고 괜찮은 사례금을 거둬들이는것뿐입니다. 이 불공평한 관례를 깨뜨려주셨으면 합니다.

-매드

친애하는 매드씨:

접대부란 인격으로(혹은 그 인격의 결핍으로) 손님들에게 첫 인상을 안겨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문을 받아가지고 때로는 무게가 301b(폰드)씩이나 나가는 쟁반들을 나릅니다. 또한 식탁을 줄곧 지켜보면서 손님들마다 더 요구하는 물이며 커피며 고기구이, 쏘스며 빠다며 수건이며가 다 나왔는가를 확인합니다. 훌륭한 접대원이라면 한가스레 앉아 담배를 피울 시간이 없습니다. 말처럼 일하므로 사례금을 받을만 합니다.

※ 11b=0.453kg

The Waiter and 2 Dollars
접대원과 2US$

Three men had dinner at a hotel, received a bill for 30 dollars, and each handed a 10-dollar note to the waiter.

The waiter took their money to the office, where he was told that there had been a mistake - the bill should have been for 25 dollars, not 30; so he was sent back with 5 dollars. On the way back he thought, “It’s difficult to divide 5 dollars between three men, and they do not know the actual amount of the bill.” So he kept 2 dollars and returned one dollar to each of the three men.

세 사람이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30US$어치의 계산서를 받았는데 제각기 10US$씩 접대원에게 주었다. 접대원은 그 돈을 출납에 가

져다주었는데 착오가 생겨 계산서가 30US$가 아니라 25US$어치의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5US$를 도로 받았다. 출납에서 돌아오며 그는 생각했다. (세 사람에게 5US$를 나눠주기는 힘들거니와 그들이 계산서의 실지액수를 모르고있다.) 그리하여 그는 2US$는 건사하고 세 사람에게 각각 1US$씩 되돌려주었다.

Music washes away from the soul the dust of everyday life.

음악은 마음에 쌓인 일상생활의 먼지를 씻어낸다.

(John Wolfgang von Geothe, 1749-1832, 도이췰란드의 시인, 극작가, 소설가, 정치가)

The Stanage Feast
괴이한 연회

Shacabac was a very poor man. He often did not have enough money to buy food, and sometimes he had nothing for two or three days.

One day he was very hungry. He had had no food for a long time. He said to himself, “I’ll die if I don’t eat soon. I’m going to ask a rich man to help me. I’ll go to old Barmecide because he is very rich.”

So Shacabac went to Barmecide’s beautiful house. A servant took him to the old man. When Barmecide heard his story, he said, “What! Haven’t you eaten anything for three days? Come, you must have a meal at once.”

The two men sat down at a table, but there was nothing on the table at all. “Will you have some fish?” Barmecide asked. “It was caught in the river this morning and it’s very fresh.” Barmecide moved his hands across the table. It looked as if he

was putting fish in front of Shacabac. Then he moved his hands again, and pretended to put a fish in front of himself. Later, he said, "How did you like your dinner?"

Shacabac said, "It was a very good dinner. It was the best dinner that I have ever had."

Barmecide laughed. He said, "Good, my friend. I like you. You are the first man who has eaten with me in this way and not laughed at me."

Then the rich man led Shacabac to another room. They both sat down at another table, and there was good food on their plates. The servants brought fish, meal, fruit and other good things and placed them in front of the two men.

Barmecide and Shacabac ate and laughed together until late at night.

샤까바끄는 가난한 사람이였다. 돈이 없어 먹을것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어떤 때는 2~3일씩 끼니를 에우지 못하는 때도 있었다.

어느날 그는 몹시 배가 고팠다. 오래동안 음식을 입에 대보지 못했던것이다. 《당장 요기하지 않으면 죽구말겠다. 어느 부자한테 찾아가 도와달래야지. 바르메씨데령감이 잘사는 령감이니 그한테 가야지.》

그래서 샤까바끄는 바르메씨데의 훌륭한 저택으로 찾아갔다. 하인이 그를 늙은이에게 안내했다. 바르메씨데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뭐라구? 사흘동안 먹지 못했다구? 오라구. 당장 식사를 해야겠구만.》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지만 식탁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물고기를 들겠나?》 바르메씨데가 물었다. 《오늘 아침 강에서 건져온건데 물이 아주 좋은거네.》 바르메씨데는 식탁우에서 손을 움직였다. 마치도 샤까바끄의 앞에 물고기를 놓는듯싶었다. 다시 손을 움직이며 자기앞에 물고기 한마리를 가져다놓는척 하였다. 나중에 그는 말했다. 《맛있게 들었나?》

《정말 훌륭한 식사였습니다. 생전 처음보는 훌륭한 식사였습니다.》 샤까바끄가 말했다.

바르메씨데는 허허 웃었다. 《좋아, 나의 친구! 자네가 마음에 드누만. 나와 함께 이렇게 식사하고 날 비웃지 않은 사람은 자네가 처음이야.》

그리고나서 그는 샤까바끄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갔다. 둘 다 료리가 차려져있는 다른 식탁에 마주 앉았다. 하인들이 물고기며 육붙이며 과일이며 등 맛있는 음식들을 날라다 두 사람앞에 차려놓았다.

바르메씨데와 샤까바끄는 밤늦도록 어울려 먹고 웃고 하였다.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해서

A: What do you think of Japanese food?
B: Very good. But frankly speaking, I can't eat takuan

A: 일본음식이 어떻습니까?
B: 아주 훌륭합니다. 한데 솔직한 말로 다꾸앙은 못먹겠습니다.

One-sided Fish
외면물고기

When a man liked a fish that was placed on his table, he ate the meat on the upper-side and then asked for anothor fish. But in the kitchen there was no more of the same fish. The attendant took away the fishplate, turned over the fish and brought it back to him.

He ate it and said. "Thanks a lot." He did not know there were two sides to a fish in fact.

한사람이 식탁에 오른 물고기료리가 맛이 좋아 웃면의 살을 다 먹고나서 또 청하였다. 그러나 주방에는 손님이 요구한 물고기가

다 떨어졌다. 접대원은 물고기접시를 내갔다가 접시우의 물고기를 뒤집어 손님에게 도로 가져왔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실지로 그는 물고기에 량쪽면이 있다는것을 몰랐던것이다.

Before the Trouble Starts
불행한 일이 생기기 전에

A man went into a bar, sat down, called the barman and said to him, "Give me a drink before the trouble starts."

The barman was busy with other people, so he did not say anything, but he gave the man the drink, and the man drank it quickly. Then he put his glass down, called the barman again and said to him, "Give me another one before the trouble starts."

Again the barman was too busy to say anything, so he gave the man his drink and went away. The man drank that too, and then again he called the barman and said to him, "One more drink before the trouble starts, please."

This time the barman was not very busy, so when he brought the man his third drink, he said to him, "What trouble are you talking about?"

The man answered, "I haven't got any money."

한사람이 술집에 들어와 매대에 털썩 앉더니 판매원에게 말했다. 《불행스런 일이 생기기 전에 나에게 술 한잔 주시오.》

판매원은 다른 사람들을 치르느라 겨를이 없어서 뭐라고 말을 못하고 잔을 그에게 내밀었는데 그걸 그는 단숨에 들이키였다. 그리고는 잔을 내려놓고 다시 판매원을 부르고는 말했다. 《불행스런 일이 생기기 전에 또 한잔 주오.》

이번에도 일이 바쁘다나니 판매원은 말을 건네지 못하고 잔을 내밀고는 가버렸다. 그 사람은 그것도 들이키고는 또 판매원을 불러 말하였다. 《불행스런 일이 터지기 전에 한잔 더 마십시다. 어서요.》

이번에는 판매원이 그닥 들뷰이지 않아 세번째 잔을 갖다주고 물었다. 《당신이 말하는 불행스런 일이란 무엇이요?》

그 사람이 대답했다. 《돈이 하나도 없는거요.》

"Why should I Send a Money Away? "
《어째서 돈을 보내야 한단 말이요?》

A man and his wife had a small bar near a station. The bar often stayed open until after midnight, because people came to drink there while they were waiting for trains.

At two o'clock one morning, one man was still sitting at a table in the small bar. He was asleep. The barman's wife wanted to go to bed. She looked into the bar several times, and each time the man was still there. Then at last she went to her husband and said to him, "You've woken that man six times now, George, but he isn't drinking anything. Why haven't you sent him away? It's very late."

"Oh, no, I don't want to send him away," answered her husband with a smile. "You see, whenever I wake him up, he asks for his bill, and when I bring it to him he pays it. Then he goes to sleep again."

한사람이 안해와 함께 정거장 가까이에서 자그마한 술집을 차려놓았다. 손님들이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들어와 술을 청하군 했으므로 술집은 가끔 자정이 넘어서도 문을 닫지 않았다.

어느날 새벽 2시인데 한사람이 여전히 식탁에 앉아있었다. 잠을 자고있었다. 술집주인의 안해는 이제는 잠자리에 들고싶었다. 녀인은 여러번이고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때마다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마침내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다. 《죠지, 당신이 벌써 여섯번이나 깨웠는데도 저 사람은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군요. 왜 보내지 않았어요? 퍽그나 늦었는데.》

《아, 보내다니. 보내고싶지 않소.》 남편은 히죽이 웃었다. 《여

보. 내가 깨울 때마다 저 사람은 청구서를 요구하는데 그걸 내가 갖다주면 돈을 무오. 그리고는 다시 잠들어버리거든.》

Fish Sandwiches
물고기쌘드위치

It was a small factory, and there was nowhere to eat near it, so the workmen took food from their homes and ate it in the factory at midday. One of the workmen always had fish sandwiches. Every day he took one of them out of his bag, bit it, and then threw all the sandwiches angrily away.

At last, one day one of the workmen said to him, “But, Bill, don’t you like fish sandwiches?”

“No,” said Bill, “I hate them.”

“Then why does your wife make them for you every day? There are lots of other nice things for sandwiches. Tell your wife, and she will make other sandwiches.”

“It isn’t as easy as that,” answered Bill. “I haven’t got a wife. I make the sandwiches myself.”

자그마한 공장인데다 가까이에 식당이 없다보니 로동자들은 집에서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는 점심시간에 구내에서 식사를 하군 했다. 로동자들가운데는 언제 봐야 물고기쌘드위치를 싸오는 사람이 있었다. 매일 그는 가방에서 쌘드위치를 하나 꺼내 깨물어보고는 몽땅 내던지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한 로동자가 말했다. 《저런 빌, 자네 물고기쌘드위치를 좋아하지 않나?》

《그렇네.》 빌이 말했다. 《난 막 증오한다네.》

《그렇다면 어째서 안해가 매일 물고기쌘드위치를 만들어보내나? 쌘드위치에야 다른 좋은것들도 많은데. 안해한테 이르게. 그럼 다른 쌘드위치를 만들어줄거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네.》 빌이 대답했다. 《나한텐 녀편네가 없네. 그 쌘드위친 내 손으로 만드는거네.》

There is something deep and good in melody, for body and soul go strangely together.
몸과 마음이 기묘하게도 어울리니 선률속에는 심오하고도 훌륭한 그 무엇인가가 들어있다.
(Thomas Carlyle, 1795-1881, 스코틀런드태생의 영국의 사상가, 평론가, 력사가)

"Eat, Coat!"
《먹어라, 옷아!》

One day Nasreddin went to a big dinner party. He was wearing old clothes, and when he came in, nobody looked at him and nobody gave him a seat at a table. So Nasreddin went home, put on his best clothes, and then went back to the party. The host at once got up and came to meet him. He took him to the best table, gave him a good seat, and offered him the best dishes.

Nasreddin put his coat in the food and said, "Eat, coat!"

The other guests were very surprised and said, "What are you doing?"

Nasreddin answered, "I was inviting my coat to eat. When I was wearing my old clothes, nobody looked at me or offered me food or drink. Then I went home and came back in these clothes, and you gave me the best food and drink. So you gave me these things for my clothes, not for myself."

어느날 내스레딘이 큰 만찬회에 참가하였다. 헌옷을 입고갔더니 그가 들어서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식탁에 앉으라고 자리를 내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내스레딘은 집으로 가 제일 좋은 옷을 입고서 다시 연회장으로 갔다. 주인은 닁큼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다. 제일 잘 차린 식탁에 데리고 가 좋은 자리를 내주고는 제일 훌륭한 료리를 권하는것이였다.

내스레딘은 웃옷을 음식그릇들속에 놓고는 말했다. 《먹어라, 옷아!》

손님들이 깜짝 놀라 물었다. 《뭘 하고있나?》

내스레딘이 대답했다. 《내 웃저고리더러 먹으라구 청하던중이였네. 내가 헌옷을 입고있을 땐 보는 사람도, 음식이나 마실것을 권하는 사람도 없더군. 그래서 집으로 가 이 옷들을 입고 도로 왔더니 자네들은 제일 좋은 음식과 마실걸 주었네. 그러니 이것들이야 나에게가 아니라 내 옷들을 위해서 준것이 아니고 뭔가.》

"I' ve Stopped Drinking Beer."
《난 맥주를 끊었는걸요.》

A man always went to the same bar at the same time every day and asked for two glasses of beer. He drank them and then asked for two more.

One day the man behind the bar said to him, "Why do you always ask for two glasses of beer? Why don't you get one big glass instead?"

The man answered, "Because I do not like to drink alone. I drink with my friend."

But a few days later the man came in and asked only for one beer.

"Oh," said the barman, "has your friend died?"

"Oh, no," said the man. "He is very well. This beer is for him. But I have stopped drinking beer. My doctor doesn't want me to drink any more because it is dangerous for me."

한사람이 매일 꼭같은 시간에 꼭같은 매대에 나타나 맥주 두조끼를 청하군 하였다. 그는 그것들을 다 마시고나서는 두조끼를 또 청했다.

어느날 접대원이 물었다. 《늘쌍 봐야 맥주를 두조끼 청하는데 왜 그러는거요. 차라리 큰 조끼 하나를 청하지 않구?》

손님이 대답했다. 《혼자서 마시고싶지 않으니까요. 친구와 함께 마신답니다.》

한데 며칠후 그가 들어오더니 맥주 한조끼만을 요구하는것이였다.

《아하,》 접대원이 말했다. 《당신 친구가 죽었소?》

《아, 웬걸요.》 그가 대답했다. 《아주 건강하답니다. 이 맥준 그 사람거요. 난 맥주를 끊었소. 의사가 더이상 마시지 말라는군요. 내 몸에 해롭다나요.》

-Opportunity seldom knocks twice.

좋은 기회는 두번다시 오지 않는다.

-Fortune favors the brave.

행운은 용감한 사람에게 차례진다.

-Wisdom makes a man understand everything and not be surprised at anything.

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것을 리해하고 그 무엇에도 놀라지 않게 만든다.

-Honesty inspires respect.

정직성은 존경심을 낳게 한다.

-A short saying often contains much wisdom.

흔히 짧은 말속에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12. Lodging and Rest
숙박과 휴식

“Then When should We See the Sights of Rome!”
《그럼 로마구경은 언제!》

Mr. and Mrs. Williams had always spent their summer holidays in England in the past, in a small boarding-house at the seaside. One year, however, Mr. Williams made a lot of money in his business, so they decided to go to Rome and stay at a really good hotel while they went around and saw the sights of that famous city.

They flew to Rome, and arrived at their hotel late one evening. They expected that they would have to go to bed hungry, because in the boarding houses they had been used to stay in the past, no meals were served after seven o’clock in the evening. They were therefore surprised when the clerk who received them in the hall of the hotel asked them whether they would be taking dinner there that night.

“Are you still serving dinner then?” asked Mrs. Williams.

“Yes, certainly, madam,” answered the clerk. “We serve it until half-past nine.”

“What are the times of meals then?” asked Mr. Williams.

“Well, sir,” answered the clerk, “we serve breakfast from seven to half-past eleven in the morning, lunch from twelve to three in the afternoon, tea from four to five, and dinner from six to half-past nine.”

“But that hardly leaves any time for us to see the sights of Rome!” said Mrs. Williams in a disappointed voice.

윌리암스부부는 지난 시기 여름휴가를 늘 잉글런드의 바다가에

있는 자그마한 하숙집에서 보내군 하였다. 그런데 어느해 윌리암스씨가 기업에서 많은 돈을 벌었으므로 그들은 로마로 가 고급호텔에 묵으면서 그 유명한 도시를 돌아다니며 관광하자고 토의했다.

그들은 로마로 날아가 어느날 저녁늦게야 호텔에 이르렀다. 그들은 출출한 배를 달래며 잠자리에 들어야 할거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럴만도 한것이 이전에 묵군 하던 하숙집들에서는 저녁 7시가 지난 후에는 식사를 차려주지 않았기때문이였다. 그러다보니 호텔 홀에서 맞아들이던 접대원이 저녁식사를 호텔에서 하겠는가고 물어보았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럼 여기선 아직까지도 저녁식사를 내는가요?》 윌리암스부인이 물었다.

《예, 물론이죠, 부인.》 접수원이 대답했다. 《9시 반까지 저녁식사를 봉사해드립니다.》

《그럼 식사시간은 언젠가요?》 윌리암스씨가 물었다.

《그건 손님,》 접수원이 대답했다. 《아침식사는 아침 7시부터 11시 반까지, 점심식사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차는 4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저녁식사는 6시부터 9시 반까지 봉사해드립니다.》

《어마나, 그러느라면 로마를 관광할 시간이 차례지지 않겠네.》 윌리암스부인이 실망하여 하는 말이였다.

"Nothing Special."
《별다른건 없습니다.》

Once, late at night, an Englishman came out of his room into the corridor of a Paris hotel and asked a servant to bring him a glass of water. The servant did as he was asked. The Englishman reentered his room, but a few minutes later he came into the corridor again and once more asked the servant for a glass of water. The servant brought him another glass of water.

Every few minutes the Englihman would come out of his room and repeat his request. After a half-hour the astonished

servant decided to ask the Englishman what he was going to do with the water.

"Nothing," the Englishman answered imperturbably, "It's simple that my room is on fire."

빠리의 어느 한 호텔에서 한번은 밤이 이슥하여 한 영국사람이 자기 방에서 복도에 나와 하인더러 물 한고뿌를 가져다달라고 요구하였다. 하인은 그의 요구대로 하였다. 그 영국사람은 자기 방에 도로 들어갔는데 몇분후에 복도로 나와서 물 한고뿌를 더 달라고 요구했다. 하인은 물 한고뿌를 또 가져다주었다. 몇분에 한번씩 그 손님은 복도에 나와서 거듭 하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반시간후에 더럭 의심이 든 하인은 물을 가지고 뭘하러 그러는가고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요.》 영국사람은 태연스레 대답했다. 《내 방에 불이 났을뿐이요.》

Hospitality
환대

The hostess apologized to her unexpected guest for serving an apple-pie without any cheese. The little boy of the family left the room quietly for a moment and returned with a piece of cheese which he laid on the guest's plate.

The visitor smiled, put the cheese into his mouth and then said: "You must have better eyes than your mother, Sonny. Where did you find the cheese?"

"In the rat-trap, sir," replied the boy.

녀주인이 예견치 않게 온 손님에게 치즈를 곁들이지 않은 사과파이를 봉사한데 대하여 량해를 구하였다. 그 집 어린애가 슬그머니 방에서 나가더니 얼마후에 한쪼각의 치즈를 가지고 돌아와 손님의 접시우에 올려놓았다. 손님은 빙그레 웃으며 치즈를 입에 넣고서 말했다. 《쏘니, 넌 네 엄마보다 눈이 더 밝구나. 치즈를 어디서 찾았냐?》

《쥐덫에서요.》 소년이 대답했다.

A Waxwork or a Man?
밀랍인형인가 사람인가?

One rainy afternoon Martin took Jillian to a waxworks exhibition. They stopped to look at a group of politicians.

While Martin was speaking, Jillian had been watching one of the attendants, standing behind him. He was a little old man with a moustache and thick glasses. He hadn't moved at all and Jillian hadn't seen him blink. "Yes," she told herself, "he's a waxwork, too." And she thought she would play a trick on Martin. So, when he wasn't looking, she hung the handle of her umbrella over the attendant's wrist, and walked away quickly.

A few minutes later, having arrived in another part of the exhibition, Jillian turned to Martin and said, "Oh, darling, I've left my umbrella behind. I gave it to an attendant to look after, the one with a moustache in the politicians' room. Would you mind going for it?"

Martin smiled to himself as he went back to the other room. "She wants me to start a conversation with a waxwork," he thought. So when he went straight up to the man and took hold of the umbrella handle. But the attendant stopped him and said, "Excuse me, sir, but I don't think it's your umbrella." Martin was so surprised that the little old man was not a waxwork that he didn't know what to say. "No, I know it's not mine," he began. "You see, I thought you were…"

Behind his glasses, the attendant's eyes shone. "I see, sir. You thought you would take this umbrella from me, because you thought I was part of the exhibition. Yes, there used to be a lot of people like you coming in." Then he looked closely at Martin. "Yes, you used to come here about ten years ago with a friend, didn't you? You used to change the names of the waxworks, didn't you? You thought nobody saw you, didn't you?"

By the time, Martin was blushing bright red and he turned round to see Jillian, who had heard the last part of the conversation. She laughed, went up to the attendant and said, “May I have my umbrella now, please? I knew you would look after it for me.” The little old man passed it to her with a smile.

어느 비오는 날 오후 마틴은 질리언을 밀랍세공품전시회장에 데리고 갔다. 그들은 전시장에서 여러명의 정치가들을 보았다.

마틴이 한창 이야기하고있는 동안 질리언은 마틴의 뒤에 서있는 한 안내원을 보았다. 그는 코수염을 기르고 두꺼운 안경을 낀 좀 나이지숙한 사람이였다. 그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으며 눈조차 깜빡하지 않았다. 《저것도 밀랍세공품이구나.》하고 생각한 질리언은 마틴을 골려줄 생각을 하였다. 질리언은 자기의 우산손잡이를 마틴이 보지 않을 때 그 늙은이의 손목에 걸어놓고는 재빨리 가버렸다.

몇분후 질리언이 다른 전시장을 돌아보면서 마틴에게 말하였다. 《어쩌나. 이봐요. 우산을 그만 두고 왔군요. 아까 정치가들의 전시장에 있던 한 코수염쟁이안내원에게 봐달라고 주었댔어요. 좀 가져다주겠어요?》

마틴은 혼자 웃으며 그 방으로 가면서 생각했다. 《나더러 밀랍세공품과 이야기하라는거야!》 마틴은 곧장 그 늙은이에게 다가가서 우산손잡이를 잡아쥐였다. 그런데 그 늙은 안내원이 마틴을 멈춰세우더니 말했다.《실례이지만 손님, 당신의 우산이 아닌것 같은데요.》 그 늙은이가 결국은 밀랍세공품이 아니라는것을 알고 마틴은 깜짝 놀라 뭐라고 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예. 제것이 아닙니다. 보시다싶이 전 당신이…》 그리고는 말을 얼버무렸다.

안경너머로 늙은이의 눈이 반짝였다. 《알만합니다. 당신은 내가 밀랍세공품인줄 알고 이 우산을 나한테서 가져갈 생각을 했지요? 옳소. 당신같은 사람들이 종종 들어오군 하오.》 그러더니 마틴을 찬찬히 보는것이였다. 《그렇지. 당신은 한 10년전에 친구와 함께 여기루 오군 했지요? 그리고는 세공품의 이름들을 바꾸어놓군 했지요? 당신은 누구도 자기들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이렇게 되자 마틴은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질리언을 찾으려고 돌

아보는데 질리언은 그들이 하는 마지막 대화를 다 듣고난 뒤였다. 그는 호호 웃으며 안내원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젠 제 우산을 돌려주시겠지요? 당신이 봐줄거라구 생각했댔어요.》 늙은이는 웃으며 질리언에게 우산을 돌려주었다.

On a Holiday
명절날에

Last Monday was a holiday. Mrs. Brown got up early, but her husband and children got up late. “You’re all very lazy today,” said Mrs. Brown. “How are you going to spend the day today, children?”

“I should do my homework, but I don’t feel like doing it. It’s a holiday today,” answered Sue.

“What about you, Sandy?” asked the mother.

“I should finish this book, but I don’t feel like it today,” said Sandy.

Then Mr. Brown came into the room. “Will you repair the fence, please?” She asked her husband.

“Oh,” he said, “I should repair it, but I don’t feel like it today. It’s a holiday today.”

“Isn’t our breakfast ready yet, Mom?” asked Sandy.

“No, not yet,” Mrs. Brown answered. “I should have already cooked breakfast. But I don’t feel like it today. It’s a holiday today.”

“How about driving out into the country?” asked Mr. Brown. “Hurrah!” the children shouted. Half an hour later Mr. Brown and his family got into the car, and he drove into the country.

An hour later Mrs. Brown said, “Jim, I think I forget to unplug the iron. I ironed some clothes. I should have checked, but I forgot to.”

“My goodness!” Mr. Brown cried. “We have to go back right now.”

Mr. Brown complained all the way home. He drove very fast and soon the family arrived home. Mrs. Brown rushed into the kitchen. She was very glad to find that she had unplugged the iron. “It’s all right,” said she relieved.

Then Sandy went into the bathroom. “Mom!” he called. “The bathroom is full of water.”

“Oh!” said the father. “I forgot to turn the tap off after having a bath.”

전주 월요일은 명절이였다. 브라운부인은 일찍 일어났지만 남편과 아이들은 늦게 일어났다. 《오늘은 다들 무던히도 게을러졌군.》 브라운부인이 말했다. 《얘들아, 오늘은 뭘 하면서 지내려니?》

《숙제를 해야 하는데 하고싶지 않아요. 오늘은 명절이거든요.》 슈가 대답했다.

《쌘디, 넌?》 어머니가 물었다.

《이 책을 다 읽어야겠는데 오늘은 읽고싶지 않군요.》 쌘디가 말했다.

그때 브라운씨가 방에 들어왔다. 《울타리수리를 하시겠어요?》 남편에게 물었다.

《거말이요? 수리하긴 해야겠는데 오늘은 하고싶질 않구만. 오늘이야 명절이 아니요.》

《아침식사가 아직 안됐어요, 엄마?》 쌘디가 물었다.

《오냐, 아직 안됐다.》 브라운부인이 대답했다. 《벌써 다 지어놨어야겠지만 오늘은 하고싶지 않구나. 명절이 아니냐.》

《교외로 차를 타고 나가는게 어떠냐?》 아버지가 물었다. 《만세!》 아이들이 소리쳤다. 반시간후에 브라운씨와 집식구들은 차를 타고 교외로 나갔다.

1시간후에 브라운부인이 말했다. 《짐, 다리미스위치를 뽑지 못한것 같아요. 옷을 여러벌 다렸댔어요. 확인해봤어야 하는걸 그만 잊어버렸군요.》

《원 저런!》 브라운씨가 소리쳤다. 《당장 돌아가야겠소.》

브라운씨는 집으로 가는 길에 그냥 두덜거렸다. 차를 급하게 몰

아 인차 가닿을수 있었다. 브라운부인은 부엌으로 뛰여들어갔다. 자기가 스위치를 뽑아놓은것을 보자 그는 무등 기뻐하였다.《됐구나.》 브라운부인은 안도의 숨을 쉬였다.

그때 쌘디가 목욕탕으로 들어갔다가 소리질렀다.《어머니! 온통 물바다예요.》

《아차!》 아버지가 말했다.《내가 목욕을 한 다음 수도꼭지를 막는다는게 그만 잊었댔구나.》

"Still Damp."
《아직도 눅눅합니다.》

Mr. Leonard was twenty-three years old and not very rich. He was not married and he lived in two rooms in a small house in a city.

Every summer he went down to the sea for a holiday. He stayed in small, cheap hotels, but he always wanted to have a clean, tidy room. He hated dirty places.

One summer a friend of his said, "Go to the Tower Hotel in Whitesea. I went there last year, and it was very nice and clean."

So Mr. Leonard went to the Tower Hotel in Whitesea. But there was a different manager that year. The new manager took Mr. Leonard to his room. The room looked quite nice and clean, but Mr. Leonard said to the manager, "Are the sheets on the bed clean?"

"Yes, of course they are!" the manager answered angrily. "We washed them this morning. Feel them. They're still damp."

레오나드씨는 올해 23살인데 그닥 부유한 축은 못되였다. 그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느 시내의 자그마한 두칸짜리 집에서 살고있었다.

해마다 여름이면 그는 바다가에 가서 휴가를 보내군 하였다. 값싼 자그마한 호텔에서 묵었는데 늘 깨끗하고 아담한 방에 들고싶어했다. 그는 더러운 곳이라면 질색이였다.

어느 여름날 한 친구가 말했다. 《백해에 있는 타우워호텔로 가게. 지난해 가보니 퍽 산뜻하고 깨끗하더군.》

그래서 레오나드씨는 그 호텔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해에는 관리인이 다른 사람이였다. 새 관리인은 레오나드씨가 들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 방은 정말 산뜻하고 깨끗해보였지만 레오나드씨는 관리인한테 물었다. 《침대보는 깨끗한가요?》

《예. 물론이죠.》 관리인은 화가 동해서 말했다. 《오늘 아침 빨았습니다. 만져보시죠. 아직도 눅눅하답니다.》

To Miss the Last Train
마지막 렬차를 놓치려고

It was a few days before Christmas, so when the office closed at half past five, most of the young men and typists stayed and had a party. They ate and drank, danced and sang songs, and nobody wanted to go home. But Joe had a wife at home, and lived quite a long way from the city. Every few minutes he looked at his watch, and at last, when it was very late, he began to leave.

"Joe!" shouted his friends. "Are you leaving? Why don't you stay and enjoy the party?"

"I am not leaving," said Joe. "I am only going down to the station to miss the last train back home. I will be back here in a few minutes."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때라 사무소가 5시 반에 문을 닫았을 때 대부분의 젊은이들과 타자수들이 남아서 연회를 열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를 불렀는데 누구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했다. 그러나 죠는 집에 안해가 있는데다 시내에서 퍽 먼곳에서 살고있었다. 그는 몇분에 한번씩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퍽 늦어서야 떠나려고 하였다.

《죠!》 친구들이 소리쳐 찾았다. 《떠나려나? 왜 남아서 즐기지 않구?》

《가는게 아니네.》 죠가 말했다.《그저 정거장에 내려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기차를 놓치려고 그러네. 좀 있다 도로 오겠네.》

"The Deer Has Gone Away."
《사슴들이 가버렸수다.》

Mr. Pearce liked shooting ducks very much. Whenever he had a free day, he went out shooting with his friends. But one summer he said to himself, "I've never been to the mountains. My holidays are going to begin soon, so I'm going to go to the mountains and shoot deer. They're more interesting than ducks, I think."

So when his holidays began, Mr. Pearce went to the mountains. He walked through fields and forests for a few kilometers. Then he saw a farmer in a field and asked him. "Good morning? Are there any deer here?"

"Well," answered the farmer slowly, "there was one last year, but all the gentlemen from the town came and shot at it, and it's gone somewhere else now, I think."

피어스씨는 오리사냥을 무던히도 좋아하였다. 시간이 있으면 그는 동료들과 함께 사냥을 나가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해 여름 그는 혼자 속으로 말했다. (여태 산에 가본적이 없지. 좀 있으면 휴가가 시작되는데 산에 가서 사슴사냥이나 할가. 오리사냥보다 더 재미날게야.)

그래서 휴가가 시작되자 피어스씨는 산으로 갔다. 들판과 수림속을 지나 몇㎞를 갔다. 그러다 어느 들판에서 한 농군을 만나 물었다. 《안녕하시오? 여기 사슴이 좀 있는가요?》

《거말이지요.》 농군은 뜨직뜨직 대답했다. 《지난해엔 있었는데 도시에서 신사나리들이 들어와 사냥해버려놔서 지금은 어디론가 딴데 가버린 모양이웨다.》

Thanks to the Guest's Car
손님차덕분에

It was Christmas, and there was a big party in the house. Guests came and went, but the party continued. Then the bell rang. Several people shouted, "Come in!" and a small man opened the front door and came in. Nobody knew him, but the host went to meet him and took him to the bar for a drink. The man sat there happily for an hour and a half and drank. Then suddenly he stopped and looked at his host. "Do you know," he said, "nobody invited me to this party? I don't know you, I don't know your wife and I don't know any of your guests. My wife and I wanted to go out in our car, but one of your guests' cars was in front of our gate, so I came here to find him - and my wife is waiting in our car for me to come back!"

크리스마스날이여서 집에서 대연회가 열리였다. 손님들이 오고 가고 하는 속에 연회는 계속되였다. 그러던중 초인종이 울리였다. 여러 사람들이 소리쳤다.《들어오시오.》했는데 키작은 사나이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왔다. 누구도 그를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집주인은 다가가 맞이하고는 매대로 데리고 가서 마실것을 권했다. 그 사나이는 거기에 즐거이 앉아 한시간 반동안 마시였다. 그러다 별안간 먹던것을 중지하고 집주인을 바라보는것이였다.《아십니까?》그는 말했다.《절 이 연회에 초청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 당신도 당신의 안해도 모르며 손님들중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안해와 함께 차를 타고 외출하려 보니 손님들의 차 한대가 우리 집 대문을 막고있어서 주인을 찾으러 왔습니다. 지금 안해가 차안에서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있습니다.》

13. Shop and Shopping
상점과 물건사기

A Very Smart Warm Grey Hat
매우 산뜻하고 따스한 회색모자

Jillian: Have you got a grey please?
Shop-assistant: Yes, we have some very smart grey hats.
Jillian: Oh, good! Have you a hat made of fur?
Shop-assistant: Yes, here's a grey fur hat. It's as grey as your eyes. And it's very warm.
Jillian: Yes, good. But is there a hat as big as my head and my two hands?
Shop-assistant: What! As big as that? Are yor sure?
Jillian: Yes, I'm sure. A very big, warm, grey hat, please.
Shop-assistant: Here it is. But your head isn't as big as that hat.
Jillian: No. I'm sure isn't. But look! My scooter seat is very cold. And the seat is as big as my head and my two hands. My scooter's grey. And look! The hat is as grey as the scooter. Now I have a warm seat. Thank you. Good-bye.

질리언: 저 미안하지만 회색모자가 있어요?
판매원: 예. 아주 산뜻한 회색모자가 몇개 있어요.
질리언: 아, 됐군요! 털로 만든 모자가 있어요?
판매원: 예, 회색털모자예요. 색갈은 손님의 눈빛 같아요. 또 무척 따스하구요.
질리언: 예, 좋군요. 그런데 내 머리와 이 두손만큼 큰 모잔 있어요?
판매원: 뭐라구요? 그렇게 큰거요? 정말이예요?

질리언: 예. 정말이구말구요. 아주 크고 따스한 회색모자를 주세요.

판매원: 자, 받으세요. 그런데 당신의 머리가 그 모자만큼은 크지 않은데.

질리언: 예, 맞아요. 그러나 보세요. 내 오토바이안장이 몹시 차요. 또 내 머리와 이 두손만큼 커요. 오토바이가 회색인데 보세요! 털모자도 회색이니 좋아요. 이제야 안장이 뜨뜻하게 됐군요. 감사해요. 그럼 안녕히.

"Nothing Is Wrong with My Scales."
《내 저울은 정상이다.》

A lady telephoned to her grocer, and said, "I sent my son Cecil to your shop for three pounds of ripe plums, but you only sent two pounds. I know because I weighed them. Your scales must be wrong."

"My scales are not wrong," said the grocer. "I certainly weighed the plums. But have you weighed Cecil?"

한 부인이 식료상점에 전화를 걸어 말했다.《추리 3lb를 사오라고 내 아들 세슬을 보냈는데 2lb밖에 안 보내왔군요. 내가 무게를 달구어서 알아요. 상점저울이 분명 잘못되였어요.》

《우리 저울이 틀리다니요.》 상점주인이 말했다.《제가 정확하게 달구었는데요. 참 세슬의 몸무게를 달궈보셨는지요?》

Brevity is the soul of wit.
간결성은 기지의 정수.(말은 간결성이 생명)
(from a Tragedy "Hamlet" 2. 2. 90 by William Shakespeare)

The Clever Boy
령리한 소년

A boy went into a shop, and said to the shopkeeper. “I want a sixpenny loaf of bread, please.”

The shopkeeper gave him a loaf of bread. Then the boy said, “This is a very small loaf for six pence. Sixpenny loaves are always bigger than this one.”

“Perhaps you are right,” the shopkeeper said. “But now you won’t have so much to carry home.” He laughed, and held out his hand for the money.

“That’s quite true,” the boy replied. He gave the shopkeeper fivepence, and went to the door:

“Hey stop!” the man shouted. “This isn’t enough money.”

“Perhaps you are right,” the boy said, “But now you won’t have so much to count.”

한 애가 상점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말했다.《6d어치 빵을 좀 줘요.》

상점주인은 빵 한덩이를 내주었다. 그러자 소년이 말했다. 《6d어치치고는 지내 작아요. 6d짜리 빵덩이는 이보다 더 커요.》

《네 말이 물론 옳다.》 주인이 말했다.《한데 너무 많아서 집에 가져가지 못할게다.》 그는 웃으며 손을 내밀어 돈을 받으려하였다.

《참 옳은 말이예요.》하고 말한 애는 5d를 내밀고는 문가로 향하였다.

《얘, 게 섯거라!》 주인이 소려쳤다. 《돈이 채 안돼.》

《그 말이 물론 옳아요.》 소년이 말했다.《한데 너무 많아서 셀수 없을거예요.》

※ d=penny(영국의 화폐단위)의 략어

An Old Man and a Fish
늙은이와 물고기

One day an old man went into a fish shop to buy a fish for his dinner. He picked up a fish. After examing it carefully, he held it up to his nose and smelled it.

"Hey!" cried the shopkeeper, "Why are you smelling the fish? Do you think it has gone bad?"

"I wasn't smelling the fish." replied the old man, adding that he had only been talking to it.

"Talking to it! It's foolish of you to talk to a fish." said the owner. "But what on earth did you say to it?"

"I asked him if there was any news from the sea. That's all."

"Well, what did the fish say to you?"

"He said he doesn't know the latest news, because he hadn't been to the sea for more than three weeks."

어느날 한 늙은이가 저녁에 먹을 물고기를 사러 물고기상점으로 들어갔다. 그는 물고기 한마리를 집어들어 찬찬히 훑어보더니 코에 대고 냄새를 맡는것이였다.

《여보시오. 냄샌 왜 맡는거요? 물이 낡았을가 봐서요?》 상점주인이 물었다.

《냄새를 맡아보는게 아니요.》 늙은이는 물고기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을뿐이라고 덧붙였다.

《물고기하구 말하다니! 별 싱거운 사람 다 있군. 한데 뭐라구 말했다는거요?》

《바다에서 무슨 새 소식이 없나 물었지요. 그게 다요.》

《그래 그 물고기가 뭐라구 합디까?》

《요즈음 소식은 모르겠다더군요. 바다에 나가본지 석주일이 넘었다나요.》

"I Don't Want, Either."
《나도 필요없어요.》

One day Mrs. Jones went shopping. When her husband came home in the evening, she began to tell him about a beautiful cotton dress. "I saw it in a shop this morning," she said, "and…"

"And you want to buy it," said her husband. "How much does it cost?"

"Fifteen pounds."

"Fifteen pounds for a cotton dress? That is too much!"

But every evening, when Mr. Jones came back from work, his wife continued to speak only about the dress, and at last, after a week, he said, "Oh, buy the dress! Here is the money!" She was very happy.

But the next evening, when Mr. Jones came home and asked, "Have you got the famous dress?" she said, "No."

"Why not?" he asked.

"Well, it was still in the window of the shop after a week, so I thought, 'Nobody else wants this dress, so I don't want it either.'"

어느날 죤즈부인은 물건사러 나갔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는 아름다운 면옷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오늘 아침 상점안에서 봤어요. 그런데…》

《그런데 사고싶단 말이겠구려.》 남편이 말했다. 《얼마요?》

《15£예요.》

《면옷 한벌에 15£란 말이요? 너무 비싸구만!》

그러나 매일 저녁 죤즈씨가 일을 끝내고 돌아오면 안해가 그냥 그 옷에 대해 외웠다. 마침내 한주일후에 남편이 말했다. 《됐소. 그 옷을 사구려! 자, 돈이요!》 안해는 무던히도 기뻐하였다.

그런데 이튿날 저녁 죤즈가 집에 돌아와 《그 유명한 옷을 샀소?》하고 묻자 안해는 대답했다. 《안요.》

《왜?》

《그건요. 한주일이나 지난데두 그냥 상점진렬대에 걸려있겠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 옷은 나말고는 누구도 바라지 않으니 나도 필요없어.> 하구요.》

A New Telephone Number
새 전화번호

Mr. Andrews had a new telephone number. Before he got it, it was the number of a shop. The shop now had a new number, but a lot of women did not know this, so they still telephoned the old one.

At first, Mr. and Mrs. Andrews always said, “We are sorry, you have the wrong number. The shop has a new one now.” But women still continued to telephone them to ask for things, so after some time, Mr. and Mrs. Andrews began to answer them like this: “Good morning, madam. What do you want us to send you today?”

They thought, “Perhaps they will stop telephoning to us when they don’t get their things.” But this did not help Mr. and Mrs. Andrews, because now women began to telephone them more and more, and to say angrily. “Where are my things? They have not come yet! Why haven’t you sent them yet?”

앤드류즈씨는 새 전화번호를 받았다. 그 전화번호는 그전에 어느 한 상점이 리용하던것이였다. 이제는 그 상점이 새 번호를 받았지만 많은 녀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낡은 번호를 돌려 전화를 걸군 하였다.

처음에 앤드류즈부부는 늘 이렇게 말하군 하였다. 《미안합니다. 전화를 잘못 거셨습니다. 그 상점은 새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녀인들이 그냥 전화를 걸어 물건을 요구하군 하여 얼마후에 앤드류즈부부는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하였다. 《안녕하십니까, 부인? 오늘은 당신에게 무엇을 보내드릴가요?》

그들은 생각했다. 《아마 물건을 받지 못하면 다시는 전화걸려하지 않겠지.》 그러나 이것은 앤드류즈부부를 도와주지 못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이쯤 되자 녀인들이 점점 더 전화를 걸어오며 화가나서 들이대군 하였다.《내 물건들이 어데 있어요?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어요! 어째서 아직도 보내지 않고있어요?》

> The custom varies according to the time and the place.
> **풍습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What She Wanted
그 녀자가 바란것

One day a lady walked into a hat shop. The shopkeeper smiled and said, "Good afternoon, madam."

"Good afternoon," the lady answered. "There is a green hat with red flowers and blue leaves on it in your window. Will you please take it out of there."

"Yes, madam," the shopkeeper said. "I will be very pleased to do that for you." Usually ladies looked at a lot of hats before they chose one, and the shopkeeper got very tired. "Good," he thought, "I will sell this hat very quickly and it has been in my window for a very long time."

"Do you want it in a box, madam," he asked, "or will you wear it?"

"Oh, I don't want it," she answered. "I only wanted you to take it out of your window. I pass your shop every day, and I hate to see the ugly thing there!"

어느날 한 부인이 모자상점에 들어왔다. 상점주인은 미소를 보내며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부인.》

《안녕하세요?》 부인이 대답했다. 《진렬대안에 빨간꽃과 파란

잎사귀를 올려놓은 록색모자가 있군요. 그안에서 꺼내주시겠어요?》

《그러지요, 부인.》 상점주인이 말했다. 《부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녀인들이란 숱한 모자를 보면서 그중에서 하나를 골랐으므로 상점주인은 퍼그나 지쳤다. 그는 생각했다. (이 모자를 날래 팔아버릴테야. 아닌게아니라 우리 진렬장안에 정말 지루하겐 걸려있었지.)

《통에 넣어드릴가요, 부인?》 그가 물었다. 《아니면 쓰시겠는지요?》

《아니, 필요없어요.》 부인이 대답했다. 《그저 진렬장안에서 그걸 꺼내길 바랬을뿐이예요. 매일 이 앞을 지나군 하는데 그 흉칙한 걸 보기가 진저리가 나요!》

"How Clever!"
《얼마나 교묘한가!》

Nasreddin wanted to buy some new clothes, so he went to a shop. First he asked for some trousers and put them on, but then he took them off and gave them back to the shopkeeper and said, "No, give me a coat instead of these."

The man gave him a coat, and said, "This one costs the same as the trousers." Nasreddin took the coat and walked out of the shop with it. The shopkeeper ran after him and said, "You have not paid for that coat!"

"But I gave you the trousers for the coat," said Nasreddin. "They cost the same as the coat, didn't they?"

"Yes," said the shopkeeper, "But you didn't pay for the trousers either!"

"Of course I didn't!" answered Nasreddin. "I did not take them. I am not stupid! Nobody give things back and then pays for them!"

내스레딘은 새옷을 몇벌 사고싶어 한 상점으로 갔다. 먼저 그는 바지를 요구하고는 입어보더니 도로 벗어 상점주인에게 돌려주고나

서 말했다. 《안 사겠소. 이것대신에 웃옷이나 한벌 주시오.》

주인은 웃옷을 내주고는 말했다. 《이건 바지와 가격이 꼭 갈습니다.》 내스레딘은 웃옷을 받아들고는 그것을 가지고 상점문을 나섰다. 주인이 뒤쫓아가 말했다. 《그 웃옷값을 물지 않았소!》

《그것대신에 바지를 주지 않았소.》 내스레딘이 말했다. 《바지가 웃옷하구 값이 꼭 갈지요?》

《옳소.》 주인이 말했다. 《한데 당신은 그 바지값도 물지 않았단말이요!》

《물지 않다마다!》 내스레딘이 대답했다. 《그걸 가지지 않았으니까. 난 머저리가 아니란 말이요. 물건을 도로 주고 그 값을 치르는 사람이 어디 있소!》

14. Theatre and Cinema
극장과 영화관

To Be on the Safe Side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In a cinema during a performance one of the audience got up, made his way along the row of seats and went out into the lavatory. A few minutes later he returned and asked the man sitting at the head of the rows. "Excuse me, was it your foot I stepped on when I was going out a moment ago?"

"Yes, but it doesn't really matter, it didn't hurt at all."

"Oh, no, it isn't that. I only wanted to make sure that this is my row."

영화관에서 상연도중에 한사람이 일어서서 자기 렬을 따라 나가더니 위생실에 들어갔다. 몇분후 그는 돌아와서 렬의 첫머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미안하지만 몇분전에 나가면서 제가 밟았던게 당신의 발이 아닙니까?》

《옳습니다.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전혀 아프지 않았는걸요.》

《아, 아닙니다. 그래서가 아닙니다. 제가 앉은 렬이 맞는가를 확인하고싶었을뿐입니다.》

Wife's bright smile is the driving force to make family happy.
안해의 밝은 미소는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다.

The Song of Death
죽음의 노래

On a winter evening of 1852, the Paris Opera House was full of the richest and most noble people in France. They were there to see Halevy's wonderful new opera "Charles VI." They especially wanted to see the celebrated opera singer Maffiani sing the main song or aria in act three.

They were not disappointed. Maffiani's voice was in good form as he reached his highest notes while singing the most dramatic words of the song, "Oh, Good, smash him." At the same time, to everyone's horror, a body fell from the ceiling just at the place where Maffiani had been looking, while singing these terrible words. It was a stage worker who had been looking through a ceiling window.

On the second night of the opera Maffiani was quite nervous, but he was sure the death had been an accident. This time while singing, "Smash him," he just looked at an empty space in front of a door. At the same moment the door opened. An elderly gentleman came in, and seeing Maffiani stare at him, immediately fell down and died of a heart attack!

At first Maffiani refused to go on stage the third night. All Paris was talking about the aria and wondered what would happen the next evening. Finally Halevy, the composer and officials of the Opera House persuaded poor Maffiani to sing. This time he said he would just look at the floor so nobody could possibly get hurt.

Soon, the moment everyone was waiting for came. When Maffiani was singing "Smash him," a nervous musician in front of him hit a wrong note. Without thinking, Maffiani looked at him. The poor musician suddenly threw up his hand, his face went white and he died there and then! Maffiani thought he would die too. Meanwhile members of the audience were screaming and shouting as they ran to the doors.

Despite its beauty, the opera "Charles VI" was never performed again. Once Napoleon ordered it performed on the occasion of his birthday, but on the evening before the performance some radicals nearly killed him and his wife as he was going to a party. Knowing the unlucky history of the opera, it seemed this murder attempt was a kind of warning to him. He ordered the performance of "Charles VI" to be cancelled.

1852년 어느 겨울날 저녁 빠리가극극장은 프랑스에서 제일 부유하고 제일 고상하다는 사람들로 만원을 이루었다. 다들 할레비가 새로 훌륭하게 창작한 가극 《챨즈 6세》를 보려고 거기에 모여들었던것이다. 그들은 인기있는 가수 마피아니가 3막에서 나오는 기본노래인 아리아를 부르는것을 특별히 보고싶어하였다. 그들은 결코 헛되이 기다리지 않았다. 마피아니는 노래의 가장 결정적인 대목인 《오, 신이여. 그를 쳐죽여주옵소서.》를 부를 때 목소리를 최대로 뽑아올렸으며 그것은 완전히 훌륭한것이였다. 이 무시무시한 가사를 부르는 찰나에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며 천정에서 무엇인가 별안간 《쾅》하고 떨어져내렸는데 다름아닌 마피아니가 눈길을 보내고 있던 바로 그곳에서였다. 그것은 무대천정에 난 창문을 통해 무대

를 살피고있던 무대로동자였다.

가극이 두번째로 상연되는 날 밤 마피아니는 몹시 께름하였지만 그날 저녁에 사람이 죽은것은 우연적인것이였다고 믿어마지 않았다. 이번에 그는 《그를 쳐죽여주옵소서》하는 대목을 부르면서 출입문 앞의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 순간에 출입문이 열리였다. 중년의 신사 한사람이 문으로 들어오다가 마피아니가 자기를 바라보고있는것을 알고는 그 자리에 쾅 하고 넘어져서는 심장발작으로 죽었다.

세번째 날 밤 마피아니는 처음엔 무대에 출연하기를 거절하였다. 온 빠리가 그 아리아에 대한 이야기로 끓고있었고 다음날 저녁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가 하고 다들 궁금해하고있었던것이다. 결국 가극작곡가 할레비와 극장일군들이 가엾은 마피아니를 설복하여 출연하도록 하였다. 그는 이번에는 누구도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바닥을 내려다보기만 하겠다고 말했다. 모두가 기다리는 그 순간은 빨리도 왔다. 마피아니가 《그를 쳐죽여주옵소서》하는 그 대목을 부를 때 그의 앞에 있던 한 연주가가 심사가 불안한지 틀린 음을 연주하였다. 마피아니는 별생각없이 그를 바라보았는데 불행한 연주가는 느닷없이 두눈을 우로 번쩍 쳐들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그 자리에서 그만 죽고마는것이 아닌가! 마피아니는 저 사람도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한편 관객들은 출입문으로 달아나며 째지는듯한 고함을 질렀다.

가극 《챨즈 6세》는 그 절묘함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상연되지 못하였다. 한번은 나뽈레옹이 자기 생일을 계기로 그 가극을 상연하도록 하였는데 가극이 상연되기 전날 저녁에 일부 급진주의자들이 나뽈레옹이 연회에 가려고 하는 때에 그와 그의 안해를 하마트면 사살할번 하였다. 그 가극의 불행스러운 력사에 대하여 알고보니 나뽈레옹에게 이 살인기도가 일종의 경고로 여겨진 모양이였다. 그는 《챨즈 6세》의 상연을 취소하도록 명령하였다.

> Music is the king of inarticulate unfathomable speech, which leads us to the edge of the infinite, and impels us for a moment to gaze into it.

음악이란 언어로써는 표현할수 없는 심오한 언어의 왕으로서 무한한 공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며 어쩔수없이 잠시 그속을 들여다보게 한다.
(Thomas Carlyle, 1795-1881, 스코틀런드태생의 영국의 사상가, 평론가, 력사가)

Music for a Dead Man
죽은 사람을 위한 음악

It was a very stormy night in 1880 in the city of Riga on the Baltic Sea, and a group of traveling musicians had just arrived to give a concert in the city. The conductor of the orchestra was a little worried about the weather, so he said to the manager of the concert hall, “Look, the weather’s terrible. It’s been raining for six hours, and it doesn’t look as if it’s going to stop. The concert hall is a long way from here, so I’m sure no one will come out in weather like this just to listen to us. Why don’t you cancel the concert, then we’ll be able to catch the night boat back to Helsinki.”

When the musicians arrived at the concert hall, they found it completely empty, except for one old man. He sat there, wrapped up in an overcoat and scarf, quietly smiling to himself.

“There’s one man here.” said the manager. “You’ll have to give the concert.” So the musicians began to play, and the old man sat quite still, listening to the music. After the first two pieces of music, one of the players said, “He’s smiling. He must be enjoying our music.”

“Yes,” replied one of the other musicians, “but he looks so lonely, the poor old man.” So the musicians, feeling very sorry for the old man, played their music enthusiastically, just for him. They played and played until very late, and in doing so, missed

the boat to Helsinki.

When the concert finished the musicians put their instruments away, but the old man didn't get up to leave. One of the musicians, thinking he was asleep, went up to him.

"Excuse me," he said, "the concert's over. It's time to go home." The old man didn't reply.

"Hey, wake up," shouted the musician, "the concert finished ten minutes ago!" The old man didn't move. He was dead. They had given a three hour concert for a dead man!

But that concert for the dead man saved their lives, because the night boat to Helsinki sank in the storm and everybody on board was lost.

1880년 어느날 밤 발뜨해의 리가시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고있었는데 한무리의 방랑악사들이 연주회를 열려고 금방 도시에 도착하였다. 관현악단의 지휘자는 날씨에 대해 불안해하며 극장경영자에게 말하였다. 《보오. 날씨가 스산하구만. 6시간동안이나 비가 오고있는데 멎을것 같지 않소. 극장이 여기서 먼곳에 있는데 이런 날씨에 우리 연주회를 보러 올 사람이나 있겠소. 왜 연주회를 취소하지 않소? 그럼 우린 헬싱키로 돌아가는 밤배를 탈수 있겠는데.》

《좋습니다.》 지배인이 말했다. 《한사람도 오지 않거든 그때 취소하지요. 그럼 헬싱키로 돌아가는 배를 탈수 있습니다.》

악사들이 극장에 당도하니 객석은 텅 비여있는데 늙은이 한사람만이 있을뿐이였다. 코트와 목도리로 감싸고 앉은 로인은 저혼자 조용히 미소를 짓고있었다.《한사람은 와있구만.》경영자가 하는 말이였다.《연주회는 해야 할가 보군요.》 그래서 악사들은 연주를 시작하였고 늙은이는 까딱 움직이지 않고 앉아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첫 두곡이 끝나자 한 연주가가 말했다. 《저 사람이 웃고있구만. 분명 우리 음악에 심취되였소.》

《그런것 같아.》 다른 악사가 말했다. 《한데 지내 쓸쓸해보이는군. 참 불쌍한 늙은이야!》 그래서 악사들은 늙은이에 대한 동정심이 북받쳐 바로 그 한사람을 위해 정열적으로 악기들을 연주하였다. 연주회가 퍼그나 늦어서야 끝나다보니 그들은 헬싱키로 돌아가

는 배를 놓치였다.

연주를 끝내고 악사들이 악기들을 내려놓았는데 늙은이는 일어나 떠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한 악사가 그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로 다가갔다.

《미안합니다만 공연이 끝났습니다. 이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지만 늙은이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여보시오. 깨여나십시오.》 악사가 소리쳤다. 《연주회가 10분전에 끝났습니다!》 늙은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죽었던것이다. 결국 그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 연주를 3시간동안이나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앉혀놓고 한 그날의 연주는 악사들의 목숨을 모두 구원하였으니 헬싱키로 돌아가던 밤배가 폭풍우속에 가라앉아 배우에 탔던 사람들모두가 죽었던것이다.

To love and to be loved is the greatest happiness on earth.

사랑하고 사랑받는것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다.

A Private Conversation
비밀대화

Last week I went to the theatre. I had a very good seat. The play was very interesting. I did not enjoy it. A young man and woman were sitting behind me. They were talking loudly. I got very angry. I could not hear the actors. I turned round. I looked at the man and the woman angrily. They did not pay any attention. In the end, I could not bear it. I turned round again. “I can’t hear a word!” I said angrily.

“It’s none of your business,” the young man said rudely. “This is a private conversation!”

지난 주에 나는 극장에 갔댔다. 아주 좋은 좌석에 앉았다. 연극은 퍽 재미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내뒤에는 한

젊은이와 녀자가 앉아있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하고있었다. 나는 무척 화가 났다. 배우들의 목소리를 들을수가 없었던것이다. 나는 등을 뒤로 돌려 성이 나서 쏘아보았다. 그들은 개의치 않아했다. 끝내 참을수가 없어 나는 다시 돌아섰다. 《이거야 어디 말을 들을수가 있나!》 나는 밸이 나서 소리쳤다.

《당신이 상관할바가 아니요.》 젊은 녀석이 마뜩잖게 말했다. 《이건 비밀대화란 말이요!》

-Man sees far, woman sees deep.
남자는 멀리 내다보고 녀자는 깊이 들여다본다.
-Today never comes.
오늘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
-Lost time is never found again.
잃어진 시간은 다시 찾지 못한다.
-Today must borrow nothing of tomorrow.
오늘은 래일에서 아무것도 빌리지 말아야 한다.
-One today is worth two tomorrow.
오늘의 하루는 래일의 이틀.

15. Crime and Justice
범죄와 재판

The Clever Judge
현명한 재판관

One day a farmer and a traveler came to see a judge. They had a pretty white horse with them.

The traveler said to the judge. “This is my horse. I was coming to the town riding on my horse. I saw this farmer on the road. He was tired, so I let him with me on my horse. Now he wants my horse.”

Then the farmer said to the Judge, “This is my horse. This horse works on my farm. I will not let the traveler take it away. Please, good judge, help me!”

The judge said, “Put the horse in my garden. Come back here in the morning. We will see.”

Next morning the farmer came back to see the judge. The horse in the garden did not look at the farmer. Then the traveler came. He did not look at the horse in the garden. But the horse saw him. It called, “Hee, hee, heeee…” and it waved its head. The traveler looked at the horse, waved his hand to it, and went into the judge’s house.

The judge said to the traveler, “This is your horse. Take it and go on your way.”

“Thank you good judge,” said the traveler. “But how did you know this was my horse?”

The judge said, “This morning I saw you and the farmer coming to my house. The horse did not look at him. Then you came and it looked at you. It called to you and waved its head. So I know this is your horse. Take it and go on your way.”

어느날 한 농군과 나그네가 재판관을 찾아왔다. 그들은 멋쟁이 백마 한필을 끌고왔다.

나그네가 재판관에게 말했다. 《이 말은 내것입니다. 그걸 타고 여기로 오다 길가에서 이 농군을 만났더랬습니다. 힘들어하길래 내 말우에 함께 태웠더랬지요. 지금 그가 내 말을 탐냅니다.》

그다음 농군이 재판관에게 말했다. 《이 말은 내것이올시다. 나는 이 말을 가지고 밭에서 일합니다. 이 사람이 내 말을 가져가게 하지 않겠소이다. 제발 훌륭한 재판관님, 도와주사이다.》

재판관이 말했다. 《말을 우리 집 뜰안에 두고 가시오. 그리고 래일 아침에 오시오. 그때 봅시다.》

다음날 아침 농군이 재판관에게 왔다. 그러나 말은 농군을 보지 않았다. 그다음 나그네가 왔다. 그는 뜰안에 있는 말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말은 나그네를 보고 《호으응, 호으응》하고 소리내며 대가

리를 주억거렸다. 나그네는 말을 보고 손을 흔들며 재판관의 집으로 들어갔다.

재판관은 나그네에게 말했다. 《이 말은 당신의거요. 어서 말을 가지고 가시오.》

《감사합니다. 훌륭한 재판관님.》 나그네가 말했다. 《그런데 이 말이 제거라는걸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오늘 아침 난 당신과 농군이 우리 집에 오는것을 지켜보았소. 농군이 올 때 그를 보지 않던 말이 당신이 오자 소리를 내며 대가리를 주억거렸소. 그래서 난 이 말이 당신거라는것을 알았소. 자, 이젠 말을 가지고 어서 가보오.》 재판관이 말했다.

A Strange Experience
기이한 체험

Stella: I had a strange experience this afternoon.
Ingrid: What happened?
Stella: Well, I was walking across the park when a man stopped me. First he asked me what time it was, quite politely. Then he asked if I was a visitor here. I told him I lived here. Then he told me to hand over my handbag.
Ingrid: Goodness! What did you do?
Stella: Well, I just told him to go away. Then I shouted for help and he ran for his life. I think he was more frightened than I was.

스텔라: 오늘 오후 별난 일을 당했댔어.
잉그리드: 무슨 일이 생겼댔니?
스텔라: 응, 내가 공원을 가로질러 걷고있는데 웬 사람이 날 멈춰세우지 않겠니. 처음엔 점잖게 몇신가구 묻더구나. 그리구선 여기 처음 오지 않는가고 물었어. 그래서 여기서 산다구 대답했어. 그런데 나더러 손가방을 내놓으라는거야.
잉그리드: 하느님 맙시사. 그래 어떻게 했니?

스텔라: 이랬지. 당장 사라지라구 했어. 그리구는 《사람살려요》하구 소리쳤는데 그놈이 날 살려라 달아나지 않겠어. 나보다 더 놀란것 같애.

-Confine your tongue, lest it confine you.
허가 당신을 가두지 않게 하려거든 당신의 혀를 가두라.
-Speech is the picture of the mind.
말에는 마음이 비친다.

Count to Ten
열까지 세라

When Tom Jones lost his temper, he was like a typhoon.

"Tom," said his girl friend Mary. "Tom, may I give you some advice?"

"Of course, Mary, of course."

"When you lose your temper, you must count to ten. Can you do that?"

"Of course, I can. I will count to ten."

Fifteen minutes later the sounds of fighting and crying came into the house. Mary ran outside. To her surprise, a man lay on the street and Tom was standing over him. Mary looked angrily at Tom.

"He called me a fool and I lost my temper," said Tom.

"Didn't you count to ten?"

"Yes, I counted to ten," said Tom. "But he never got up."

톰 죤즈가 성을 낼 때면 꼭 태풍이 몰아치는것 같았다.

《톰, 충고를 줄가요?》 그의 녀동무 매리가 말했다.

《여부 있겠소, 매리. 어서 주오.》

《성이 나면 말이예요. 열까지 셈을 세야 해요.》

15분후에 치고받는 소리와 울부짖음소리가 집안에 들려왔다. 매

리가 밖으로 달려나왔다. 한사람이 거리에 쓰러져있고 톰이 그우에 서있었다. 매리는 발끈해서 톰을 바라보았다.

《그가 나더러 바보라고 해서 성났댔어.》 톰이 말했다.

《열까지 세지 않았어요?》

《세였소.》 톰이 말했다. 《한데도 일어나지 못하더군.》

-Everybody is equal before the law.
법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s.
돈에 대한 욕심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A Talented Police
수완있는 경찰

The police in the big city were looking for a thief. At last they caught him. But while they were taking photographs of him from the front, from the left, from the right, with a hat, without a hat — he suddenly attacked the policemen and ran off. They tried to catch him, but he got away.

Then a week later the telephone rang in the police-station, and somebody said, “You are looking for Bill Cross, aren’t you?”

“Yes.”

“Well, he left here for Waterbridge an hour ago.”

Waterbridge was a small town about 100 miles from the city. The city police at once sent four different photographs of the thief to the police in Waterbridge.

Less than twelve hours later they got a telephone call from the police in Waterbridge. “We have caught three of the men,” they said happily, “and we will catch the fourth this evening, we think.”

대도시의 경찰이 도적을 추적하고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그자를 체포하였다. 그런데 한창 범인의 모습을 앞에서도 찍고 량쪽 측면에서도 찍고 모자를 씌워놓고도 찍고 벗겨놓고도 찍고 하는데 갑자기 그자가 경찰을 역습하고 달아빼였다. 경찰은 그자를 잡으려고 시도하였지만 종적을 감추고말았다.

그러다가 한주일이 지나서 경찰서의 전화종이 울리더니 웬 사람이 말하는것이였다. 《당신들은 빌 크로스를 찾고있지요?》

《그렇습니다.》

《저, 그자가 여기서 한시간전에 웟터브리지로 떠났습니다.》

웟터브리지는 도시에서 100mi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자그마한 군이였다. 시경찰에서는 즉시 도적의 모색이 찍힌 넉장의 서로 다른 사진을 웟터브리지경찰서에 발송하였다. 열두시간도 채 못되여서 그들은 웟터브리지경찰서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다. 《세놈은 이미 잡았습니다.》 그들은 흡족해서 말했다. 《그리구 네번째 놈은 오늘 저녁이면 체포할것 같습니다.》

Her Unbroken Record
깨여지지 않은 기록

Mrs. Jones was over eighty, but she still drove her old car like a woman half her age. She loved driving very fast, and boasted of the fact that she had never, in her thirty-five years of driving, been punished for a driving offence.

Then one day she nearly lost her record. A police car followed her, and the policeman in it saw her pass a red light without stopping.

When Mrs. Jones came before the judge, he looked at her severely and said that she was too old to drive a car, and that the reason why she had not stopped at the red light was most probably that her eyes had become weak with old age, so that she had simply not seen it.

When the judge had finished what he was saying, Mrs. Jones

opened the big handbag she was carrying and took out her sewing. Without saying a word, she chose a needle with a very small eye, and threaded it at her first attempt.

When she had successfully done this, she took the thread out of the needle again and handed both the needle and the thread to the judge, saying, “Now it is your turn. I suppose you drive a car, and that you have no doubts about your own eyesight.”

The judge took the needle and tried to thread it. After half a dozen attempts, he had still not succeeded. The case against Mrs. Jones was dismissed, and her record remained unbroken.

죤즈부인은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 절반나이의 녀인마냥 자기 차를 몰군 하였다. 그는 차를 쾌속으로 몰기를 좋아하였는데 35년간 차를 몰아오면서 운전위반으로 처벌받은적이 한번도 없다는 사실을 늘 자랑하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자기의 기록을 잃어버릴번 하였다. 경찰차가 한대 그를 따라오댔는데 그안에 탄 경찰이 죤즈부인이 붉은 신호등이 켜져있는데도 차를 세우지 않고 그냥 통과해가는것을 보았다.

죤즈부인이 재판관앞에 나섰을 때 재판관은 랭혹한 눈길로 그를 뜯어보더니 차를 몰기에는 지나치게 나이가 많다고 하더니만 그가 붉은 신호등앞에서 멈춰서지 않은것은 로화로 하여 그의 시력이 약해져서 단순히 그가 신호등을 보지 못했기때문일것이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재판관이 할 말을 끝내자 죤즈부인은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커다란 손가방을 열더니 바느실을 꺼내는것이였다. 한마디의 말도 없이 녀인은 귀가 아주 작은 바늘을 하나 집어들고는 단 한번에 실을 꿰는것이였다.

솜씨있게 바늘을 꿰고나서 그는 다시 바늘에서 실을 뽑고는 바늘과 실을 재판관에게 둘 다 내밀며 말했다. 《자, 이번엔 거기 차례니다. 내 생각엔 당신이 차를 모는것 같은데 그런즉 자신의 시력에 대해 아무런 의심도 가지지 않을것입니다.》

재판관은 바늘을 집어들고 실을 꿰려고 하였다. 여섯번을 시도해봤으나 번마다 실패하였다. 죤즈부인에 대한 재판은 취소되였으며 그의 기록은 여전히 깨여지지 않은채로 남았다.

The Worst Bank Robbers
가장 불운한 은행강도들

In August 1975 three men were on their way in to rob the Royal Bank of Scotland at Rothesay, when they got stuck in the revolving doors. They had to be helped free by the staff and, after thanking everyone, sheepishly left the building.

A few minutes later they returned and announced their intention of robbing the bank, but none of the staff believed them. When, at first, they demanded ￡5 000, the head cashier laughed at them, convinced that it was a practical joke.

Considerably disheartened by this, the gang leader reduced his demand first to ￡500 then to ￡50 and ultimately to 50 pence. By this stage the cashier could barely control herself for laughter.

Then one of the men jumped over the counter and fell awkwardly on the floor, clutching at his ankle. The other two made their getaway, but got trapped in the revolving doors for a second time, desperately rushing the wrong way.

1975년 8월에 세 사나이가 로디쎄이에 있는 스코틀런드의 로이얼은행을 털러 들어가던 길에 회전문에 끼였다.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야 풀려난 그들은 모두에게 사의를 표하고나서 황황히 은행을 떠났다.

몇분후에 되돌아온 그들은 은행을 털러 온 목적을 알리였으나 어느 직원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처음에 그들이 5 000￡를 요구하자 출납책임자는 진짜 롱담이라고 믿고서 그들을 보고 웃어댔다.

이렇게 되자 눈에 띄일 정도로 자신심을 잃은 깽두목은 처음

요구하던 액수를 500£로, 그다음에는 50£로 줄이였으며 맨 나중에는 50d로까지 줄이였다. 이런 판에 이르자 출납원은 자기를 다잡지 못하고 깔깔 웃었다.

그러자 한 사나이가 매대를 훌쩍 뛰여넘었는데 바닥에 서투르게 넘어지며 발목을 접질렀다. 다른 두 사나이는 달아났으나 필사적으로 문을 반대방향으로 밀다가 두번째로 회전문에 잡히게 되였다.

The Least Successful Bank Robber
가장 성공적이지 못한 은행강도

Not wishing to attract attention to himself, a bank robber in 1969 at Portland, Oregon, wrote all his instructions on a piece of paper rather than shout.

"This is a hold-up and I've got a gun," he wrote and then held the paper up for the cashier to read.

The bemused bank official waited while he wrote out, "Put all the money in a paper bag."

This message was pushed through the grille. The cashier read it and then wrote on the bottom, "I don't have a paper bag." and passed it back.

The robber fled.

1969년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한 은행강도는 자기한테로 주의가 쏠리는것을 피할 속심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고 종이장에다 자기의 말을 매모조리 적었다.

《이것은 강탈이며 나에게는 총이 있다.》하고 쓰고나서 그는 그 종이장을 쳐들어 출납원이 보도록 하였다.

얼이 빠진 은행일군은 그가 《종이가방안에 돈을 모조리 넣으라.》하고 쓰는 동안 기다렸다.

은행출납구의 살창문으로 이 쪽지가 들어왔다. 출납원은 그것을 읽고나서 그 밑에다가 《나에겐 종이가방이 없음.》하고 쓰고나서 도로 내밀었다.

강도는 달아났다.

The Least Alert Burglar
가장 조심성없는 밤도적

A villain broke into a house in 1964. He began to feel decidedly peckish and so went in search of the icebox. There he found his favourite cheese which it would have been a shame not to try. He then found some biscuits and three bottles of champagne.

After a while he began to feel sleepy and decided that he would lie down and digest his meal in comfort. He was arrested next morning fast asleep upstairs in the spare bedroom.

1964년 한 악한이 어느 한 집으로 침입하였다. 그는 심한 시장기를 느끼게 되자 랭동기를 뒤지였다. 거기에는 그가 좋아하는 치즈가 있었는데 먹지 않고는 참으로 아수할것 같았다. 그다음엔 과자 몇개와 샴팡주 세병이 있었다.

잠시후에 그는 졸음이 와서 편안히 누워서 먹은것을 소화시킬 작정을 하였다. 이튿날 아침 그는 웃층에 있는 손님용침실에서 굳잠에 든채로 체포되였다.

To hunt a wild boar, you lose a pig in the pen.
메돼지를 사냥하려다 우리안의 돼지 잃는다.

16. Town and Countryside
도시와 농촌

A Peasant, Peas and Sparrows
농군, 완두콩과 참새

A peasant saw an old man he knew planting something on the other side of the river. He asked, “What are you planting now?”

The peasant did not speak for a moment, then said: “Swim over and I’ll tell you.”

The peasant did not like the idea of swimming across the river. But he did want to know what the old man was doing. He swam over. The old man whispered in his ear: “I’m planting peas in my garden.”

“Then why was it necessary for me to swim across the river? If you had shouted, I would have heard quite clearly on that side of the river.”

“Oh, no, I couldn’t do that. The sparrows would have heard me and eaten up my peas.”

한 농군이 풋낯이나 알고있는 늙은이가 강건너쪽에서 무엇인가를 심고있는것을 보았다. 《지금 뭘 심고있는중이우?》하고 물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던 늙은이가 말했다. 《헤염쳐 건너오면 말해주겠네.》

농군은 헤염쳐 강을 건늘 생각은 없었지만 늙은이가 뭘 심고있는지 꼭 알고싶었다. 그래서 할수없이 강을 헤염쳐 건너갔다. 늙은이는 그의 귀에 대고 속살거렸다. 《밭에 완두콩을 심고있는중일세.》

《한데 나더러 강을 건너오라 할것까지야 있수? 소리쳤으면 저쪽에서도 어련히 듣고도 남았을텐데.》

《소리칠수가 없었네. 참새들이 내 말 듣구 완두콩을 다 쪼아먹을라구.》

I AM A LITTLE-BUG
《나는 쓰레기입니다》

(A letter to a newspaper)

Sir, Might I suggest that one solution to the problem of litter on our streets might be to sentence anyone seen dropping litter to one day's unpaid street-cleaning. Alternatively, of course, such people might be made to wear a sign, which reads: I AM A LITTLE-BUG, also for a day. Such solutions may sound mediaeval, but might they not be effective?

Yours faithfully,

(신문에 기고한 편지)

안녕하십니까? 거리들의 오물문제를 풀수 있는 한가지 방도로서 오물을 버리는 사람을 보는 경우 그가 누구든 하루동안 무보수로동으로서 거리청소를 시키는 형벌을 가할것을 제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응당히 하루동안《나는 쓰레기입니다》라고 쓴 간판을 들고다니도록 하는것이 옳을듯싶습니다. 이러한 해결책이 중세기적이라고 여겨질수도 있겠지만 효과적이지 않을가요?

경의를 표하면서.

Everything Except the Weather
날씨를 내놓고는

My old friend, Harrison, had lived in the Mediterranean for many years before he returned to England. He had often dreamed of retiring in England and had planned to settle down in the country. He had no sooner returned than he bought a house and went to live there. Almost immediately he began to complain about the weather, for even though it was still summer, it rained continually and it was often bittlerly cold. After so many years of sunshine, Harrison got a shock. He acted as if he had never lived in

England before. In the end, it was more than he could bear. He had hardly had time to settle down when he sold the house and left the country. The dream he had had for so many years ended there. Harrison had thought of everything except the weather.

나의 오랜 친구 해리슨은 영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지중해에서 많은 세월을 살았다. 그는 자주 영국에 은퇴할 꿈을 꾸군 하였고 농촌에 눌러앉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농촌에서 집 한채 사가지고 살기 시작하였다. 얼마 못가서 그는 날씨를 두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였는데 그럴만도 한것이 여름이 한창인데도 비가 그냥 내리는데다 때때로 지독스레 춥기도 하였던것이다. 해비치는 곳에서 오랜 세월 살아온 그로서는 까무라칠 지경이였다. 그는 영국에서 한번도 살아본적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였다. 나중에는 참을수 없을 지경으로까지 되였다. 눌러앉자마자 그는 집을 팔고 농촌을 떠나고말았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두고 꾸어온 꿈은 거기서 끝나버리고말았다. 해리슨은 날씨를 내놓은 다른 모든것만을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Life on a Desert Island
무인도에서의 생활

Most of us think that life on a desert island is wretched. You either starve to death or live like Robinson Crusoe, waiting for a boat which never comes. Perhaps there is an element of truth in it, but few of us have had the opportunity to find out.

Two men who recently spent five days on a coral island wished they had stayed there longer. They were taking a badly damaged boat from the Virgin Islands to Miami to have it repaired. During the journey, their boat began to sink. They quickly loaded a small rubber dinghy with food, matches and cans of beer and rowed for a few miles across the Caribbean until they arrived at a tinty coral island. There were hardly any trees on the island and there was no water, but this did not prove to be a problem. The men collected rainwater in the rubber

dinghy. As they had brought a spear gun with them, they had plenty to eat. They caught lobster and fish every day, and, as one of them put it "ate like kings."

When a passing tanker rescued them five days later, both men were genuinely sorry that they had to leave.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인도에서의 생활이 비참하다고 생각한다. 오지도 않는 배를 기다리면서 기아에 시달리다 죽지 않으면 로빈슨 크루소우처럼 산다. 그 말속에 요소적으로나마 진실이 깔려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는것을 알아낼 기회를 가져본 사람들이 거의나 없다.

산호섬에서 최근에 5일간을 보낸 두 사람은 거기에 좀더 오래 머물러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있었다. 그들은 혹심하게 파괴된 뽀트를 수리하려고 버진제도로부터 마이아미로 끌고오고있었다. 도중에 뽀트가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작은 고무배에 식량과 성냥, 맥주통졸임들을 싣고 까리브해를 가로질러 몇mi을 노저어 어느 자그마한 산호섬에 가닿았다. 섬에는 나무란 거의나 없었고 물도 없었지만 그것이 문제될것은 없었다. 그들은 작은 고무배안에 비물을 받았다. 수중총을 가지고 갔으므로 먹을것이 많았다. 매일 왕새우와 물고기들을 잡았으며 그중 한사람이 붙인 표현대로 한다면 《왕들처럼 먹》었다. 지나가던 유조선이 닷새후에 그들을 구출하였을 때 두 사람은 섬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는것을 진심으로 유감스러워하였다.

-Don't leave things to chance.
아무 일에서나 행운을 바라지 말라.
-Doing nothing is doing ill.
한가하면 나쁜 일을 한다.
-Laugh off your worries.
근심을 웃음으로 넘기라.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새벽새 벌레 잡는다.

Ⅱ. A Family Life

가 정 생 활

"Laugh is the best medicine."

1. Love and Marriage
사랑과 결혼

“Two Theatre Tickets”
두개의 극장표

“Jill, what are you doing next week?” asked Martin.

“Oh, I’m going out with a young man. He’s taking me to the theatre,” said Jillian.

Martin’s face was angry. “Who is he?”

“Wait a minute,” said Jillian. “On Monday I’m staying at home and looking at the film on the television.”

“Oh, you’re not going out with your young man on Monday? What’s his name?”

“On Tuesday evening I’m going to friend’s house.”

“Is it a girl friend or a boy friend?”

“Martin, It’s Liz, my girl friend.”

“Oh. Then, what are you doing on Wednesday, Jill?”

“I’m going out on Wednesday.”

“With a friend, perhaps?”

“Martin, you are being very silly today. You’re jealous! Listen, I’m going to the cinema with my mother. Then on Thursday I’m going to Alison’s house. She’s having a party.”

“Is he going there with you, Jill?”

“I’ m not sure, Martin. But he’s not coming with me on Firday. I’m going to the swimming pool on Friday evening. No. My big day next week is Saturday.”

“Where is he taking you, Jill? Oh, why is it Saturday?”

“Listen, Martin. On Saturday morning I’m going to the hairdresser’s. On Saturday afternoon I’m shopping with my

mother. Then on Saturday evening this young man is taking me to the theatre."

"But Jill, I have two tickets for us for the theatre on Saturday. Please come with me, Jill. Who is this new young man?"

"Don't be silly, Martin. It's you. You're taking me to the theatre on Saturday evening. Look. There are two new theatre tickets on the car shelf. You aren't very careful. But you are very jealous."

《질, 다음주 뭘하오?》 마틴이 물었다.

《저, 한 총각과 외출하려 해요. 그가 극장에 데려가겠대요.》질리언이 말했다.

마틴의 얼굴에 성난 표정이 실렸다. 《그게 누구요?》

《좀 기다려요. 월요일엔 집에서 TV로 영화를 보겠어요.》

《아하, 월요일에 그 총각과 나가지 않는단 말이지? 그 사람 이름이 뭐요?》

《화요일 저녁에는 동무네 집에 가요.》

《그게 남동무요, 녀동무요?》

《아이, 마틴. 그건 내 동무 리즈예요.》

《아. 그럼 수요일은 뭘할셈이요, 질?》

《수요일엔 외출하려 해요.》

《그 총각하구?》

《마틴, 오늘은 바보처럼 노는군요. 당신은 질투쟁이예요. 들으라요. 어머니하구 영화관에 가요. 그리고 목요일엔 앨리슨의 집에 가요. 그가 연회를 차려요.》

《그 총각도 거기 가오, 질?》

《모르겠어요, 마틴. 그러나 그가 금요일엔 나와 함께 가지 않을거예요. 내가 금요일 저녁에 수영장에 가니까요. 안가요. 다음주에 내가 즐기는 날은 토요일이예요.》

《그가 당신을 어데 데려가오? 아, 왜 하필 토요일이요?》

《이봐요, 마틴. 난 토요일 아침엔 미용원에 가고 오후엔 어머니와 함께 물건 사러 가요. 그리고 저녁엔 그 총각이 날 극장에 데려가요.》

《한데 질, 난 그날 당신과 함께 가려고 극장표 두장을 구해놓았소. 나하구 함께 가자구. 새로 사귄 그 총각이 누구요?》

《마틴, 바보같이 굴지 말라요. 그 총각은 바로 당신이예요. 당신이 날 토요일 저녁에 극장에 데려가겠다구 하지 않았어요. 승용차 당반에 극장표 두장이 있지 않아요. 당신은 정말 찬찬하지 못해요. 그러나 질투심은 꽤 많아요.》

An Excellent Present
더할나위 없는 선물

Jack was a young sailor. He lived in England, but he was often away with his ship.

One summer he came back from a long voyage and found new neigbhours near his mother's house. They had a pretty daughter, and Jack soon loved her very much. He said to her, "My next voyage will begin in a few days' time, Gloria. I love you, and I'll marry you when I come back. I'll think about you all the time, and I'll write to you and send you a present from every port."

Jack's first port was Freetown in Africa, and he sent Gloria a parrot from there. It spoke five languages.

When Jack's ship reached Australia, there was a letter from Gloria. It said. "Thank you for the parrot, Jack. It tasted much better than a chicken."

잭크는 애젊은 선원이였다. 그는 잉글런드에서 살았지만 배를 타고 자주 나가있군 하였다.

어느해 여름 지루한 항행에서 돌아와보니 어머니의 집에 새 이웃이 이사해왔다. 그들한테는 무척 귀여운 딸이 있었는데 곧 잭크는 그 처녀한테 단단히 반하게 되였다. 그는 처녀에게 말했다. 《나의 다음번 항행은 며칠후에 있게 되오, 글로리어. 난 당신을 사랑하오. 그러니 돌아오거든 당신과 결혼하겠소. 언제나 그대만을 생각할

테요. 들리는 항구마다에서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선물을 보내주겠소.》

잭크가 들리게 된 첫 항구는 아프리카의 프리타운이였는데 거기서 그는 글로리어에게 앵무새를 선물로 보내였다. 그 새는 5개 나라 말을 알았다.

잭크의 배가 오스트랄리아에 가닿았을 때 글로리어에게서 편지가 왔다.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져있었다. 《앵무새를 보내주어 고마워요, 잭크. 닭고기보다 훨씬 더 맛있었어요.》

"Never Mind, Mother."
《걱정마세요, 어머니》

Helen's eyes were not very good, so she usually wore glasses. But when she was twenty-four and she began to go out with a young man, she never wore her glasses when she was with him. When he came to the door to take her out, she took her glasses off, and when she came home again and he left, she put them on.

One day her mother said to her, "But Helen, why do you never wear your glasses when you are with Jim? He takes you to beautiful places in his car, but you don't see anything."

"Well, Mother," said Helen, "I look prettier to Jim when I am not wearing my glasses and he looks better to me too!"

헬렌은 눈이 몹시 나빠서 늘 안경을 끼고 다니였다. 그러나 24살이 되여서 한 총각과 함께 나다니기 시작하면서 그와 함께 다닐 때는 안경을 끼지 않았다. 그가 문밖에 찾아와 데리고 나갈 때는 안경을 벗었고 집에 돌아와 그가 간 뒤에는 안경을 도로 끼였다.

어느날 어머니가 헬렌에게 물었다. 《얘, 짐과 함께 다닐 때 왜 안경을 끼지 않는거냐? 그가 너를 태우고 경치 아름다운 곳으로 데

리고 다니지만 너는 아무것도 못 보지 않니.》

《아이참, 어머니.》 헬렌이 대답했다. 《짐한텐 내가 안경을 끼지 않을 때가 더 예뻐보여요. 그리구 나한테도 그가 더 훌륭해보이구요.》

With love's light wings
Did I o'er perch these walls,
For stony limits
Cannoy hold love out.
사랑의 가벼운 날개를 펴고
내 이 장벽우에 올라서지 않았던가
그 어떤 무정한 한계도
사랑을 이겨낼수 없기에.
(William Shakespeare, 1564-1616, 영국의 극작가, 시인)

2. Husband and Wife
남편과 안해

A Word Wives Need from Their Husbands
안해들이 남편들에게서 바라는 말

A man had some work to do in Switzerland, so he said goodbye to his wife at the airport, got into an aeroplane and left. After ten days, his work in Switzerland was finished, so he bought a ticket for his journey back home, and then went to the post-office to send a telegram to his wife. He wrote the telegram, gave it to the clerk and said, “How much will this cost?”

She told him, and he counted his Swiss money. He had not got quite enough. “Take the word ‘love’ off my telegram,” he said, “and then I will have enough money to pay for it.”

“No,” the girl said. She opened her handbag, took the money out of it and said, “For the word ‘love’, I will pay the money. Wives need that word from their husbands.”

한 사람이 스위스에 볼 일이 좀 있어 비행장에서 안해에게 작별인사를 하고는 비행기를 타고 떠났다. 열흘이 지나 스위스에서 할 일이 끝나 그는 귀국할 비행기표를 사고는 안해에게 전보를 치려고 체신소로 갔다. 전보를 쓰고 취급원에게 넘겨주면서 그는 말했다. 《얼마나 물어야 되는가요?》

그 녀자가 알려주자 그는 스위스돈을 꺼내 세여보았다. 돈이 빠듯하였다. 《전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시오.》 그가 말했다. 《그러면 넉넉히 될거요.》

《아니예요.》 그 녀자가 말했다. 그는 손가방을 열고 돈을 꺼내고는 말했다. 《<사랑>이라는 단어에 한해서는 제가 값을 치르겠어요. 안해들이란 남편들한테서 그 말을 바라거든요.》

The Wrong Telephone Number
잘못 걸린 전화번호

Mrs. Jones’s telephone number was 3463, and the number of the cinema in her town was 3464, so people often made a mistake and telephoned her when they wanted the cinema.

One evening the telephone bell rang and Mrs. Jones answered it. A tired man said, “At what time does your last film begin?”

“I am sorry,” said Mrs. Jones, “but you have the wrong number. This is not the cinema.”

“Oh, it began twenty minutes ago?” said the man. “I am sorry about that. Goodbye.”

Mrs. Jones was very surprised, so she told her husband. He laughed and said, "The man's wife wanted to go to the cinema, but he was feeling tired, so he telephoned the cinema. His wife heard him, but she didn't hear you. Now they will stay at home this evening, and the husband will be happy!"

죤즈부인의 전화번호는 3463인데 그가 사는 군의 영화관번호가 3464이다보니 사람들이 종종 삭갈려서 영화를 보고싶을 때는 그의 집으로 전화를 걸기가 일쑤였다.

어느날 저녁 전화종이 울리자 죤즈부인이 전화를 받았다. 피곤이 실린 웬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몇시에 마지막 영화가 시작됩니까?》

《미안하지만,》 죤즈부인이 말했다. 《당신은 전화를 잘못 걸었어요. 여긴 영화관이 아닌데요.》

《아, 20분전에 시작되였다구요?》 사나이가 말했다.《아쉽게 되였는데요. 안녕히 계십시오.》

죤즈부인은 깜짝 놀라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다. 남편은 껄껄 웃더니 말하였다. 《그 사람의 안해가 영화구경을 가고싶어하는데 그는 지금 피곤에 몰리니까 영화관에 전화를 건거요. 안해는 남편의 말을 듣지만 당신의 말이야 못 들을거 아니요. 인젠 그들이 오늘저녁 집에 눌러있게 될거구 남편은 흡족해할게요!》

A Magic Shirt
요술부리는 샤쯔

Dave married, and when his new wife saw the clothes in his cupboard, she said, "Dave, you have only got one good shirt. The others are very old, and they've got holes in them. I'm going to buy you a new one this afternoon."

Dave liked his old shirts, but he loved his wife too, so he said, "All right, Beryl, but please don't throw any of the old ones away."

Dave went to work, and when he came back in the evening, Beryl said to him, “Look, Dave, I’ve bought you a nice shirt. Here it is. Put it on.”

Dave put the shirt on, and then he said, “Look at the sleeves, Beryl. They’re too long.”

“That’s all right,” Beryl answered. “They’ll get shorter when I wash the shirt.”

Then Dave said, “But the neck’s too small.”

“That’s all right,” Beryl answered. “It’ll get bigger when you wear the shirt, Dave.”

데이브가 결혼하자 새로 맞아들인 안해는 벽장안에 들어있는 남편의 옷들을 보고 말했다. 《데이브, 당신한테 좋은 샤쯔가 한벌밖에 안되는군요. 다른것들은 몹시 낡은데다 구멍이 났어요. 오늘 오후에 새 샤쯔 한벌 사드리겠어요.》

데이브는 낡은 옷들이 마음에 들었지만 안해도 사랑하였던지라 이렇게 말했다. 《좋소, 베릴. 하지만 그 낡은것들을 제발 버리진 마오.》

데이브는 일하러 나갔다. 그런데 저녁에 돌아오니 베릴이 말했다. 《보세요, 데이브. 멋있는 샤쯔를 한벌 사왔어요. 자요. 입어보세요.》

데이브는 샤쯔를 입고 말했다. 《소매를 보오, 베릴. 너무 길구만.》

《괜찮아요.》 베릴이 대답했다. 《제가 빨면 줄어들거예요.》

그런데 데이브가 말했다. 《한데 목은 지내 좁구만.》

《괜찮아요. 》 베릴이 대답했다. 《입으면 더 늘어날거예요.》

Love is a tender rose; when properly nourished, it becomes sturdy and enduring.

사랑은 가냘픈 장미이지만 제대로 자양분을 주기만 하면 싱싱 기운이 오르고 언제나 피여있게 된다.

"Where Are You Going This Evening?"
《저녁에 어딜 가려구?》

Mrs. Jones was still cleaning the house when her husband came back from work. She was wearing dirty, old clothes and no stockings. Her hair was not tidy, she had dust on her face, and she looked dirty and tired. Her husband looked at her and said, "Is this what I come home to after a hard day's work?"

Mrs. Jones's neighbour, Mrs. Smith, was there. When she heard Mr. Jones's words, she quickly said goodbye and ran back to her house. Then she washed, brushed and combed her hair carefully, put on her best dress and her prettiest stockings, painted her face, and waited for her husband to come home.

When he arrived, he was hot and tired. He walked slowly into the house, saw his wife and stopped. Then he shouted angrily, "And where are you going this evening?"

죤즈부인이 한창 청소를 하고있는 때에 남편이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그 녀자는 낡은 옷을 입고 양말은 신지 않은채로였는데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에는 먼지가 올라있어 더럽고 지친 모습이였다. 그러한 안해를 보고 죤즈가 말했다. 《하루종일 일하고 돌아오는데 맞아들이는게 이게 다요?》

죤즈부인의 이웃에서 살고있는 스미스부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 죤즈의 말을 듣자 그 녀자는 서둘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세수하고 먼지를 털고 꼼꼼하게 머리를 빗고 제일 좋은 옷과 제일 산뜻한 양말을 신은 다음 화장을 곱게 하고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집에 당도하였을 때 남편은 열이 올라있었고 지친 기색이였다. 그는 터벌터벌 집으로 들어오다가 안해를 보자 우뚝 멈춰섰다. 그러더니 화가 나서 소리질렀다. 《헌데 당신 오늘 저녁 어디루 가려는거요?》

"Mother!"
《어머니!》

Mr. and Mrs. Brown lived in a small house near London with their child. Sometimes Mr. Brown came back from work very late, when his wife and the child were asleep, and then he opened the front door of his house with his key and came in very quietly.

But one night when he was coming home late, he lost his key, so when he reached his house, he rang the bell. Nothing happened. He rang it again. Again nothing happened. Nobody moved inside the house. Mr. Brown knocked at the bedroom window, he spoke to his wife, he shouted, but she did not wake up. At last he stopped and thought for a few seconds. Then he began to speak like a small child. "Mother!" he said, "I want to go to the lavatory!" He spoke quite quietly but at once Mrs. Brown woke up. Then he spoke to her, and she opened the door for him.

브라운부부는 아이와 함께 런던가까이의 작은 집에서 살고있었다. 가끔 브라운씨는 퍽 늦어서야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때가 있었는데 안해와 아이가 잠에 든 때에는 그가 자기 열쇠로 앞문을 열고 조용조용 들어오군 하였다.

그러나 어느날 밤늦게야 돌아오는데 그만 열쇠를 잃어버리다나니 집에 당도했을 때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 반응도 없었다. 다시한번 눌렀다.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브라운씨가 침실창문을 두드리고 안해를 찾고 소리쳐 불렀는데도 안해는 깨여나지 못하였다. 종내 그는 단념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나서 그는 어린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어머니! 나 변소갈래!》 그가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안해가 깨여났다. 그제야 그는 안해를 찾았다. 안해는 문을 열어주었다.

A Good Couple
의좋은 부부

Mr. Jones was very angry with his wife, and she was very angry with her husband. For several days they did not speak to each other at all. One evening Mr. Jones was very tired when he came back from work, so he went to bed soon after dinner. Of course, he did not say anything to Mrs. Jones before he went upstairs. Mrs. Jones washed the dinner things and then did some sewing. When she went up to bed much later than her husband, she found a piece of paper on the small table near her bed. On it were the words, “Mother. Wake me up at 7 a.m. Father.”

When Mr. Jones woke up the next morning, it was nearly 8 a.m. And on the small table near his bed he saw another piece of paper. He took it and read these words: “Father. Wake up. It is 7 a.m. Mother.”

죤즈씨는 안해한테 몹시 성을 냈는데 안해 역시 남편에게 잔뜩 화를 냈다. 여러날동안 그들은 서로 단 한마디의 말도 주고받지 않았다. 어느날 저녁 하루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죤즈씨는 온몸이 녹초가 되였다. 그래서 저녁을 먹자마자 잠자리에 들었다. 물론 그는 안해한테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고 웃층으로 올라갔다. 죤즈부인은 그릇을 다 가신 다음 재봉질을 좀 하였다. 남편보다 훨씬 뒤늦게야 침대에 올라간 그 녀자는 자기 침대곁에 놓인 작은 탁우에 종이쪽지 한장이 놓여있는것을 보았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씌여져있었다. 《래일 아침 7시에 날 깨워주오. 아버지.》

이튿날 아침 죤즈가 일어나보니 8시가 거의 되여오는데 자기 침대곁에 놓인 작은 탁우에 다른 종이 한장이 놓여있었다. 집어들고 읽어보니 이런 글이였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7시예요. 어머니. 》

In the arithmetic of love, one plus
One equals everything, and two minus
One equals nothing.
사랑의 산수에서는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모든것이 되며
둘에서 하나를 덜면 아무것도 없다.
(Mignon McLaughlin)

"If You Want…"
《당신이 원한다면…》

It was two weeks before Christmas, and Mrs. Smith was very busy. She bought a lot of Christmas cards to send to her friends and to her husband's friends, and put them on the table in the living-room. Then, when her husband came home from work, she said to him, "Here are the Christmas cards for our friends, and here are some stamps, a pen and our book of addresses. Will you please write the cards while I am cooking the dinner?"

Mr. Smith did not say anything, but walked out of the living-room and went to his study. Mrs. Smith was very angry with him, but did not say anything either. Then a minute later he came back with a box full of Christmas cards. All of them had addresses and stamps on them.

"These are from last year," he said. "I forgot to post them."

크리스마스를 두주일 앞둔 때라 스미스부인은 무척 바빴다. 그는 자기 동무들과 남편의 친구들한테 보낼 크리스마스엽서들을 하나가득 사가지고는 살림방 탁자우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남편이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자 말했다. 《우리 친구들한테 보낼 크리스마스엽서들이예요. 그리고 여기 우표도 있고요. 펜과 주소책도 있어요. 제가 저녁을 끓일 동안 저대신에 엽서를 좀 써주시겠어요?》

스미스씨는 아무 말도 않고 방에서 나와 서재로 들어가버렸다. 스미스부인은 남편의 일에 화가 났으나 그 역시 잠자코 아무 말도 안했다. 그런데 좀 있어서 남편이 크리스마스엽서가 가득 든 통을 하나 가지고 서재에서 나오는것이였다. 주소와 우표가 다 제대로 되여있는것들이였다. 《이건 작년도에 쓴것들이요. 그만 잊고서 부치지 못하였더랬소.》

A Faithful Husband
충실한 남편

Mrs. Black was having a lot of trouble with her skin, so she went to her doctor about it. He could not find anything wrong with her, however, so he sent her to the local hospital for some tests. The hospital, of course, sent the results of the tests direct to Mrs. Black's doctor, and the next morning he telephoned her to give her a list of the things that he thought she should not eat, as any of them might be the cause of her skin trouble.

Mrs. Black carefully wrote all the things down on a piece of paper, which she then left beside the telephone while she went out to a ladies' meeting. When she got back home two hours later, she found her husband waiting for her. He had a big basket full of packages beside him, and when he saw her, he said, "Hullo, dear. I have done all your shopping for you."

"Done all my shopping?" she asked in surprise. "But how did you know what I wanted?"

"Well, when I got home, I found your shopping list beside the telephone," answered her husband, "so I went down to the shops and bought everything you had written down."

Of course, Mrs. Black had to tell him that he had bought all the things the doctor did not allow her to eat!

블랙크부인은 피부때문에 여간만 애를 먹지 않고있어서 의사를 찾아가 그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의사는 잘못된것이라고는 찾아내

지 못하고 일련의 검사를 위해 그를 지방병원으로 보내였다. 물론 병원측에서는 검사결과를 블랙크부인의 의사에게 직접 보내였고 이튿날 아침 의사는 그 녀자에게 전화로 먹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적은 명세를 알려주었다. 그중 어느것이라도 먹으면 피부병을 일으킬수도 있었기때문이였다.

블랙크부인은 종이 한장우에 그 모든것들을 꼼꼼히 적고는 전화기옆에 둔채로 부인회에 참가하려고 집을 나섰다. 두시간후에 돌아오니 남편이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꾸레미들이 잔뜩 들어찬 커다란 광주리를 옆에 끼고있었는데 안해를 보자 말하는것이였다. 《아참, 당신이군. 당신대신에 당신이 사려던 물건들을 이미 다 사놓았소.》

《내가 사려던 물건들을 다 사놨다구요?》블랙크부인은 깜짝 놀라 물었다. 《한데 내가 요구하는 물건들을 어떻게 알아냈어요?》

《그것말이지. 집에 돌아와보니 전화기옆에 당신이 작성해놓은 명세가 있더구만.》 남편이 대답했다. 《그래서 상점들에 나가서 당신이 내리적은 물건들을 모조리 사왔소.》

물론 블랙크부인은 의사가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던것들을 사왔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 Two souls with but a single thought,
> Two hearts that beat as one.
> 하나의 생각만이 깃든 두 사람의 넋,
> 하나로 고동치는 두 사람의 심장.

A Good Foreteller
훌륭한 예언자

Mrs. Baker's sister was ill. She had someone to look after her from Monday to Friday, but not at the weekend, so every Friday evening Mrs. Baker used to go off to spend the weekend with her at her home in a neighbouring town. But as Mr. Baker could not cook, she had arranged for his sister to come over and spend the

weekend looking after him at their home.

This meant that Mr. Baker had quite a busy time when he came home from work on Friday evenings. First he had to drive home from the railway station. Then he had to drive his wife to the station to catch her train. And then he had to wait until his sister's train arrived, so as to take her to his house.

Of course, on Sunday evening he had to drive his sister to the station to catch her train back home, and then wait for his wife's train, so as to bring her home.

One Sunday evening he had seen his sister off on her train and was waiting for his wife's arrival when a porter, who had often seen him at the station, came over and spoke to him.

"You are having a lot of fun," he said. "But one day one of those women is going to catch you with the other, and then you will be in real trouble!"

베이커부인의 녀동생이 앓고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시켜 주말은 내놓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녀동생을 간호하도록 하였는데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이웃시에 있는 녀동생네 집을 찾아가 거기서 동생과 함께 주말을 보내군 하였다. 그러나 베이커씨가 때식을 끓일수 없었으므로 배이커부인은 남편의 누이동생이 건너와 즉 자기들 집에서 그를 돌보며 주말을 보내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여서 베이커씨는 금요일 저녁에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우선 그는 철도정거장에서 집으로 차를 타고와야 했다. 그다음에는 안해를 정거장으로 태워다주고 그가 기차를 타도록 해야 했다. 그리고나서 또한 자기 누이동생의 기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집으로 태우고 와야 했다.

물론 일요일 저녁에는 누이동생이 렬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게 정거장으로 바래주어야 했으며 그다음엔 안해의 기차를 기다렸다가 그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어느 일요일 저녁 그는 기차로 가는 누이동생을 바래주고나서 안해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데 정거장에서 자주 만나군 한적이 있

는 한 집군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무척 즐겁게 보내시는군요. 한데 어느날엔가 그들중 한 녀자가 다른 녀자와 함께 있는 당신을 붙잡게 되면 그때엔 진짜 시끄러움을 당할수 있지요.》

Happy families are all alike; every unhappy family is unhappy in its own way.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게 행복하나 불행한 가정은 제나름대로 불행하다.
(from the novel "Anna Karenina" by Rev Nikolaevich Tolstoi, 1828-1910, 로씨야의 사실주의소설가)

3. Parents and Children
부모와 자식

"Get Anything"
《아무거나 사오너라》

Mother: Oh, dear, I haven't got any bread.
Patty: I don't mind not eating any bread, Mommy.
Mother: That's sweet of you, but we have company tonight, and we simply must have bread. Will you go out and buy me some?
Patty: All right.
Mother: "Lilacs" is what I want , but if they don't have it, get anything.
(Later)
Patty: Hello, Mommy.
Mother: Oh, thank you, Patty. Well, did you get "Lilacs"bread?
Patty: No.

Mother: What did you get then? Let me see what you've bought. Why, Patty, you didn't get any bread. You've got chocolates instead. But, why?

Patty: Well, they didn't have any "Lilacs"bread. And you said that if they didn't have "Lilacs," get anything. So I got chocolates.

어머니: 이걸 어쩌니. 빵이 없구나.

패티: 어머니, 빵을 먹지 못해도 일없어요.

어머니: 참 착하구나. 오늘밤은 손님들이 온다. 빵이 있어야 해. 나가서 좀 사오지 않겠니?

패티: 좋아요.

어머니:《라이락스》(빵이름)를 사오너라. 없으면 아무것이나 사오너라.

(후에)

패티: 어머니.

어머니: 오냐, 고맙구나, 패티. 그래《라이락스》를 사왔니?

패티: 아니요.

어머니: 그럼 뭘 사왔니? 네가 사온걸 좀 보자. 저런, 빵은 하나도 사오지 않았구나. 그 대신 쵸콜레트를 사왔구나. 왜 그랬냐?

패티: 저, 《라이락스》빵이 없더군요. 그런데 어머닌 그게 없으면 아무것이나 사오라구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쵸콜레트를 사왔죠 뭐.

Not to Be a Gentleman
신사가 되지 않으려고

Dick was seven years old, and his sister, Catherine, was five. One day their mother took them to their aunt's house to play while she went to the big city to buy some new clothes.

The children played for an hour, and then at half past four their aunt took Dick into the kitchen. She gave him a nice cake and a knife and said to him, "Now here's a knife, Dick. Cut this cake in half and give one of the pieces to your sister, but

remember to do it like a gentleman."

"Like a gentleman?" Dick asked. "How do gentlemen do it?"

"They always give the bigger piece to the other person," answered his aunt at once.

"Oh," said Dick. He thought about this for a few seconds. Then he took the cake to his sister and said to her, "Cut this cake in half, Catherine."

디크는 7살, 그의 녀동생 캐써린은 5살이였다. 어느날 어머니가 그들을 삼촌어머니네 집에 가 놀라고 데려다주고는 새 옷을 몇벌 사러 큰 도시로 갔다.

애들은 한시간동안 놀았는데 4시 반에 삼촌어머니가 디크를 데리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 녀자는 디크에게 맛있는 과자와 칼을 주며 말했다. 《얘, 이 칼을 받거라. 이 과자를 절반으로 쪼개서 하나는 동생한테 주거라. 헌데 신사처럼 해야 한다는것을 잊지 말거라.》

《신사처럼요?》 디크가 물었다. 《신사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들은 늘 더 큰 쪽을 남한테 준단다. 》삼촌어머니가 대답했다.

《그래요?》 디크는 잠간 생각을 굴리였다. 그리고는 자기 녀동생한테 과자를 갖고 가서는 말했다. 《이걸 절반으로 쪼개렴, 캐써린.》

A Small Boy and the Rain
어린애와 비

A small boy and his father were having a walk in the country when it suddenly began to rain very hard. They did not have their umbrellas with them, and there was nowhere to hide from the rain, so they were soon very wet, and the small boy did not feel very happy and felt like weeping.

For a long time while they were walking home through the rain, the boy was thinking. Then at last he turned to his father and said to him, "Why does it rain, Father? It isn't very nice, is it?"

"No, it isn't very nice, but it's very useful, Tom." answered

his father. “It rains to make the fruit and the vegetables grow for us, and to make the grass grow for the cows and sheep.”

Tom thought about this for a few seconds, and then he said, “Then, why does it rain on the road too, Father?”

애어린 아이와 아버지가 교외에서 산보를 하고있었는데 갑작스레 비가 대줄기마냥 내렸다. 우산을 가져오지 못한데다 비를 그을데도 없어서 인차 온몸이 흠뻑 젖어들었고 어린애는 기분이 상해 울음을 터칠것만 같았다.

오래동안 비속을 뚫고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아이는 생각을 굴리였다. 그러다 마침내 아버지한테 몸을 돌리고 물었다.《아버지, 왜 비가 내려요? 정말 좋지 않지요?》

《아니란다. 비는 정말 좋지 않지만 유익한 점이 대단하단다, 톰.》 아버지가 대답했다. 《비는 우릴 위해 과일과 남새들이 잘 자라게 한단다. 그리구 소와 양들이 먹을 풀들이 잘 자라게 하지.》

톰은 잠시 아버지가 한 말을 생각해보더니 말했다. 《아버지, 그럼 어째서 비가 길우에도 내리는가요?》

How beauteous mankind is! O brave new world,
That has such people in it!
인간이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아아, 훌륭한 새 세계여!
(William Shakespeare, 1564-1616, 영국의 극작가, 시인)

“Do You Want Yours Fall Down?”
《아버지의것이 흘러내리는걸 바라시는가요?》

When Tom Howard was seventeen years old he was as tall as his father, so he began to borrow Mr. Howard’s clothes when he wanted to go out with his friends in the evening. Mr. Howard did not like this, and he always got very angry when he found his son wearing any of his things.

One evening when Tom came downstairs to go out, his father

stopped him in the hall. He looked at Tom's clothes very carefully. Then he said angrily, "Isn't that one of my ties, Tom?"

"Yes, Father, it is," answered Tom.

" And that shirt's mine too, isn't it?" his father continued.

"Yes, that's yours too," answered Tom.

"And you're wearing my belt!"said Mr. Howard.

"Yes, I am, Father," answered Tom. "You don't want your trousers to fall down, do you?"

톰 하우워드는 17살에 이르자 아버지만큼이나 키가 커서 저녁에 동료들과 함께 외출하고싶을 때면 아버지의 옷을 빌려입기 시작하였다. 하우워드씨는 이것이 싫어서 아들이 자기의것을 아무거나 입고있는것을 보면 몹시도 화를 내군 하였다.

어느날 저녁 톰이 외출하려고 아래층에 내려오는데 홀에서 아버지가 그를 멈춰세웠다. 그는 무던히도 깐깐하게 톰의 차림새를 여겨보는것이였다. 그러더니 발끈해서 말했다. 《그게 내 넥타이가 아니냐, 톰?》

《그래요, 아버지, 맞아요.》톰이 대답했다.

《그리구 그 샤쯔도 내거지?》 아버지는 계속하였다.

《맞아요. 그것 역시 아버지거예요.》톰이 대답했다.

《내 혁띠를 띠고있구나!》

《예, 그래요. 아버지.》톰이 대답했다. 《아버진 아버지 바지가 땅바닥에 흘러내리는걸 바라진 않으시겠지요?》

"Mother Is Looking for Me"
《어머닌 날 찾고있어요.》

Mr. Jones and Mr. Brown worked in the same office. One day Mr. Jones said to Mr. Brown, "We are going to have a small party at our house next Wednesday evening. Will you and your wife come?"

Mr. Brown said, "Thank you very much. That is very kind of

you. We are free that evening, I think, but I will telephone my wife and ask her. Perhaps she wants to go somewhere that evening.” So Mr. Brown went to the other room and telephoned. When he came back, he looked very surprised.

“What is the matter?” said Mr. Jones. “Did you speak to your wife?”

“No,” answered Mr. Brown. “She wasn’t there. My small son answered the telephoen. I said to him, ‘Is your mother there, David?’ and he answered, ‘No, she is not in the house.’ ‘Where is she then?’ I asked. ‘She is somewhere outside.’ ‘What is she doing?’ ‘She is looking for me.’”

죤즈씨와 브라운씨는 같은 사무소에서 일하였다. 어느날 죤즈씨가 브라운씨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서 다음주 수요일 저녁에 간소한 연회를 마련하려고 하네. 안해와 함께 오겠나?》

브라운씨가 말했다. 《대단히 감사하네. 정말 친절하구만. 그날 저녁엔 시간이 있을테지만 안해한테 전화를 걸어 물어보겠네. 아마 안해가 그날 저녁 어데로든 가고싶어할거네.》 그리하여 브라운씨는 다른 방에 가서 전화를 걸었다. 돌아온것을 보니 몹시 놀라운 표정이였다.

《무슨 일인가?》 죤즈가 물었다. 《안해한테 이야길 했나?》

《못했네.》 브라운씨가 대답했다. 《거 없더군. 작은 아들애가 전화를 받았네. 그 애한테 <네 어머니가 거기 있느냐?> 하구 물었더니 그 애가 하는 말이 <없어요. 집안엔 없어요.> 하는것이였네. <그럼 어디 있느냐?> 하구 물었네. <어디론가 밖에 나갔어요.> <뭘 하고있니?> 하구 물었더니 <나를 찾고있는중이예요.> 하는게 아니겠나.》

“But I’ve Been to School!”
《학교에야 가보지 않았댔나요!》

Betty Brown was five years old, and her mother wanted her to begin going to school, because she wanted to start working in an office again.

A month before the beginning of the school year Mrs. Brown

began telling Betty about school. "It's very nice," she said. "You'll play games and paint pictures and sing songs."

Mrs. Brown began doing these things with Betty. Betty liked the games and the painting and the singing very much, but she always wanted to be near her mother, so Mrs. Brown was rather afraid and thought, "What will she do when I leave her at school?"

But on the first day at school Betty was very good. She did not cry, and she was happy. On the second morning Mrs. Brown said, "Put your clothes on, Betty. I'm going to take you to school in half an hour's time."

"School?" Betty said. "But I've been to school!"

베티 브라운은 5살이였는데 어머니는 어느 한 사무소에 다시 나가 일하고싶어 애를 학교에 보내려고 하였다.

새학년도가 시작되기 한달전에 브라운부인은 베티에게 학교에 대하여 말해주기 시작하였다. 《아주 훌륭한 곳이란다. 놀이도 하구 그림도 그리구 노래도 부르게 된단다.》

브라운부인은 베티와 함께 이러한것들을 하기 시작하였다. 베티는 놀음놀이와 그림그리기, 노래부르기는 좋아하였지만 어머니곁에 항상 붙어있고싶어하였다. 그러다보니 브라운부인은 자연히 그것이 걱정스러워져 생각했다. 《학교에 떨궈두면 저 애가 어떻게 할가?》

그런데 학교에 간 첫날에 베티는 무척 즐거워하였다. 울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기뻐하였다. 두번째날 아침에 브라운부인이 말했다. 《옷을 입거라, 베티. 반시간후에 널 함교에 데려다주겠다.》

《학교에요?》 베티가 말했다. 《학교에야 가보지 않았댔나요?》

-Love is the poetry of the senses.
사랑은 감각의 시가.
(Honore de Balzac, 1799-1850, 프랑스의 사실주의소설가)

-The only way to have a friend is to be one.
친구를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먼저 친구가 되는것이다.

-To be an ideal guest, stay at home.
리상적인 손님이 되려거든 제 집에 있으라.

Ⅲ. The Other Life

기 타 생 활

"Laugh and grow fat."

1. Adult and Child
어른과 아이

“Don’ t Worry.”
《걱정말아요.》

Child: I’ve found this baby dog. Can I keep it Mum?
Mother: No, you can’t. You can’t take care of it, can you?
Child: Don’t worry. I’ve brought its mother, too.

아이: 새끼강아지를 한마리 얻었어요. 가져도 돼요, 엄마?
어머니: 안돼. 그렇겐 못해. 넌 키우지 못해.
아이: 걱정말아요. 어미개도 가져왔어요.

A Good Memory
훌륭한 기억력

Mr. Yates was nearly ninety, so it was often difficult for him to remember things. But he still liked travelling very much, so he and his wife went to Spain every year.

One summer when they were there, they went to visit some friends. These people had two young daughters. One afternoon Mr. Yates was talking to one of the girls in the garden after lunch. “You and your sister were ill when my wife and I were here last year, weren’t you?” he said to her.

“Yes, we were,” answered the girl. “We were very ill.”

The old man said nothing for a minute, because he was thinking. Then at last he said. “Oh, yes. I remember now! One of you died. Which one of you was it, you or your sister?”

The girll answered. “It was me.”

“Oh? I’m very sorry to hear it,” said the old man.

예이츠씨는 90가까이에 이르다보니 기억을 되살리는것이 가끔 힘든 때가 있군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려행하기를 무척 좋아하였던지라 안해와 함께 해마다 에스빠냐에 갔다.

거기에 가있던 어느 여름철에 그들은 친구들을 찾아갔다. 그들한테는 어린 두 딸이 있었다. 어느날 오후 예이츠씨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그 처녀들중의 한 애와 한담을 나누고있었다. 《작년에 내가 마누라와 함께 여기에 왔을 때 너와 너의 언니가 앓더랬지?》

《예, 그랬어요.》 처녀애가 대답했다. 《몹시 앓았댔어요.》

늙은이는 생각에 잠겨있다보니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다가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차, 그렇지, 이제야 생각나! 너희들중 한 애가 죽었어. 그 애가 누구였더라? 너더라, 아니면 네 언니였더라?》

처녀애는 대답했다. 《그게 바로 저였어요.》

《엉? 그 소릴 들으니 참 안됐구나.》 늙은이는 말했다.

"Grandfather Cannot Hear me!"
《할아버진 듣지 못해요!》

John liked chocolates very much, but his mother never gave him any, because they were bad for his teeth, she thought. But John had a very nice grandfather. The old man loved his grandson very much, and sometimes he brought John chocolates when he came to visit him. Then his mother let him eat them, because she wanted to make the old man happy.

One evening, a few days before John's seventh birthday, he was saying his prayers in his bedroom before he went to bed. "Please, God," he shouted, "make them give me a big box of chocolates for my birthday on Saturday."

His mother was in the kitchen, but she heard the small boy shouting and went into his bedroom quickly.

"Why are you shouting, John?" she asked her son. "God can hear you when you talk quietly."

"I know," answered the clever boy with a smile, "but Grandfather's in the next room, and he can't."

죤은 쵸콜레트를 무척 좋아하였으나 어머니는 그에게 단 한개도 주지 않았다. 한것은 쵸콜레트가 이발에 대단히 나쁘다고 생각했기때문이다. 그러나 죤에게는 매우 좋은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 늙은이는 손자를 끔찍히도 사랑하였던지라 그를 만나러 올 때면 그가 좋아하는 쵸콜레트를 가지고 오군 하였다. 그때에는 그 애 어머니도 늙은이를 기쁘게 해주고싶었던지라 쵸콜레트를 먹도록 내버려두었다.

어느날 저녁 죤이 일곱번째 생일을 맞이하기 며칠전이였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죤은 침실에서 기도를 올리고있었다. 《제발, 하느님이시여》 그는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토요일 내 생일날에 그들이 나한테 쵸콜레트를 큰 통으로 하나 갖다주도록 해주사이다.》

그 애의 어머니는 부엌에 있었는데 큰소리로 웨쳐대는 어린애의소리를 듣고 급히 침실로 뛰여들어갔다. 《왜 떠드는거냐, 죤?》그는아들에게 물었다. 《네가 조용조용 말해도 하느님은 네 말을 듣는단다.》

《알고있어요.》 해죽이 웃으며 깜찍한 그 애가 대답했다. 《하지만 할아버진 옆방에 있으니까 듣지 못하지 않나요.》

-A patient person bears sadness and pain. He does not say how unhappy he is.

참을성있는 인간은 불행과 고통을 참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말하지 않는다.

(from "The Canterbury Tales" by Geoffrey Chaucer)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re sorry.

사랑에는 후회가 없는 법이다.

Jimmy’s Birthday Present
지미의 생일선물

It was Jimmy’s birthday, and he was five years old. He got quite a lot of nice birthday presents from his family, and one of them was a beautiful big drum.

“Who gave him that thing?” Jimmy’s father said when he saw it.

“His grandfather did,” answered Jimmy’s mother.

Of course, Jimmy liked his drum very much. He made a terrible noise with it, but his mother did not mind. His father was working during the day, and Jimmy was in bed when he got home in the evening, so he did not hear the noise.

But one of the neighbours did not like the noise at all, so one morning a few days later, she took a sharp knife and went to Jimmy’s house while he was hitting his drum. She said to him, “Hullo, Jimmy. Do you know, there’s something very nice inside your drum? Here’s a knife. Open the drum and let’s find it.”

지미의 생일날이였다. 그 애는 5살이 되였다. 그는 가족들로부터 훌륭한 생일선물들을 많이 받았다. 그중에는 멋지게 생긴 큰 북도 있었다.

《누가 그 애한테 저런걸 주었소?》 지미의 아버지가 그것을 띄여보고 말했다.

《그 애 할아버지가 주신거예요.》 지미의 어머니가 대답했다.

물론 지미는 그 북을 무척 좋아하였다. 그는 그것을 두드리며 듣기에도 끔찍스러운 소리를 내였지만 어머니는 전혀 개의치 않아했다. 그 애 아버지는 낮에 일하러 나갔다가 저녁에는 지미가 잘 때에야 들어오군 하니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들을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웃에서 사는 한사람만은 전혀 그 소리를 좋아하지 않았는지라 며칠이 지난 어느날 아침 끝이 뾰족한 칼을 들고 지미가 한창 북을 두드릴 때에 그의 집으로 왔다. 그 녀자는 애한테 말했다. 《잘 있었냐, 지미, 넌 모르지. 너의 그 북통안에 아주 멋진것이 들어있단다. 여기 칼이 있어. 북을 열구서 찾아보자꾸나.》

Unexpectedly
천만뜻밖에도

Billy was four years old and he was a very bad boy. Every day after lunch his mother took him to his bedroom and put him on his bed to rest for an hour, but Billy never slept and usually he made a lot of noise and got off his bed every few minutes.

One afternoon, Billy's mother put him on his bed and then went to her bedroom to do some sewing. After ten minutes, she heard a noise so she went to Billy's room. He was not there, but his trousers were lying on his bed.

She looked in the other rooms upstairs, but he was not there either, so she went to the top of the stairs and shouted down angrily, "Are you running about down there without your trousers?"

"No, madam," answered a man's voice. "I have brought your vegetables and I am wearing my trousers."

빌리는 4살 나는데 몹시도 애를 말리였다. 매일 점심식사를 하고나서 어머니가 그 애를 침실로 데리고 가 침대에서 한시간동안 재우려고 하면 잠자는적은 한번도 없고 보통 왝왝 고아대면서 몇분에 한번씩 침대에서 빠져나가군 하였다.

어느날 오후 어머니는 그를 침대에 눕히고나서 자기 침실로 가 바느질을 하고있었다. 10분후에 떠드는 소리가 들리길래 빌리의 침실로 갔다. 그 애는 없고 바지가 침대우에 딩굴고있었다.

웃층에 있는 다른 방들을 들여다보았지만 거기에도 없어서 층계머리로 나가 아래다 대고 화가 나서 소리질렀다. 《바지도 안 입고 아래서 돌아다니는거냐?》

《바지를 안 입다니요, 마님.》 웬 남자의 목소리였다. 《남새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구 난 내 바지를 입고있는데요.》

A Man Who Called a Baby on the Phone
애기한테 전화를 건 사나이

Mrs. Jones was waiting for an important telephone call, but she had no bread in the house, so she left the baby at home and said to his five-year-old brother, "I am going to the shops, Jimmy, and I will be back in a few minutes."

While she was out, the telephone rang, and Jimmy answered.

"Hullo," said a man, "is your mother there?"

"No," answered Jimmy.

"Well, when she comes back, say to her, 'Mr. Baker telephoned.'"

"What?"

"Mr. Baker. Write it down. B-A-K-E-R."

"How do you make a B?"

"How do I make…? Listen, little boy, is there anybody else with you? Any brothers or sisters?"

"My brother Billy is here."

"Good, I want to talk to him, please."

"All right," Jimy took the telephone to the baby's bed and gave it to Billy. When their mother came back, she asked, "Did anyone telephone?"

"Yes," said Jimmy, "a man. But he only wanted to talk to Billy."

존즈부인은 중요한 전화가 걸려오기를 기다리고있었지만 집에 빵이 없어 애기를 남겨두고 떠나면서 5살짜리 아들애한테 말했다. 《상점에 가려는데, 지미, 인츰 돌아오겠다.》

그 녀자가 나간 새에 전화종이 울려 지미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시오.》 웬 남자의 목소리였다. 《어머니가 집에 계시냐?》

《없어요.》 지미가 대답했다.

《그래, 어머니가 돌아오시거든 알려드려라. 베이커씨한테서 전화왔댔다구.》

《뭐라구요?》

《베이커씨말이다. 이름을 적거라. B-A-K-E-R》

《<B>자를 어떻게 쓰나요?》

《어떻게 쓰냐구…? 잘 듣거라, 얘, 거기 너 말구 또 누가 없냐? 형 아니면 누나말이다?》

《빌리가 있어요.》

《됐구나. 그 애를 좀 바꿔주렴.》

《알았어요.》 지미는 전화기를 아기의 침대에 가지고가서 빌리에게 주었다. 그들의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와 물었다. 《누구한테서 전화온게 없니?》

《있어요.》 지미가 대답했다. 《웬 사람한테서요. 그런데 빌리한테만 이야기하고싶어하더군요.》

Who Is a Child?
누가 어린애인가?

Mr. Jones woke early one morning, before the sun had risen. It was a beautiful morning, so he went to the window and looked out. He was surprised to see a neatly dressed, middle-aged professor, who worked in the university just up the road from Mr. Jones's house, coming from the direction of the town. He had grey hair and thick glasses, and was carrying an umbrella, a morning newspaper and a bag. Mr. Jones thought that he must have arrived by the night train and decided to walk to the university instead of taking a taxi.

Mr. Jones had a big tree in his garden, and the children had tied a long rope to one of its branches, so that they could swing on it.

Mr. Jones was surprised to see the professor stop when he saw the rope, and look carefully up and down the road. When he saw that there was nobody in sight, he stepped into the garden (there was no fence), put his umbrella, newspaper, bag and hat

neatly on the grass and took hold of the rope. He pulled it hard to see whether it was strong enough to take his weight, then ran as fast as he could and swung into the air on the end of the rope, his grey hair blowing all around his face. Backwards and forwards he swung, occasionally taking a few more running steps on the grass when the rope began to swing too slowly for him.

At last the professor stopped, straightened his tie, combed his hair carefully, put on his hat, picked up his umbrella, newspaper and bag, and continued on his way to the university, looking as quiet and correct and respectable as one would expect a professor to be.

죤즈씨는 어느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찌기 깨여났다. 상쾌한 아침이여서 창문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자기 집앞으로 난 도로 바로 웃쪽에 있는 대학에서 일하는 중년의 교수가 산뜻한 옷차림을 하고 시내쪽에서 오는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머리칼이 희끗희끗하고 두꺼운 안경을 낀 교수는 우산과 조간신문 그리고 가방을 들고있었다. 죤즈씨는 분명 저 사람이 밤차로 도착하여 대학까지 택시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갈 결심인가부다 생각하였다.

죤즈씨의 뜰안에는 커다란 나무가 한그루 있었는데 그네를 타느라고 아이들이 나무가지 하나에다 길다란 바줄을 매놓은것이 있었다.

죤즈씨는 교수가 그 바줄을 보자 걸음을 멈추고서 도로 아래우를 자세히 살펴보는것을 보고 놀랐다. 보는 사람이 없다는것을 알아차리자 교수는 뜰에 성큼성큼 걸어들어가(울타리는 없었다) 우산과 신문, 가방과 모자를 풀밭우에 가려놓고 바줄을 잡았다. 몸무게를 감당할만큼 든든한가 보느라 세게 당겨보더니 있는 힘껏 내달려가 바줄 한끝을 잡고 하늘공중으로 휙 날아오르는데 허연 머리칼이 온 얼굴에 날리고있었다. 뒤로 갔다가는 앞으로 다시 오고 바줄이 지내 천천히 오가기 시작할 때에는 몇걸음 풀판우를 더 뛰기도 하면서 그네를 탔다.

마침내 교수는 그네타기를 그만하고 넥타이를 바로하고 머리를 빗고나서 모자를 쓰고는 우산과 신문, 가방을 집어들고 대학으로

가던 길을 계속 가는데 누가 보기에도 교수라면 흔히 그러하다고 여기듯 아주 점잖게 그리고 단정하면서도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하고있었다.

A Little Indian
어린 인디안소년

Johnny was four years old, and his favourite game was cowboys and Indians. He had a cowboy suit and a belt with two guns, and spent most of his time pretending to be fighting Indians.

One day his mother took him in a train for the first time. Of course, he wore his cowboy suit and carried his two guns. He had seen a film of an attack by Red Indians on a train in the Wild West, so his mother was not surprised when he began playing at cowboys and Indians in the train. But when he wanted to open the window wide so that he could shoot out of it, she thought this too dangerous, and allowed him to have it open only at the top, so that he could shoot out of it if he stood up, but could not fall out.

He was playing happily, hiding behind the curtain, suddenly stepping forward, firing a shot out of the window and then quickly stepping back again, when he suddenly gave a cry, fell back on to the seat, and lay there with his chin resting on his chest and his arms hanging loosely beside him. Of course, his mother was frightened. She thought that something from outside the train must have hit him as he stood at the window. She shook the child gently, but he made no movement, and his eyes rolled in his head. His mother was now very worried indeed. She picked Johnny up in her arms to go and find help; but just then he lifted one of his arms with great effort, pointed to his chest and said in a weak whisper, “Pull the arrow out, will you?”

존니는 4살난 애였는데 그가 좋아하는 놀이는 목동과 인디안 놀음이였다. 그는 목동차림을 하고 총 두자루를 찬 혁띠를 두르고서 인디안들과 싸움을 벌리는 흉내를 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였다.

어느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그를 데리고 기차에 올랐다. 물론 애는 목동차림에 총 두자루를 찼다. 그 애가 서부황야에서 붉은 인디안들이 기차를 공격하는 영화를 본적이 있었으므로 어머니는 존니가 차칸에서 목동과 인디안놀이를 시작하자 별로 놀라와하지 않았다. 그러나 애가 밖으로 총을 내다쏠수 있게 창문을 널찍이 열었으면 하자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 생각되여 쪽대기만 조금 열도록 하였다. 그래서 아이는 일어서서 총을 쏠수 있으면서도 밖으로 떨어질 념려는 없었다. 그 애는 창가림뒤에 몸을 숨기며 신나게 놀다가 불쑥 앞으로 나서며 창문밖에다 대고 총을 쏘고나서는 제꺽 뒤로 다시 물러서면서 별안간 고함을 지르는것과 함께 의자에 털썩 넘어지며 턱은 가슴에 대고 두팔은 옆에 맥없이 드리웠다. 어머니가 깜짝 놀란것은 두말할것 없었다. 애가 창문가에 서있을 때 분명 창밖에서 뭔가 애를 쳐버린 모양이였다. 아들애를 조심히 흔들었으나 아무런 기척도 없이 두눈만 데룩거렸다. 이쯤되니 어머니는 진짜로 근심이 더럭 났다. 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존니를 안아일으키는 찰나에 애가 안깐힘을 쓰며 한팔을 들어올리더니 가슴을 가리키며 가냘픈 목소리로 말하는것이였다. 《화살을 좀 뽑아주겠나요?》

If winter comes, can spring be far behind?
겨울이 왔으니 봄인들 멀소냐?
(from a poem "To the west wind" by percy Bysshe shelley)

2. Friend and Neighbour
친구와 이웃

In Both of Your Hands
량손에

Fanny and Ethel worked in the same office, and they were neighbours at home. Fanny was rather a careless girl, and she often lost things. Then she usually went to Ethel to borrow more from her. Ethel was a kind girl, but she sometimes got tired of lending things to her friend.

One Saturday afternoon Fanny knocked at Ethel's front door, and when Ethel came to open it, Fanny said to her, "Oh, hullo, Ethel. Please lend me a bag. I've lost mine. I'm going to the shops, and I feel very stupid when I haven't got anything in my hand when I go out in the street."

Ethel laughed and answered, "Well, Fanny, go down to the end of the garden. You'll find a nice wheelbarrow in the shed there. Take that when you go down to the shops. Then you'll have something in both of your hands."

패니와 에쎌은 같은 사무소에서 일하는데 집도 서로 이웃하여 살고있었다. 패니는 좀 꼼꼼하지 못한 처녀여서 무엇인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늘 에쎌을 찾아와 더 많이 빌려가군 하였다. 에쎌은 인정이 후한 처녀이긴 하였지만 가끔 가다 친구한테 물건을 빌려주는것이 귀찮아지는 때가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패니가 에쎌의 집문을 두드리길래 나가보니 패니가 말하는것이였다. 《어마나, 에쎌, 가방 하나 빌려주렴. 내걸 잃어먹었어. 상점에 가려는데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거리에 나서자니 정말 어색하구나.》

에쎌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패니, 터밭 끝머리에 가보렴.

거기 헛간안에 괜찮은 손수레가 하나 있을게야. 상점에 나갈 때 그걸 가지고 가렴. 그럼 량손에 무엇인가 들게 될게 아니냐.》

"I Did Not See the Word NOT"
《<아니다>라는 단어를 보지 못했군.》

Old Mr. Black loved shooting bears, but his eyes were not good any more. Several times he nearly shot people instead of bears, so his friends were always very careful when they went out shooting with him.

One day a young friend of his wanted to have a joke, so he got a big piece of white paper and wrote on it in very big letters "I AM NOT A BEAR." Then he tied it to his back and went off. His friends saw it and laughed a lot. But it did not save him. After a few minutes Mr. Black shot at him and knocked his hat off.

The young man was frightened and angry. "Didn't you see this piece of paper?" he shouted to Mr. Black. "Yes, I did," said Mr. Black. Then he went nearer, looked carefully at the paper and said, "Oh, I am very sorry. I did not see the word NOT."

늙은 블래크씨는 곰사냥을 좋아하였으나 이제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곰이 아니라 사람을 맞힐번 한적이 여러번이나 되여 친구들은 그와 함께 사냥을 갈 때에는 항상 조심하군 하였다.

어느날 한 젊은 친구가 롱삼아 커다란 흰 종이장을 얻어다가 그우에 큰 글자로 《나는 곰이 아니다》라는 글을 썼다. 그리고는 잔등에 그것을 붙이고 길을 떠났다. 동료들은 그것을 보고 되게 웃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구원하지는 못하였다. 몇분후 블랙크씨가 그를 겨누고 쏘아 모자가 날아났다.

젊은이는 깜짝 놀라 벌컥 화를 내였다. 《이 종이장을 보지 못하셨어요?》 그는 블랙크씨를 향해 소리질렀다.

《봤네. 보구말구.》 블랙크씨가 말했다. 그리고는 좀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쪽지를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어허, 참 미안하게 됐네. <아니다>라는 단어를 보지 못했군.》

A Present
선물

At the time when Bill and Rose married, neither of them had much money, so they were unable to buy a house or flat. For the first few years of their married life, they therefore lived in rented flats. Then Bill's father died and left him some money, so they bought a house. When they moved into it for the first time, one of Bill's best friends sent him a bottle of wine as a present to celebrate his entry into the first house he had owned.

Bill and Rose had a lot of work to do getting their things unpacked, arranging the furniture, getting curtains and all the rest, so they forgot about the bottle of wine. In fact, they put it away in a cupboard without even unpacking it.

Bill and Rose already had two children when they moved into their new house, and a few months later, the third was born. When Rose came home from the hospital with the baby, Bill invited some friends round to celebrate its arrival, and they had a wonderful party, with plenty to eat and to drink.

After the party had been going on for some time, however, Bill found that the wine was finished. Luckily, he remembered the bottle which his friend had given him when they had moved into the new house and which was still lying unpacked in a cupboard somewhere in the house. He found it with some difficulty and brought it into the living-room where his guests were sitting. When he had unwrapped the bottle, he saw a card tied to it, so he took it and read it aloud to the others. It said, "Bill, take good care of this one. It is the first one that is really yours!"

빌과 로즈가 결혼하였을 당시에는 두 사람한테 돈이 넉넉치 못해 단층집이나 아빠트의 살림집 같은것을 살 형편이 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결혼생활 첫 몇해동안 세낸 아빠트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빌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돈을 좀 남겨두어 그들은 집을 한채 샀다. 처음으로 그 집에 이사갔을 때 빌의 막역한 친구 한사람이 그의 소유로 된 첫 집에 드는것을 축하하여 술 한병을 선물로 보내왔다.

빌과 로즈는 짐을 풀고 가구들을 들여놓고 창가림이며 기타의것을 마련하느라 할일이 많았으므로 그 술병에 대해서는 감감히 잊고있었다. 사실 그들은 그것을 터뜨리지조차 않고 장안에 넣어두고말았다.

새집으로 이사할 때 벌써 아이가 둘이였는데 몇달후에 세번째 아이가 태여났다. 로즈가 병원에서 애기를 안고 돌아오자 빌은 친구들을 몇명 초청하여 애기의 도착을 축하하여 성대한 연회를 차렸는데 먹을것도 마실것도 많았다. 그런데 연회가 시작되여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 빌이 보니 술이 다 떨어졌다. 다행스럽게도 새집들이할 때에 친구가 준 술병이 아직도 터치지 않은채로 집안 어디 장안에 있다는 생각이 났다. 빌은 겨우 그것을 찾아내여 손님들이 앉아있는 살림방으로 갖고 들어왔다. 병을 싼 포장을 터치자 병에 매달린 엽서가 나타났는데 빌은 그것을 집어들고 큰소리로 손님들에게 읽어주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져있었다. 《빌, 이걸 잘 보관해두게. 참말로 당신의것으로 된 첫 물건이네.》

Where there is love there is life.
사랑이 있는 곳에 삶이 있다.

In This Case…
이런 경우엔…

Nasreddin was friendly with most of his neighbours, but there was one woman who lived in his street whom he had always disliked. She was too interested in other people’s business, and too ready to talk about it with others. And she was always borrowing things from her neighbours and then forgetting to return them. This woman knew that Nasreddin had a new rope in

his shed, and one day she came to his door and asked to borrow it.

"Well," said Nasreddin, "before I lend you my rope, I must know what you want it for."

"One of our neighbours is cutting a big branch off the tree in my garden," she answered, "and he needs the rope to pull it down with, so that it does not fall on my roof."

"Hasn't he got a rope himself?" asked Nasreddin.

"No, he hasn't," the woman answered rudely. "Do you think I would have come here to get yours if he had had one?"

Nasreddin said nothing, but went into his house. The woman heard him talking to his wife, and a moment later he came out again. "I am sorry," he said to the woman, "but I cannot lend you the rope just now. My wife is spreading flour on it."

"Spreading flour on it?" the woman cried. "But how can anyone spread flour on a rope? Are you trying to make a fool out of me?"

"Certainly not!" answered Nasreddin. "It is quite easy to spread flour on my rope when I do not wish to lend it to somebody."

내스레딘은 이웃들과 대체로 사이좋게 지냈으나 같은 마을에서 사는 한 녀인만은 늘쌍 싫어하군 하였다. 그 녀인은 다른 사람의 일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았고 또 그에 대해 딴 사람들과 수다를 떨었기때문이였다. 게다가 그는 늘쌍 이웃들한테서 뭘 빌리고서는 잊어먹고 돌려주지 않았다. 이 녀인은 내스레딘의 헛간에 새 바줄이 있다는것을 알고 어느날 찾아와 그걸 빌려달라고 부탁하는것이였다.

《그런가.》 내스레딘이 말했다.《내 빌려주기 전에 엇따 쓰려는지 알아야겠네.》

《이웃이 우리 집 터발에 있는 나무의 큰 가지를 하나 자르고 있는데 그게 우리 집 지붕에 나떨어지지 않게 하자면 걸 끌어내릴 바줄이 있어야 한대요.》

《그 사람한텐 바줄이 없다던가?》 내스레딘이 물었다.

《없어요.》 녀인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 사람한테 있다면 당신네걸 얻으러 여기 왔을가요?》

내스레딘은 아무 말을 안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안에서 안해에게 무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후 그가 도로 나왔다.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 바줄을 빌려주지 못하겠네. 내 마누라가 거기다 지금 밀가루를 뿌리고있는중일세.》

《밀가루를 뿌리다니요?》 녀인이 소리질렀다. 《대관절 바줄에다 밀가루를 어떻게 뿌린다는거예요? 날 놀리려구 그러지요?》

《놀리다니!》 내스레딘이 대답했다. 《빌려주고싶지 않을 때 내 바줄에 밀가루를 뿌리기야 아주 쉽지.》

A Good Choosing
훌륭한 선택

A gay young man, who earned his living as a drummer in a band, had just married, and he and his wife were looking for somewhere to live. They saw a lot of places, but there was always something that one of them did not like about them. At last, however, they found a block of new flats which both of them really liked. However, there was still the problem of whether they should take one of the ground-floor flats, which had a small garden, or one of the upstairs ones.

At last they decided on a first-floor flat—not too low down and not too high up—and moved in. After they had bought furniture, carpets, curtains, and all the rest, they gave a big party to celebrate the setting up of their first home together.

It was a gay and noisy party, as all the host's friends from the band came and played their instruments. The guests danced, sang and practiced on their host's drums.

Soon after one a.m. the telephone rang. The hostess went to answer it in the hall, and after she had finished, came back with a happy smile on her face and said to her husband, "That was the

man who has just moved into the flat downstairs telephoning, dear. I am so glad we decided not to choose it. He says it is terribly noisy down there."

어느 악단에서 드람수로서 생계를 이어가는 한 명랑한 젊은이가 금방 결혼하여 안해와 함께 거처할 곳을 찾고있었다. 많은 곳을 돌아보았지만 매번 둘중 한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것이 있는것이였다. 그러나 진정 두 사람의 마음에 꼭 드는 새 아빠트를 끝내 찾아내고야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제로 되는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자그마한 정원이 달린 1층에 들것인가 아니면 웃층의 어느 한 방에 들것인가 하는것이였다.

드디여 그들은 2층살림집-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은 집을 정하고 거기에 들었다. 가구며 주단이며 창가림들이며를 사고나서 충분히 휴식한 뒤에 자기들의 첫 집들이를 축하하는 큰 연회를 차리였다.

주인의 악단친구들이 몽땅 찾아와 악기들을 연주하는통에 연회는 즐거우면서도 소란스럽기도 하였다. 손님들은 집주인의 드람소리에 맞추어 춤추고 노래부르고 악기를 연주하였다.

새벽 1시가 지나자마자 전화종소리가 울리였다. 안주인이 홀에 나가 전화를 받고나서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와 남편에게 말하는것이였다. 《아래층에 금방 이사온 사람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 아래층에 들지 않은게 참 기쁘군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래층은 소란스러워서 죽을지경이래요.》

I am not an adherent to art for art' s sake. I will not even lift a finger to write artistic works in which there is nothing but artistic quality.

나는 예술을 위한 예술의 신봉자가 아니다. 나는 예술성밖에는아무것도 없는 예술작품을 쓰고저 손가락 하나 들지조차않을것이다.

(George Bernard Shaw, 1856-1950, 아일런드태생의 영국의극작가, 평론가. 192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Is It Good Manners or Not?
옳은 처사인가 아닌가?

Most of Nasreddin's neighbours were pleasant people, who were always ready to help each other when they were in trouble; but there was one woman who lived in his street who was disliked by everybody because she was always interfering in other people's business, and because she was always borrowing things from people and then forgetting to give them back.

Early one morning, Nasreddin heard a knock at his front door, and, when he opened it, he found this woman outside.

"Good morning, Nasreddin," she said. "I have to take some things to my sister's house in the town today, and I have not got a donkey, as you know. Will you lend me yours? I will bring it back this evening."

"I am sorry," answered Nasreddin. "If my donkey was here, I would of course lend it to you very willingly, but it is not."

"Oh?"said the woman. "It was here last night, because I saw it behind your house. Where is it now?"

"My wife took it into town early this morning," answered Nasreddin.

Just then the donkey brayed loudly.

"You are not telling the truth, Nasreddin!" the woman said angrily. "I can hear your donkey. You should be ashamed of yourself, telling lies to a neighbour!"

"You are the one who should be ashamed, not me!" shouted Nasreddin. "Is it good manners to believe a donkey's word rather than that of one of one's neighbours?"

내스레딘의 이웃들은 대부분이 좋은 사람들이여서 누가 불행에 빠지면 선뜻 도와주었다. 하지만 같은 거리에 사는 한 녀인만은 다른 사람의 일에 삐치기 일쑤고 남에게서 뭘 빌리고는 되돌려주는것을 잊어먹기때문에 모두가 싫어하였다.

어느날 아침 일찍 문두드리는 소리에 내스레딘이 문을 열어보니 그 녀인이 밖에 있었다.

《안녕하세요, 내스레딘. 오늘 시내에 있는 언니네 집에 뭘 좀 날라가야 돼서 그러는데 아시다싶이 저한테 하늘소가 없지 않나요. 당신걸 좀 빌려주시겠어요? 저녁에 돌려드리겠어요.》

《안됐구만.》 하고 내스레딘이 대답했다. 《하늘소가 있으면 기꺼이 빌려드리겠소만 지금 없구만.》

《어마나, 어제밤 있었는데요. 이 집 뒤에 있는걸 봤댔는데 지금 어데 있나요?》

《마누라가 오늘 아침 일찌감치 시내로 끌고갔수다.》

바로 그때 하늘소가 요란스럽게 울어댔다.

《거짓말을 하시는군요. 내스레딘!》 녀인은 화를 내였다. 《당신네 하늘소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이웃한테 거짓말을 하다니요. 부끄럽지두 않나요!》

《부끄러워해야 할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요.》 내스레딘이 소리질렀다. 《이웃사람의 말보다두 하늘소의 말을 더 믿는게 과연 옳은 처사요?》

One Big, Happy Family
하나의 행복한 대가정

Mr. and Mrs. Jones's flat was full of suitcases, trunks and packed-up furniture. The two of them were busy with pencils and paper, checking their lists of luggage, when there was a ring at the door, Mrs. Jones went to open it, and saw a well-dressed middle-aged lady outside. The lady said that she lived in the flat beside theirs, and that she had come to welcome them to their new home. The Joneses invited her in, after apologizing for the state of the flat.

"Oh, please don't stand on ceremony with me," she answered. "Do you know, in some parts of this town neighbours are not at all friendly. There are some streets and even some blocks of flats,

where people don't know their neighbours — not even their next-door ones. But in this block of flats, everybody is friends with everybody else. We are one big, happy family. I am sure that you will be very happy here."

The well-dressed lady got a shock when she came to visit the flat the next time, because she found a quite different man and woman in it. Mr. and Mrs. Jones had not had the courage to tell her that they were not the new owners of the flat, who were due to move in the next day, but the old owners, who had lived beside her for two years without her ever having visited them or even noticed their existence.

죤즈부부의 집은 함통이며 트렁크며 포장한 가구들로 가득차있었다. 그들 두 사람이 연필과 종이장을 가지고 물품명세를 검사하느라 바쁜데 초인종소리가 울렸다. 죤즈부인이 가서 문을 열어보니 잘 차려입은 웬 중년녀인이 밖에 있었다. 옆집에서 산다면서 새집들이를 축하하러 왔노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죤즈부부는 집안이 정돈되지 않아 미안하다면서 그를 안으로 맞아들이였다.

《아이구머니, 제발 저한테 깍듯이 례식을 차리느라 그러지 말아요. 이 도시 어떤데 가면 이웃들끼리 서로 친근하지 못한데가 있기는 해요. 어떤 거리에서는 심지어 어떤 구획에서는 사람들이 이웃들끼리도 서로 모르고 지내는 판이예요. 웃집에서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는걸요. 하지만 이 구획에서는 모두가 다 친동기간으로 지내요. 우린 모두 하나의 행복한 대가정이예요. 틀림없이 여기서 사는게 무척 마음에 드실거예요.》

잘 차려입은 녀인은 다음번에 찾아왔을 때 깜짝 놀랐다. 그럴만도 한것이 전혀 낯모를 부부가 있었기때문이였다. 죤즈부부는 녀인에게 자기들이 이 집에 다음날 이사오게 되여있는 새 주인들이 아니라 이 녀인의 이웃에서 이태동안을 살아온 낡은 주인들이며 그동안에 이 녀인이 자기들을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을뿐더러 지어는 자기들이 있다는것자체를 알지 못하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줄 용기를 가지고있지 못하였던것이다.

3. Wisdom and Stupidity
지혜와 어리석음

The Best Way to Avoid Preaching
설교를 피하는 제일 좋은 방도

Nasreddin had to preach in the mosque every Friday, but he did not like this duty at all, and was always looking for ways to avoid it. One Friday he had a good idea. When he went up to begin to preach to the people in the mosque, he said to them, “Do you know what I am going to talk to you about?”

They were surprised and answered, “No, we do not.”

Then Nasreddin said, “Well, if you do not know anything about such an important matter, it is a waste of time for me to talk to you about it.” And he went down again without preaching to the people.

The next Friday, he again asked the question, “Do you know what I am going to talk to you about today?”

This time the people thought that they had learnt their lesson, so they all said, “Yes, we do.”

Then Nasreddin said to them, “Well, it is a waste of time to tell people things that they already know.” And again he went down without preaching to the people.

The third Friday, Nasreddin again said, “Do you know what I am going to preach to you about today?” But this time some people answered, “Yes,” and some answered, “No.”

“Well,” said Nasreddin, “if some of you know, and some of you do not, those that do can tell those that do not.” and again he went down without saying another word.

내스레딘은 매주 금요일이면 이슬람교사원에서 설교를 하여야

했는데 그는 그 계률을 지키는것을 좋아하지 않았던지라 늘 그것을 피할 방도를 찾고있었다. 어느 금요일날 그에게는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 사원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러 나갔을 때 그는 말했다.《제가 이제 뭘 말하려 하는지 압니까?》

그들은 깜짝 놀라 대답했다. 《알다니요. 우린 모릅니다.》

그러자 내스레딘이 대답했다.《그렇단 말이지요.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계신다면 제가 그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건 시간랑비로 됩니다.》 그리고나서 그는 설교를 하지 않고 도로 내려왔다.

다음주 금요일에 그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였다.《제가 오늘 뭣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미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했던지라 이번에는 《예, 압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내스레딘이 말했다.《그렇습니까? 다들 이미 알고있는걸 말해주는건 시간랑비로 되는 법이지요.》 그리고는 설교를 하지 않고 또다시 내려오고말았다.

세번째주 금요일날에 내스레딘이 다시한번 말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설교하려는지 아십니까?》 한데 이번에는 일부 사람들이 《압니다.》 하고 대답하고 일부는 《모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아시는분들도 있고 모르시는분들도 있는데 아시는분들은 모르시는분들에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나서 내스레딘은 다시금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내려왔다.

"The Best Wish"
《가장 큰 소원》

"How I wish I had never learned to write," said Nero.

《글쓰는것을 배우지 않았으면 하고 내 얼마나 바랐던가.》 하고 네로는 말했다.

※ Nero(37-68)-고대로마의 황제

A Queer Fisherman
괴이한 낚시군

One morning a man was crossing a narrow bridge when he saw a fisherman on the shady bank of the deep, smooth river under him, so he stopped to watch him quietly.

After a few minutes, the fisherman pulled his line in. There was a big, fat fish at the end of it. He took it off the hook and threw it back into the water. Then he put his hook and line in again. After a few more minutes he caught another big fish. Again he threw it back into the river. Then, the third time, he caught a small fish. He put it into his basket and started to get ready to go.

The man on the bridge was very surprised, so he spoke to the fisherman. He said, "Why did you throw those beautiful, big fish back into the water, and keep only that small one?"

The fisherman looked up and answered. "Small frying-pan."

어느날 아침 좁은 다리를 건너가던 사람이 그아래로 흐르는 잔잔하고 깊은 강의 그늘진 동뚝에 앉아있는 낚시군을 보자 문뜩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그를 지켜보았다.

몇분후에 낚시군이 줄을 잡아당겼다. 그 끄트머리에 커다랗고 살찐 고기 한마리가 매달려있었다. 낚시군은 낚시를 빼고는 고기를 도로 물속에 던지였다. 그리고나서 그는 낚시를 끼우고 다시 줄을 늘였다. 몇분후에 또 큰 고기 한마리를 낚았다. 낚시군은 이번에도 그것을 물속에 집어던졌다. 그러다 세번째로 자그마한 고기를 잡았다. 낚시군은 그것을 바구니안에 집어넣고는 돌아갈 차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다리우에 있던 사나이는 깜짝 놀라 낚시군에게 물어보았다. 《어째서 그 크구 멋진 고기는 도루 물속에 던져버리구 그렇게 작은것만 건사하는거요?》

낚시군은 우를 쳐다보더니 대답했다. 《남비가 작아서요.》

A Good Husband
훌륭한 남편

One morning Mrs. Perry said to her husband, “Jack, there’s a meeting of our ladies’ club at Mrs. Young’s house at lunch time today, and I want to go to it. I’ll leave you some food for your lunch. Is that all right?”

“Oh, yes,” her husband answered, “that’s quite all right. What are you going to leave for my lunch?”

“This tin of fish,” Mrs. Perry said. “And there are some cold, boiled potatoes and some beans here, too.”

“Good,” Mr. Perry answered. “I’ll have a good lunch.”

So Mrs. Perry went to her meeting. All the ladies had lunch at Mrs. Young’s house, and at three o’clock Mrs. Perry came home.

“Was your fish nice, Jack?” she asked.

“Yes, but my feet are hurting,” he answered.

“Why?” she asked.

“Well, the words on the tin were, ‘Open tin and stand in hot water for five minutes.’”

어느날 아침 페리부인은 남편에게 말했다. 《잭크, 오늘 점심에 양부인의 집에서 우리 부인구락부모임이 있게 돼요. 나도 거기에 참가하고싶어요. 점심에 당신이 드실건 몇가지 둬두고 가겠어요. 일없겠어요?》

《아하, 그렇게 하오.》 남편이 말했다. 《내가 먹을 점심으로 어떤걸 두고가려우?》

《이 물고기통졸임이예요.》 페리부인이 말했다. 《그리구 랭동한 삶은 감자와 콩도 좀 있구요.》

《좋구만, 점심식사가 훌륭하겠는걸.》

그렇게 되여 페리부인은 모임에 갔다. 부인들은 다들 양부인의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다나니 3시에야 페리부인이 집으로 돌아왔다.

《잭크, 물고기가 괜찮았어요?》 그 녀자가 물었다.

《괜찮더군, 그렇지만 내 발이 쿡쿡 쏴나오.》 남편이 대답했다.

《왜 쏜다는거예요.》 페리부인이 물었다.

《왜긴 왜겠소? 통졸임우에 씌여있더군. <통졸임을 터치고 뜨거운 물에 5분간 서있으십시오.>》

A World-famous Singer
세계적인 명가수

One day when Nasreddin was having a bath, he began to sing. The bathroom was small and had a stone floor, so his song was very beautiful, he thought. "Oh," he said, "I sing very well. I will sing to other people too, and perhaps I will become a famous singer, and everybody in the world will want to hear me." So after his bath Nasreddin went up on to the flat roof of the house and began to sing his song very loudly. But he did not like it very much when he sang it there.

A man was walking across the square in front of the house, and when he heard Nasreddin, he said, "What are you doing? You are making a terrible noise. Nobody wants to hear it."

"Oh, you think so, do you?" answered Nasreddin. "Well, I really sing very beautifully. Come to my bathroom and you will hear me."

어느날 내스레딘은 한창 목욕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욕실은 자그마한데다 돌바닥이여서 그는 자기 노래가 무척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어허! 내가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불러줄테야. 그럼 내가 유명한 가수가 될지도 몰라. 그리구 세상사람모두가 내 목소리를 듣고싶어할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여 목욕을 끝낸 내스레딘은 평지붕우에 올라가 큰 소리로 목청을 뽑기 시작했다. 그런데 거기서 노래부르며 들으니 노래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한사람이 내스레딘의 집앞에 있는 광장을 건너가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말했다. 《자네 뭘하구있나? 끔찍히두 고함지르구있군.

그 소릴 듣고싶어하는 사람이 없네.》

《아, 그렇게 생각되나? 그렇다? 》내스레딘이 대답했다. 《그래, 사실 난 아주 잘 부른다네. 우리 집 욕실에 들어와 한번 들어보게나.》

A Good Door-Keeper
훌륭한 문지기

Once, when Nasreddin was a boy, his mother went out for a picnic. Before she went, she said to him, "Nasreddin, while I am away, stay near the door, and watch it all the time." She said this because there were a lot of thieves in their town.

Nasreddin sat down beside the door. After an hour one of his uncles came. He said to Nasreddin, "Where is your mother?"

"At a picnic," he answered.

"Well," said the uncle, "we are going to visit your house this evening. Go and tell her!"

His uncle then went away, and Nasreddin began to think: Mother said, "Watch the door all the time!" and uncle said, "Go and tell her!" He thought and thought, then at last, he pulled the door down, put it on his back and went to his mother with it!

내스레딘이 아이적에 있은 일인데 한번은 어머니가 들놀이를 나간적이 있었다. 떠나기 전에 어머니는 내스레딘에게 말했다. 《얘야, 내가 나가있는 새에 문곁에 있거라.》 그들이 사는 도시에 도적들이 많았기때문에 일렀던것이다.

내스레딘은 문곁에 앉았다. 한시간후에 그의 삼촌 한사람이 와서 물었다. 《어머닌 어디 있니?》

《들놀이를 갔어요.》 내스레딘이 대답했다.

《그래,》 삼촌이 말했다. 《우린 오늘 저녁에 너의 집엘 찾아오련다. 가서 어머니한테 알려주거라.》

그의 삼촌은 그러고는 가버렸다. 내스레딘은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머닌 <문을 계속 지켜보거라.>하구 말했지. 그리구 삼촌은 또 말했어. <가서 어머니한테 알려주거라.>하구.》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마침내 문짝을 떼서 잔등에 지고는 어머니한테로 낑낑 달려갔다.

A Very Good Dinner
아주 훌륭한 저녁식사

Many years ago, an English family were living in China. One evening an important Chinese officer came to visit them. It got later and later, and he still did not go, so his hostess invited him to have dinner with them. But she had very little food in the house, so she quickly went to the kitchen and spoke to her Chinese cook. He said, "It is all right. You will have a very good dinner."

When they all sat down to eat, the lady was very surprised, because there was a lot of very good food on the table.

After the dinner, the hostess ran to the kitchen and said to the cook, "How did you make such a good meal in half an hour?"

"I did not make it, madam," he said. "I sent one of the servants to the Chinese officer's house, and he brought back the Chinese officer's dinner."

오래전에 있은 일인데 어느 영국인가정이 중국에서 살고있었다. 어느날 저녁 요직에 있는 한 중국인관리가 그들을 방문하려고 찾아왔다. 점점 날은 어두워지는데 관리는 아직도 가지 않아 안주인은 같이 저녁식사를 하자고 그를 청하였다. 그런데 집에는 먹을것이 극히 적어서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가 중국인료리사에게 분부하였다. 료리사는 말했다. 《다 제대로 될겁니다. 아주 훌륭한 저녁식사를 하게 될테니까요.》

식사를 하려고 다들 나앉았을 때 녀주인은 깜짝 놀랐다. 식탁에 갖가지 음식들이 올랐던것이다.

식사가 끝나자 녀주인은 부엌으로 달려가 료리사에게 물었다. 《반시간안으로 어떻게 그런 훌륭한 식사를 준비하였는가요?》

《제가 료리한게 아닙니다, 마님》 그가 말했다. 《하인 한사람을 그 관리네 집으로 보냈더니 그가 그 관리의 저녁식사를 날라왔지요.》

Instead of a Walking-stick
지팡이대신에

It was a beautiful spring morning. There wasn't a cloud in the sky, and the sun was warm but not too hot, so Mr. Andrews was surprised when he saw an old gentleman at the bus-stop with a big, strong black umbrella in his hand.

Mr. Andrews said to him, "Are we going to have rain today, do you think?"

"No", said the old gentleman, "I don't think so."

"Then are you carrying the umbrella to keep the sun off you?"

"No, the sun is not very hot in spring."

Mr. Andrews looked at the big umbrella again, and the gentleman said, "I am an old man, and my legs are not very strong, so I really need a walking-stick. But when I carry a walking-stick, people say, 'Look at that poor old man,' and I don't like that. When I carry an umbrella in fine weather, people only say, 'Look at that stupid man.'"

맑게 개인 어느 봄날 아침이였다. 하늘에 구름 한점 없고 해는 별로 따가운편이 아니여서 앤드류씨는 진흑색의 커다란 우산을 들고 뻐스정류소에 서있는 웬 늙은 신사를 보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앤드류씨는 물었다. 《오늘 비가 올것 같습니까?》

《웬걸요.》 늙은 신사의 대답이다. 《올것 같진 않소.》

《그럼 해빛을 막으려고 우산을 가지고 다니시는가요?》

《아니요. 봄날엔 해빛이 그닥 따갑지 않지요.》

앤드류씨가 커다란 우산을 다시금 내려다보자 신사는 말했다. 《난 늙은이요. 게다가 다리도 별로 든든칠 않으니 사실 지팽이신세를 져야 할 몸이요. 그러나 지팽이를 짚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 가엾은 늙은이를 좀 보라구.>하구 말하군 하오. 난 그 말이 싫거든. 내가 개인 날에 우산을 갖구 다니면 사람들은 이렇게만 말할거요. <저 어리석은 사람을 좀 보라구.>》

By the Same Clothes
꼭 같은 옷에 의하여

One day Mr. Robinson saw a lady in the street with ten children. He was very surprised because all the children were wearing the same clothes; white caps, dark blue coats and grey trousers. He asked the mother, “Are all those children yours?”

“Yes, they are,” she answered.

“Do you always dress them in the same clothes?” asked Mr. Robinson.

“Yes,” answered the mother. “When we had only four children, we dressed them in the same clothes because we did not want to lose any of them. It was easy to see our children when they were among other children, because they were all wearing the same clothes. And now, when we have ten, we dress them like this because we do not want to take other children home too by mistake. When there are other children among ours, it is easy to see them, because their clothes are different.”

어느날 로빈슨씨는 거리에서 열이나 되는 아이들을 거느린 부인을 보게 되였다. 애들이 하얀 모자를 쓰고 진곤색웃옷에 쥐색바지를 입은 꼭같은 차림새여서 그는 몹시 놀랐다. 그는 어머니에게 물었다.《모두 부인의 애들입니까?》

《예, 그래요.》 그 녀자가 대답했다.

《부인은 애들에게 늘 꼭같은 옷을 입힙니까?》

《예.》어머니가 대답했다. 《우리한테 애들이 네명밖에 안될 땐 어느 한애라도 잃어버릴가봐 꼭같은 옷들을 입혔댔어요. 그렇게 하니 다른 애들속에 있을 땐 찾기가 쉬웠댔어요. 그리구 지금 열이나 되는 애들에게 꼭같은 옷을 입힌건 헛갈려서 다른 애들도 집으로 데려갈가봐 그랬어요. 우리 애들속에 딴 애들이 끼여있을 땐 그 애들을 찾아내기가 쉽거든요. 차림새가 다르니깐요.》

"How Are You Here in the Market?"
《자네 어떻게 여기 장마당에 와있나?》

One day Nasreddin bought a donkey in the market; but while he was taking it home, two thieves followed him. One of them took the rope from the donkey's neck and tied it round his friend's neck. Then he went away with the donkey.

When Nareddin got home, he turned and saw the young man. He was very surprised. "Where is my donkey?" he said angrily.

"I am very sorry," said the thief, "but once I said some very bad things to my mother, and she changed me into a donkey. But because a good man bought me, I am now a man again! Thank you!"

Nasreddin untied the man and said, "Go! And never say bad things to your mother again!"

The next day, Nasreddin saw the same donkey in the market again! The other thief was selling it. Nasreddin went to it and said into its ear, "Young man, some people will never learn!"

어느날 내스레딘은 장마당에서 하늘소 한마리를 샀다. 그런데 그것을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두놈의 도적이 뒤를 슬금슬금 따르고있었다. 그중 한놈이 하늘소의 목에서 끈을 풀어서 동료의 목에다 매놓았다. 그러고나서 하늘소와 함께 달아났다.

집으로 돌아와서 내스레딘이 뒤를 돌아보니 웬 젊은이가 서있었

다. 깜짝 놀랐다. 《내 하늘손 어데 있소?》 그는 성이 나서 물었다.

《이거 몹시 미안합니다만,》 도적이 말했다. 《한번은 어머니한테 아주 나쁜 말을 했더니 어머니가 나를 하늘소로 만들어버렸수다. 한데 웬 훌륭한분이 저를 샀기때문에 전 이렇게 다시 사람으로 되였지요. 고맙습니다!》

내스레딘은 그 사람의 목을 풀어주며 말했다. 《가라구! 다신 어머니한테 나쁜 말을 하지 말라구!》

다음날 내스레딘은 장마당에서 꼭같은 하늘소를 또 보게 되였다. 다른 도적이 그놈을 팔고있었던것이다. 내스레딘은 그 하늘소한테로 가서 귀에다 대고 말했다. 《젊은이, 어떤 사람들은 전혀 모를거네!》

> It matters not how a man dies, but how he lives.
>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 하는것이 중요하다.
> (Samuel Johnson, 1709-1784, 영국의 시인, 사전편집자, 평론가. 18세기 후반기 영국문단의 중심인물이였음)

The Seven Donkeys
일곱마리의 하늘소

One morning Nasreddin left his house with six donkeys to go to the market. After a time, he got tired and got on to one of them. He counted the donkeys, and there were only five, so he got off and began to look for the sixth. This time there were six, so he got on to one of them again and they all started.

After a few minutes he counted the donkeys again, and again there were only five! While he was counting again a friend of his passed, and Nasreddin said to him. “I left my house with six donkeys; then I had five; then I had six again; and now I have only five! Look! One, two, three, four, five.”

“But, Nasreddin,” said his friend, “You are sitting on a donkey too! That is the sixth! And you are the seventh!”

어느날 아침 내스레딘은 하늘소 6마리를 거느리고 집을 떠나 장마당으로 향하였다. 얼마 안가서 몹시 지쳐난 그는 그중 한마리의 잔등에 넌떡 기여올랐다. 그리고 하늘소를 세여보니 5마리뿐인지라 그는 땅에 내려서 여섯번째 하늘소를 찾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여섯마리여서 한마리의 잔등에 다시 기여올라 떠났다.

몇분후 다시한번 하늘소를 세여보았는데 이번에도 다섯마리밖에 안되는것이 아닌가! 한창 다시 세여보는데 한 친구가 곁을 지나가길래 내스레딘은 그한테 물었다. 《내가 집을 떠날 때 하늘소가 여섯마리였네. 한데 다섯마리뿐이겠지. 그러다가 다시 여섯마리가 되더군. 그런데 지금은 또 다섯마리뿐일세! 보게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허, 내스레딘.》 친구가 말했다. 《자네가 올라타구 앉은것도 하늘소가 아닌가! 그게 여섯번째 놈일세! 그리구 자네까지 하늘소가 일곱마릴세그려!》

"Don't Be Stupid!"
《어리석은 소리 말게!》

Nasreddin had a shed behind his house. It had no lights in it. One night he went out to the shed to get his ladder, and lost his ring there. He left the ladder, went out into the street and began to look around.

One of his friends saw him in the street outside his house, and said to him, "Hullo, Nasreddin. What are you looking for?"

"My ring," answered Nasreddin. "It fell off my finger. It is a silver ring with a red stone in it."

"Oh, yes," said his friend. "I remember it. I will help you to look for it. Where did you lose it?"

"In my shed."

"But why don't you look for it there?"

"Don't be stupid! It is quite dark in my shed, so how will I find my ring there? Here there is light from the lamps in the street."

내스레딘의 집뒤에 헛간이 하나 있었다. 안에는 불을 켜지 않았다. 어느날 밤 그는 사다리를 가지러 헛간에 들어갔다가 그만 반지를 잃어버렸다. 그는 사다리를 둬두고 거리로 나와 사방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한 친구가 집앞에서 서성거리는 그를 보고 물었다. 《여, 내스레딘. 거기서 뭘 찾고있나?》

《반지를 찾는중일세.》 내스레딘이 대답했다. 《손가락에서 떨어졌네. 안에 홍보석이 들어있는 은가락지인데.》

《아, 그렇지.》 친구가 말했다. 《본 기억이 나네. 자넬 도와 찾아봅세. 어디서 잃었나?》

《헛간안에서네.》

《그런데 왜 거기서 찾지 않나?》

《어리석은 소리 말게! 헛간안이라는게 깜깜하기 그지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가락지를 찾는단 말인가? 여기 거리엔 가로등불빛이 있지 않나.》

Against All the Forks in the World
온 세상의 걸이대와 맞서

Nasreddin had an old shed. It had no windows, so it was very dark, and it was full of old things.

One day Nasreddin went into this shed to get a ladder, but slipped on something and fell against a big garden fork. The fork hit him on the head and knocked him down. Then it fell on top of him and hit him hard on the left leg. The ends of the fork then went into his long beard. He fought with the fork fiercely, and at last threw it off, jumped up and ran out of the shed. He was very angry. He had an old sword under his bed, and he now ran and got this. Then he ran back to the shed, opened the door suddenly and shouted in a terrible voice, “All right, come out and fight, you and all the other forks in the world! I’m not afraid of you!”

내스레딘에게는 낡은 헛간이 하나 있었다. 창문이 없다보니 안

이 무척 컴컴한데다가 낡은 물건들로 가득차있는 헛간이였다.

어느날 내스레딘이 사다리를 가지러 이 헛간안에 들어갔다가 무엇인가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커다란 걸이대에 부딪쳤다.

걸이대는 그의 머리를 치며 그를 넘어뜨렸다. 그다음 그의 몸우에 떨어지면서 그의 왼쪽다리를 호되게 때렸다. 그때 걸이대의 끝머리들이 그의 긴 턱수염속으로 쑥 기여들어왔다. 내스레딘은 걸이대와 맹렬한 싸움을 벌리여 마침내 그것을 떼여버리고 벌떠덕 일어나 헛간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몹시 화가 났다. 침대밑에는 옛날 단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뛰여가 그것을 찾아쥐였다. 그리고는 도로 헛간으로 내달아와 별안간 문을 열고서 무서운 소리로 웨치였다. 《좋아, 나와서 어디 붙어보자, 너와 그리구 이 세상의 모든 걸이대들아! 난 너희들이 무섭지 않다!》

Beauty is truth, truth is beautiful.
아름다운것은 진실이며 진실은 아름답다.
(John Keats, 1795-1821, 영국의 서정시인)

"April Fool!"
《4월바보!》

April 1st is a day on which, in some countries, people try to play tricks on others. If one succeeds in tricking somebody, one laughs and says, "April Fool!," and then the person who has been tricked usually laughs too.

One April 1st, a country bus was going along a winding road when it slowed down and stopped. The driver anxiously turned switches and pressed buttons, but nothing happened. Then he turned to the passengers with a worried look on his face and said, "This poor bus is getting old. It isn't going as well as it used to. There's only one thing to do if we want to get home today. I shall count three, and on the word 'three', I want you all to lean

forward suddenly as hard as you can. That should get the bus started again, but if it doesn't, I am afraid there is nothing else I can do. Now, all of you lean back as far as you can in your seats and get ready."

The passengers all obediently pressed back against their seats and waited anxiously. Then the driver turned to his front and asked, "Are you ready?"

The passengers hardly had enough breath to answer, "Yes."

"One! Two! Three!" counted the driver. The passengers all swung forward suddenly, and the bus started up at a great rate.

The passengers breathed more easily and began to smile with relief. But their smiles turned to surprised and then delighted laughter when the driver merrily cried, "April Fool!"

4월 1일이라면 일부 나라들에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넘기려고 애쓰는 날이다. 만일에 누구든 속여넘기는데 성공하는 경우 웃으면서 《4월바보야!》하고 말하며 그러면 속히운 사람도 보통 덩달아 웃군 한다.

어느해 4월 1일에 한 교외뻐스가 우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가다가 속도를 죽이더니 멈춰서는것이였다. 운전수는 근심스레 스위치를 돌리고 단추들을 누르고 하였지만 보람이 없었다. 그러자 그는 손님들에게 걱정이 어린 표정을 지은채로 돌아서며 말했다. 《이 가엾은 뻐스가 점점 수명이 다 되가는군요. 이전같지 않게 말을 듣질 않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들 가시려면 딱 한가지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셋까지 세겠으니 <셋> 할 때 여러분들은 모두 될수록 세게 앞으로 고개를 숙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 뻐스가 다시 발동이 걸릴것이요 혹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 저로선 별도리가 없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기 자리에서 될수록 멀찍이 몸들을 젖히고서 준비들을 해주십시오.》

손님들은 모두 그 말에 복종하여 좌석에 등을 대고서 걱정스럽게 기다리였다. 그러자 운전수는 앞으로 돌아서서 물었다. 《준비되였는가요?》

손님들은 《예》하고 대답할 숨조차 쉴 겨를이 없었다.

《하나! 둘! 셋!》하고 운전수가 셈을 셋다. 손님들은 모두 별안간에 앞으로 몸들을 확 숙이였다. 그랬더니 뻐스가 와당탕 하고 발동이 걸리였다.

손님들은 숨을 한껏 내쉬면서 안도의 미소를 짓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그 미소는 뜻밖에도 폭소로 바뀌여지고말았으니 운전수가 신이 나서 소리질렀던것이다. 《4월바보!》

Most Easily
제일 손쉽게

When a big ship is in very rough sea, it has to be able to bend a little, otherwise it may break in two. If one end of the ship is on the top of one huge wave, and the other end is on the top of another, with the middle of the ship hanging in between; or if one huge wave comes up under the middle of the ship, leaving the two ends hanging, the ship's own weight will break its back if it is quite stiff.

To make a big ship elastic enough to avoid this danger, it has joints where the sections of the ship come together above the water-line, and these joints open and shut slightly as the waves lift one section of the ship or another. This is enough to save the ship from breaking into pieces.

One day a sailor was walking along a passage-way in a big ship during a storm when he was surprised to see a boy sitting comfortably in a chair at the end of the passage-way, which was opposite one of the ship's joints. The boy had a bag of nuts beside him, and every time the ship was lifted by a wave and the joint opened, he put a nut in it. As the ship came down again, the joint closed and cracked the nut, gently but firmly. The boy then took it out and put the next one in as the joint opened again.

큰 배가 파도가 몹시 이는 바다에 떠있을 때엔 일정한 구부림성질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두쪼각으로 깨여질수 있다. 배의 한쪽 끝이 어떤 파도우에 떠오르는 경우 다른쪽 끝은 다른쪽 파도우에 실리게 되며 배의 가운데부분은 그사이에 둥 떠있게 된다. 혹은 거대한 파도가 배의 가운데부분에서 치솟아오르는 경우 량쪽 끝이 허궁 들리우게 되는데 이때 배의 뒤부분이 매우 꽛꽛하다면 배자체의 무게로 하여 뒤부분이 깨져나가게 될것이다.

큰 배가 이와 같은 위험을 피하는데 충분할만큼 유연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 배의 자름면들이 물잠긴선우에서 서로 맞대이는 련결부위가 있게 되며 이 부분들이 파도가 배의 이쪽 부분 혹은 저쪽 부분을 떠올리는 경우 약간 벌어지거나 닫기게 된다.

어느날 한 선원이 폭풍이 이는 때 큰 배안의 통로를 따라 걸어오다가 한 소년이 배의 련결부의 맞은편에 있는 통로끝에 놓인 의자우에 편안히 앉아있는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소년은 옆에 호두주머니를 놓고 앉아서 배가 파도에 둥실 솟아오르고 그때문에 련결부위가 벌어질 때마다 호두를 그안에 넣었다. 배가 다시 내려올 때 련결부위가 닫기면서 호두를 슬며시 그러면서도 꽉 깨뜨렸다. 그때 소년은 그것을 꺼낸 다음 련결부가 다시금 벌어지자 호두알을 또 집어넣는것이였다.

"What Is Most Valuable and What Is Most Worthless in the World?"
《세상에서 제일 쓸모있는것과 쓸모없는것이 무엇인가?》

Nasreddin sat drinking coffee and talking with some of his old friends. One of the things they discussed was the difference between one person's sense of values and another's. After some minutes, one of Nasreddin's friends said to him, "Well, Nasreddin, you are a wise man, but you have said nothing on this subject yet. What do you consider to be the most valuable thing in the world?"

Nasreddin answered without hesitation, "I consider advice

the most valuable thing in the world."

His friends thought about this for a few moments, and then one of them asked him, "And what do you consider the most worthless thing in the world?"

Again Nasreddin replied without hesitating for a moment, "I consider advice the most worthless thing in the world."

"Really!" said one of his friends. "You must be joking, Nasreddin! A minute ago you said that advice is the most valuable thing in the world, and now you say that it is the most worthless thing in the world! How can it be both the most valuable and the most worthless?"

"Well," answered Nasreddin, "if you think about the matter carefully, you will see that I am not joking, and that I am quite right. When you give somebody good advice, and he takes it, advice is the most valuable thing in the world. But when you give a person advice and he does not take it, it is the most worthless thing in the world."

내스레딘이 막역지우들 몇명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앉아서 한담을 나누고있었다. 그들이 론하고있는것의 하나는 한사람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의 가치관의 차이에 대한것이였다. 몇분후에 내스레딘의 친구가 그에게 말했다. 《이보라구, 내스레딘. 자넨 똑똑한 사람이네만 이 문제에 대해선 여적 한마디도 하지 않았네. 이 세상에서 제일 쓸모있는것이 뭐라구 생각하나?》

내스레딘이 제꺽 대답했다. 《난 충고가 세상에서 제일 쓸모있는것이라구 생각하네.》

친구들이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었는데 한 친구가 물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게 뭐라구 생각하나?》

내스레딘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대답했다. 《충고가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거라구 생각하네.》

《정말인가!》 한 친구가 대답했다. 《틀림없이 자넨 롱담하구있네, 내스레딘! 1분전엔 충고가 제일 쓸모있는거라구 말하구선 이제

와서 제일 쓸모없는거라구 말하다니! 어떻게 충고가 제일 쓸모있기도 하고 제일 쓸모없기도 한것으로 될수 있나?》

《그건말이네.》내스레딘이 대답했다. 《그 문제에 대해 주의깊이 생각해보면 내 말이 옳다는걸 알게 될거네.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충고를 주어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충고가 제일 쓸모있는것으로 된다네. 그러나 충고를 주어 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것이란 말이네.》

How to Make Everybody Happy?
모두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면?

Peter's uncle lived in the country. Once Peter went to stay with him for a few weeks. Whenever they went for a walk or for a drive in the car and they passed somebody, his uncle waved. Peter was surprised, and said, "Uncle George, you know everybody here. Where did you meet them all?"

"I don't know all these people," said his uncle.

"Then why do you wave to them?" asked Peter.

"Well, Peter," answered his uncle, "when I wave to someone and he knows me, he is pleased. He continues his journey with a happier heart. But when I wave to someone and he doesn't know me, he is surprised and says to himself, 'Who is that man? Why did he wave to me?' So he has something to think about during the rest of his journey, and that makes his journey seem shorter. So I make everybody happy."

피터의 삼촌이 촌에서 살고있었다. 한번은 피터가 몇주일간 그와 함께 지낸적이 있었다. 산보를 나가거나 차를 타고 돌아다닐 때마다 삼촌은 아무 사람의 곁을 지나든 손을 흔들어보였다. 피터는 놀라서 물었다. 《죠지삼촌, 삼촌은 여기 사람들을 다 알고있군요. 그 사람들모두를 어디서 만났댔어요?》

《다들 모르는 사람들이다.》 삼촌이 하는 말이였다.

《그럼 어째서 손을 흔들어줘요?》 피터가 물었다.

《그건말이다, 피터.》 삼촌이 대답했다. 《내가 손을 흔들어주면 나를 아는 사람은 기뻐한단다. 그럼 그 사람은 보다 즐거운 마음을 안고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된다. 하지만 내가 손을 흔들어주는 사람이 나를 모르면 그는 어리둥절해서 이렇게 생각할거란 말이야. <저 사람은 누굴가? 어째서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을가?> 그렇게 되여 그한테는 가던 길을 마저 가면서 뭔가 생각해볼것이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하여 려행길도 더 짧아져보인단다. 그렇게 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단다.》

4. Greed and Miserliness
욕심과 린색

The Three Cheats
세 협잡군

Three people were walking along a street, first a big man, then a pretty woman, and then an old gentleman. The first two went round a corner. Suddenly the gentleman saw a piece of paper on the ground. He picked it up. It was five pounds. A few seconds later, the young woman came back. She was crying. “I have dropped five pounds,” she said.

“Don’t cry,” said the gentleman. “Here it is.” The young woman thanked him and went away. After a few seconds, the big man came back. He was looking for something. Suddenly a window opened and a small man looked out. “I saw five pounds fall from your pocket,” he said, “but that man gave it to a young woman.” The big man was very angry. The gentleman was frightened and gave him another five pounds. When he had gone,

the young woman came back to get her one pound sixty-seven pence, and the small man came out to get his.

세 사람이 거리를 걸어가고있었는데 맨앞에서 몸집이 큰 사나이가 가고 아릿다운 용모를 가진 녀인이 뒤따라가고있었으며 그다음에는 나이 지숙한 신사가 가고있었다. 첫 두사람이 굽인돌이를 하나 돌아갔다. 갑자기 신사는 땅바닥에서 종이장 하나를 보았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5£짜리 돈이였다. 좀 있어 젊은 녀인이 되돌아왔다. 그 녀자는 울고있었다. 《5£를 떨구었어요.》

《울지 마오.》 신사가 말했다. 《여기 있소.》 젊은 녀인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버렸다. 좀 있어 몸집이 큰 사나이가 돌아왔다. 그는 무엇인가를 찾고있었다. 문뜩 창문 하나가 열리더니 몸집이 체소한 사나이가 밖을 내다보는것이였다. 《당신의 주머니에서 5£가 떨어지는것을 내 보았소.》 그가 하는 말이였다. 《한데 저 사람이 그걸 웬 젊은 녀자한테 주더군.》 몸집이 큰 사나이는 몹시 화를 내였다. 신사는 더럭 겁이 나서 그 사람에게 자기 돈 5£를 주었다. 그가 가버리자 아까 왔던 젊은 녀인이 도로 와서 1£ 67d를 받아갔고 체소한 사람이 밖으로 나와 자기의 돈을 달래갔다.

"Aren' t You Ashamed of Yourself?"
《부끄럽지도 않은가?》

Nasreddin never seemed to have enough money to pay his bills, so he always owed money to the shopkeepers in his town. Most of them were patient, understanding men and did not speak to him very often about the money that he owed them, but there was one who was not at all patient, and who was also very fond of money. Whenever this man saw Nasreddin, he reminded him of the money that he had not yet paid him, and he very often did this in front of Nasreddin's best friends, which made Nasreddin feel very uncomfortable, as he did not want his friends to know that he was so poor.

One day, therefore, Nasreddin decided to teach the shopkeeper a lesson. The next time that the man stopped him in the street and began to shame him publicly about his debt to him, Nasreddin said, “Wait a minute. How much money do I in fact owe you?”

“You owe me exactly one hundred and twenty-two liras,” answered the shopkeeper.

“Well,” said Nasreddin, “if I paid you forty liras this month, another forty next month, and forty more the month after that, how much would I still owe you?”

“You would then owe me two liras, of course,” answered the shopkeeper.

“Well, aren’t you ashamed of yourself,” Nasreddin said, “giving me all this trouble for only two liras?”

내스레딘은 계산서를 청산할만 한 돈이 없는 모양인지 시내에 있는 소상인들한테 늘 봐야 빚을 지기 일쑤였다. 소상인들 대부분이 참을성이 있어서 사람들을 리해하면서 내스레딘이 빚지고있는 돈에 대해선 웬간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사람만은 인내성이라고는 전혀 없는데다가 돈을 또한 몹시도 사랑하였다. 이 사람은 내스레딘을 볼적마다 그가 아직 물지 못하고있는 돈이야기를 꺼내군 하였는데 너무나도 자주 내스레딘의 제일 가까운 친구들앞에서 그러다보니 친구들이 자기가 그만큼 못산다는것을 알지 말았으면 하는 내스레딘이였던지라 기분이 몹시도 언짢았다.

그래서 어느날에는 그 상인에게 훈계를 할 작정을 하였다. 그후 그 상인이 또다시 그를 거리에서 멈춰세우고 빚을 지고있다는데 대해 내놓고 창피를 주기 시작하자 내스레딘이 말했다. 《잠간만, 도대체 내가 당신한테 빚을 얼마만큼 지고있소?》

《정확히 122L의 돈을 빚지고있소.》 소상인이 대답했다.

《그런가요. 이달에 내가 40L를 물고 다음달에 또 40L를 물고 또 그 다음달에 40L를 물게 되면 내가 아직 물지 못하고있는 돈이 얼마나 될것 같소? 》

《그럼 2L를 빚진걸루 되네.》

《그렇소. 부끄럽지두 않소?》 내스레딘이 대답했다. 《겨우 2L를 빚진걸 가지구 이렇게 지지리두 괴롭혀대는게.》

※ L=lira(화페기호)

Jim and His lazy Friend
짐과 게으른 친구

Two friends were camping together. Their names were Jim and Tim. Tim was very lazy. The first evening of their holiday, Jim said to Tim, “Here’s some money. Go and buy some meat.”

“I’m very tired.” said Tim. “You, go.”

So Jim went to buy the meat. When he came back, he said to Tim, “Now, here’s the meat. Please cook it,”

But Tim answered, “No, I’m not good at cooking. You do it.”

So Jim cooked the meat. Then he said to Tim, “Cut the bread,” but Tim answered, “I don’t want to,” so Jim cut the bread.   Then he said to Tim, “Go and get some water, please.”

“No, I don’t want to get my clothes dirty,” Tim answered, so Jim got the water.

At last Jim said, “The meal’s ready. Come and eat it.”

“Well, I’ll do that,” answered Tim. “I don’t like saying ‘No’ all the time.”

두 친구가 함께 야영을 하고있었다. 그들은 짐과 팀이라고 불렀다. 팀은 몹시 게으른 사람이였다. 휴가 첫날 저녁 짐은 팀에게 말했다. 《여기 돈이 좀 있네. 가서 돼지고기를 좀 사오라구.…》

《난 몹시 피곤하네.》 팀이 대답했다. 《자네가 가게.》그래서 짐이 고기 사러 갔다. 돌아오자 짐은 팀에게 말했다. 《자, 고기를 가져왔네, 어서 료리하게나.》 그러나 짐은 대답했다. 《아니, 난 료리는 락제라네. 자네가 하게나.》 그래서 짐이 료리를 하였다.

그때에 짐이 말했다. 《빵을 썰게나.》 그러나 팀은 대답했다.

《난 하고싶지 않아.》 그러다보니 이번에도 짐이 하였다.
그다음 짐이 말했다. 《가서 물을 좀 가져오게. 어서.》
《아니. 옷을 마추고싶지 않네.》 팀의 대답에 짐이 물을 길어왔다.
드디여 짐이 말했다. 《식사가 다 되였네. 와서 먹으라구.》
《좋네, 그러하지.》 팀이 대답했다. 《<아니>라구 늘쌍 대답하긴 싫네.》

"Quick, Lock the Door!"
《냉큼 문을 거오!》

Nasreddin was sitting by a window in his house one day in the middle of winter, when he heard women outside crying. He put his head out of the window, and saw a lot of people coming towards his house. They were carrying a dead man, and the women were crying, "Oh, why are you leaving us to go to a place without light and without a fire and without food? It will be dark there, and you will be cold and hungry. Nobody will look after you, nobody will be kind to you, and nobody will love you there!"

"My God!"said Nasreddin to his wife. "They are talking about our house. They are bringing the dead man here! Quick, lock the door! Don't let him in!"

어느 겨울날에 내스레딘이 자기네 집 창문가에 앉아있는데 밖에서 녀인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으로 머리를 쑥 내밀고 보니 숱한 사람들이 자기네 집쪽으로 오고있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을 날라오고있었는데 녀인들이 통곡을 했다. 《애고, 어째서 당신은 우리들을 남겨두고 빛도 없고 불도 오지 않고 먹을것도 없는 곳으로 가려 해요? 거긴 깜깜하고 춥고 또 배고플거우다. 누구도 당신을 돌보지 않을거구. 당신을 따뜻이 대해주지 않을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은 누구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거우다!》
《야단났군!》 내스레딘이 안해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이 우리

집에 대한 소리를 하고있소. 죽은 사람을 여기로 날라오고있단 말이요! 냉큼 문을 거오! 죽은 사람을 들여놓지 마오!》

“Your Pot Died.”
《자네의 단진 죽었네.》

Nasreddin wanted a big pot for a party, so he borrowed one from a neighbour. After the party he took it back with another small pot inside.

“Your pot had a baby while it was with us,” he said.

Of course, the neighbour was very pleased, and when Nasreddin came to borrow the big pot again for another party, he lent it to him very gladly.

This time Nasreddin did not bring the pot back, so after a few days the man went to Nasreddin’s house.

“What has happened to my big pot?” he asked. “Why have you not brought it back yet?”

“Oh, the big pot?” said Nasreddin. “It died while it was with us.”

“Died?” said the neighbour angrily. “But pots do not die!”

“Why do you say that?” answered Nasreddin. “When I said, ‘The pot has had a baby,’ you did not say, ‘Pots do not have babiers,’ did you?”

연회에 쓸 일이 있어서 내스레딘은 옆집에서 커다란 단지를 하나 빌리였다. 연회가 끝난 후에 그는 작은 단지 하나를 안에다 넣어가지고 그 집에 가져갔다.

《자네네 단지가 우리와 함께 있을 동안에 애기를 하나 낳았네.》 그가 말했다. 물론 이웃은 대단히 흡족해하였다. 그래서 내스레딘이 또 연회를 차리느라고 커다란 단지를 또 빌리러 갔을 때 이웃은 제꺽 그한테 단지를 빌려주었다.

이번에는 내스레딘이 그 단지를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자 며칠이 지나 그 사람이 내스레딘의 집으로 찾아왔다.

《내 큰 단지가 어찌된 일인가?》 그가 물었다. 《왜서 아직까지 두 돌려주지 않는거나?》

《아, 큰 단지말인가?》 내스레딘이 말했다. 《우리 집에 와있는 새에 죽었다네.》

《죽다니?》 이웃은 성이 났다. 《제길할, 단지란건 죽지 않네.》

《어째서 그렇게 말하나?》 내스레딘이 말했다. 《<그 단지가 애기를 낳았네.>하구 내가 말했을 때 자넨 말하지 않았댔네. <단지는 애기를 배지 않는다.>구 말일세. 그렇지?》

Planning Ahead
미리 계획하여

Half an hour before daybreak, three of the boys met, as agreed, near the old bridge. The fourth boy by the name of Brian, had not turned up. No one was surprised that he wasn't there because they knew that his mother did not want him to come on this coming trip to the woods. They loaded their boat with the food, blankets and other things.

Dawn was just breaking as they climbed into the boat and pushed off from the bank. A swift current carried them downstream, so there was no need to row. Three hours later they entered the woods where they intended to spend the next few days.

"Let's go ashore now," suggested Frank, the oldest, "This looks like a good spot."

While Frank tied up the boat, the other two boys started gathering wood for a fire. Then Frank looked very worried. "We don't have any matches," he announced gloomingly. "Brian was supposed to bring them."

This was bad news. They were miles away from home now.

여러명의 소년들이 낡은 다리에서 동틀무렵에 만나기로 약속했

는데 세명만 만났다. 브라이언이라는 한 소년만이 나타나지 않았다. 누구도 그가 오지 않은것을 두고 놀라와하지 않았다. 브라이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오늘 아침에 등산하러 가는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것을 알고있었기때문이다. 그들은 먹을것과 담요 등등을 뽀트에 실었다.

동이 터올 때 그들은 뽀트에 올라 강뚝을 떠났다. 강물이 그들을 싣고 빨리도 흐르는지라 노저을 필요는 없었다. 3시간후에 그들은 이제 며칠을 보내게 될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여기가 제일 좋은 곳 같은데 여기에 내리자.》 나이가 제일 많은 프랭크가 말했다.

프랭크가 뽀트를 묶어놓는 동안 두 소년은 불을 피울 나무를 주었다. 그런데 좀 있어 프랭크가 울상이 되여 말했다. 《성냥이 없어. 브라이언이 성냥을 가져오게 되여있었어.》

이것은 아주 불쾌한 소식이였다. 그들은 이미 집으로부터 수mi 떨어진 곳에 있었던것이다.

It Rains
비가 오다

One day when Nasreddin was traveling, he came to a village. The people there said to him, "We have had no rain for three months, and we have no water. Our corn is dying. Please help us! Pray for rain!"

Nasreddin wanted to help these poor people, so he asked for a bucket of water. There was very little water in the village, but each family gave a little, and they filled a bucket and gave it to Nasreddin.

Then Nasreddin took off his shirt and began to wash it. The people were surprised and angry. "That water was for our children to drink, and you are washing your shirt in it!"

But Nasreddin said, "Wait!" He hung the shirt up to dry, and at once it began to rain.

"I have only one shirt," he said to the surprised people, "and when I wash it and hang it up to dry, it always rains."

어느날 내스레딘은 려행길에 어느 한 마을에 들렸다. 그곳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말했다. 《이때껏 석달째 비가 전혀 오지 않아 물이 없소. 곡식이 죽어가고있소. 제발 우리를 도와주시우! 비가 오게 기도를 드려주시오!》

내스레딘은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싶어서 물 한바께쯔를 요구하였다. 마을에는 물이 극히 적었지만 매 집에서 조금씩 해서 물 한바께쯔를 채워 내스레딘에게 주었다.

그러자 내스레딘은 웃옷을 벗더니 그것을 빨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화를 냈다. 《애들이 마실 물인데 당신은 그 물에다 옷을 담구고 빨다니!》

그러나 내스레딘이 말했다. 《기다려들 주시우.》 그가 옷을 말리우려고 널자 당장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한테 웃옷이란게 한벌밖에 없수다.》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런데 그것을 빨아 말리우려고 걸어두면 늘 비가 내리군 하더군요.》

5. Garden, Animals and Plants
정원과 동식물

Where Was the Snow Gone?
눈은 어디로?

One night there was a heavy snowstorm, and in the morning Mr. Smith's garden was full of deep snow. Mr. Smith wanted to take his car out, so he paid a man to clean the path from his garage to his gate. He said to this man. "Don't throw any snow on that side, because it will damage the bushes in my garden;

and don't throw any on the other side, because it will break my fence. And don't throw any into the street, or the police will be angry." Then Mr. Smith went out.

When he came back, the path was clean and the snow from it was not on the bushes, or the fence, or the street. Mr. Smith was very pleased, until he opened the garage to get his car out! The garage was full to the top with all the snow from the path, and his car was somewhere under it all!

어느날 밤 폭설이 쏟아져내려 이튿날 아침 스미스씨의 정원은 두텁게 깔린 눈천지로 변해버렸다. 스미스씨는 차를 꺼내려고 한사람을 불러다 돈을 주어 차고에서부터 시작하여 정문까지 이르는 길을 깨끗이 쳐달라고 하였다. 그는 일렀다. 《이쪽에다 버려선 안되겠네. 정원의 나무들이 부러질수 있거든. 그렇다고 저쪽에다 버려도 안되겠네. 울바자가 넘어질수 있으니까. 그리구 거리에다 눈을 쳐내진 말게. 그랬단 경찰에서 노발대발할거네.》 그리고나서야 스미스씨는 집을 나섰다.

돌아와보니 길은 말끔해지고 흰눈은 담장에도, 떨기나무에도, 거리에도 보이지 않았다. 스미스씨는 매우 흡족해하며 차를 꺼내려고 차고문을 열었다. 한데 이를 어쩌랴! 길에서 쳐낸 눈이 차고안에 천정까지 꽉 차있는데 그의 차는 그 눈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Where Are You Going?"
《자네 어디루 가나?》

One day Nasreddin's donkey was ill, so he borrowed a horse from an officer. It was a big, strong animal, and usually nobody rode it except the officer. It tried to throw Nasreddin off, but he stayed on it. Then it suddenly began to run away with him. He tried to turn it towards his house, and he tried to stop it, but it continued to run the opposite way.

One of Nasreddin's friends was working in his field and saw

him riding very fast towards this friend's house. He thought, "Why is Nasreddin riding so fast? Perhaps he has some bad news. Perhaps he is riding to my house to give me some bad news!"

He was frightened and shouted to Nasreddin, "Nasreddin! Nasreddin! What is the matter? Where are you going?"

"I don't know! Nasreddin shouted back. "This stupid animal hasn't told me!"

어느날 내스레딘은 하늘소가 앓아서 어느 관리한테서 말 한마리를 빌리였다. 몸집이 크고 힘이 센 놈인지라 여느때는 그 관리를 내놓고는 누구도 타지 못하였다. 그놈은 내스레딘을 뿌리쳐던지려고 요동을 쳤으나 그는 용케 잔등에 붙어있었다. 그러자 말은 별안간 그를 등에 태운채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내스레딘은 자기 집쪽으로 말머리를 돌려세우려고 애쓰기도 하고 멈춰세워보려고도 하였지만 말은 반대쪽으로 그냥 내달아갔다.

내스레딘의 친구 하나가 밭에서 일하다가 그가 말을 타고 자기 집쪽으로 급보로 달려오는것을 보았다. 그는 생각했다. 《어째서 저 사람이 저렇게 빨리 달려오고있을가? 무슨 불길한 소식이라도 있는가부지. 내 집쪽으로 말을 타고오는걸 보니 나한테 불길한 소식을 가져오는지도 몰라!》 그는 기겁을 하며 내스레딘에게 소리쳤다. 《내스레딘! 내스레딘! 무슨 일인가? 어디루 가고있나?》

《모르겠네!》 내스레딘이 등뒤에 대고 소리쳤다. 《이놈의 어리석은 짐승이 나한테 말하지 않았네.》

A Very Clever Cat
아주 령리한 고양이

Mrs. Andrews had a young cat, and it was the cat's first winter. One evening it was outside when it began to snow heavily. Mrs. Andrews looked everywhere and shouted its name, but she did not find it, so she telephoned the police and said, "I have lost a small black cat. Has anybody found one?"

"No, madam," said the policeman at the other end. "But cats are really very strong animals. They sometimes live for days in the snow, and when it melts or somebody finds them, they are quite all right."

Mrs. Andrews felt happier when she heard this. "And", she said, "our cat is very clever. She almost talks."

The policeman was getting rather tired. "Well then," he said, "why don't you put your telephone down? Perhaps she is trying to telephone you now."

앤드류즈부인에게는 작은 고양이가 한마리 있었는데 그 고양이가 첫해 겨울을 맞게 되였다. 어느날 저녁 고양이가 밖에 나가있는데 눈이 펑펑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였다. 사방을 찾아보며 고양이의 이름을 소리쳐불렀으나 나타나지 않자 앤드류즈부인은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자그마한 검정고양이 한마리를 잃었어요. 누가 본 사람이 없는가요?》

《없습니다, 부인.》 저쪽에서 경찰이 하는 말이였다.《하지만 고양이들은 사실 매우 강한 짐승이랍니다. 가끔 눈속에 여러날을 있어도 사는 때가 있는데 눈이 녹거나 누군가 고양이를 발견하고 보면 별일 없더군요.》

앤드류즈부인은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놓였다. 《아닌게 아니라》 그는 말했다. 《우리 고양이는 무척 령리하답니다. 말도 거의 하는데요 뭐.》

경찰은 좀 귀찮아나기 시작했다. 《아하, 그렇다면, 》그는 말했다. 《어째서 전화기를 내려놓지 않는가요? 아마 지금쯤 고양이가 부인한테 전화를 걸려고 애쓸겁니다.》

When angry, count ten before you speak.
화가 날 때면 열을 세고 말하라.

A Wonderful Gun Rack
훌륭한 총걸이

George and his friend Peter were fond of deer-hunting, and whenever they had a free day during the deer-hunting season, they took their guns and went off into the forest.

One Saturday they were sitting on a log eating their sandwiches and drinking their coffee when they saw a man walking through the snow towards them. He was dressed in deer-hunting clothes, but he had no gun with him. When he got nearer, the two friends saw that he was following a deer's track in the snow. They were both very surprised to see a man tracking a deer without a gun, so when he reached them, they stopped him and asked him whether anything was wrong and whether they could help him. The man sat down beside them, accepted a cup of coffee and told them his story.

Like them, he had gone out deer-hunting that morning with a friend. They had seen a deer with very big horns, and had followed it for some time. Then he had fired at it, and it had fallen just where it stood. He and his friend had run over to examine it, and he had said to his friend, "This deer's horns will make a wonderful rack for my guns when I get it home." He had then arranged his gun in the deer's horns and stepped back a few yards to see exactly how they would look as a gun rack on the wall of his study. He had been admiring the effect when the deer had suddenly jumped up, shaken itself and raced away, carrying his gun firmly stuck in its horns.

죠지와 그의 친구 피터는 사슴사냥을 좋아하여 사슴사냥계절에 여유시간이 있을 때면 총을 가지고 수림속에 들어가군 하였다.

어느 토요일 그들이 통나무우에 걸터앉아 쌘드위치를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눈속을 헤치며 웬 사람이 그들쪽으로 다가오는것이였

다. 사슴사냥군차림을 하고있었는데 총은 가지고있지 않았다. 그가 점점 가까이 다가올 때 두 친구는 그 사람이 눈우에 난 사슴발자취를 따라가고있다는것을 알았다. 총이 없이 사슴을 따라가고있는것을 띠여보고 그들은 둘 다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래서 그가 자기들 있는데 당도하자 그들은 그를 멈춰세우고 무슨 일이 생기지나 않았는지 자기네들이 도와줄것이 없는가고 물었다. 그 사람은 그들옆에 자리를 잡고 앉더니 커피 한잔 받아들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친구와 함께 그날 아침에 사슴사냥을 떠났다. 그들은 뿔이 무척 큰 사슴 한마리를 보고 한동안 쫓아갔다. 그러다가 총을 쏘자 사슴은 선자리에 나가넘어지는것이였다. 그는 친구와 함께 달려가 살펴보고나서 말했다.《집에 끌고가면 이놈의 사슴뿔이 총을 걸어놓는데는 그저 그만으로 될거요.》 그다음 그는 총을 사슴뿔에다가 걸어놓고 서재의 벽에 걸어놓을 총걸이로서 과연 어떻게 보일가 하고 가늠해보려고 몇yd(야드) 뒤로 물러섰다. 그가 그 효과에 대해서 흡족해하고있는 때에 사슴이 별안간에 뛰쳐일어나 부르르 몸을 떨더니 총이 뿔에 걸려있는채로 냅다 달아나는것이였다.

"It' s None of Your Business."
《당신 상관할바가 아니요.》

Nasreddin was a poor man, so he tried to grow as many vegetables as he could in his own garden, so that he would not have to buy so many in the market.

One evening he heard a noise in his garden and looked out of the window. A white ox had got into the garden and was eating his vegetables. Nasreddin at once took his stick, ran out and chased the ox, but he was too old to catch it. When he got back to his garden, he found that the ox had ruined most of his precious vegetables.

The next morning, while he was walking in the street near his house, he saw a cart with two white oxen which looked very much like the one that had eaten his vegetables. He was carrying his stick with him, so he at once began to beat the two oxen with it. As neither of them looked more like the ox that had eaten his vegetables than the other, he beat both of them equally hard.

The owner of the ox-cart was drinking coffee in a nearby coffee-house. When he saw what Nasreddin was doing to his animals, he ran out and shouted, “What are you doing? What have those poor animals done to you for you to beat them like that?”

“You keep out of this!” Nasreddin shouted back. “This is a matter between me and one of these two oxen. He knows very well why I am beating him!”

내스레딘은 가난한 사람이다보니 자기 집 터발에 될수록 남새를 많이 심어서 시장에서 그리 많이 사지 않아도 되게끔 하려고 하였다.

어느날 저녁 내스레딘은 터발에서 나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창문을 내다보았다. 흰 황소 한마리가 터발에 들어와 남새를 먹고 있었다. 내스레딘은 제잡담 막대기를 집어들고 달려나가 소를 뒤쫓아갔지만 너무 나이가 많다보니 붙잡지는 못하였다. 터발에 다시 돌아와보니 소가 그토록 소중한 남새를 거의다 짓뭉개놓았다.

이튿날 아침 거리를 따라 집가까이로 오고있는데 두마리의 하얀 황소를 메운 달구지를 하나 보았다. 남새를 먹어버린 그 황소와 너무나도 신통해보였다. 내스레딘은 지팽이를 갖고다니댔는데 대바람에 그것으로 두마리의 황소를 조겨대기 시작했다. 두마리의 소가 너무나도 생김이 비슷하여 그때 남새를 요정낸 황소를 분간하기 어려웠던지라 내스레딘은 그 두마리를 꼭같이 호되게 후려갈겼다.

소달구지임자가 가까이에 있는 차집안에서 커피를 마시고있었다. 내스레딘이 자기 짐승들보고 해대는것을 띠여본 그는 밖으로 달려나와 소리질렀다. 《임자 뭘하구있나? 그 불쌍한 짐승들이 임자한테 어떻게 했게 그렇게 때리구있나 말일세.》

《이거 제발 삐치지 말게!》 내스레딘이 마구 소리질렀다. 《이건 나와 이중의 한마리의 소와 관계되는 문제란 말일세. 내가 어째서 자길 때리고있는지는 이놈이 아주 잘 알구있네!》

"This Is Not Our Dog"
《이건 우리 개가 아니요.》

Mr. and Mrs. Brown were going abroad for their holiday. They had a dog called Blackie which they were very fond of, but they could not take him abroad with them, so they looked for a good place to leave him while they were away, and at last found a place which looked after dogs very well while their owners were away. They took Blackie there just before they left for their holiday, and sadly said goodbye to him.

At the end of their holiday, they got back to England very late at night, and as they thought that the place where Blackie was staying might be closed at that late hour, they decided to wait until the next morning before going to get him. So the next morning Mr. Brown got into his car and drove off happily to collect Blackie.

When he reached home with the dog, he said to his wife, "Do you know, dear, I don't think Blackie can have enjoyed his stay at that place very much. He barked all the way home in the car as if he wanted to tell me something."

Mrs. Brown looked at the dog carefully and then answered, "You are quite right, dear. He was certainly trying to tell you something. But he wasn't trying to tell you that he hadn't

enjoyed his stay at that place. He was only trying to tell you that you were bringing the wrong dog home. This isn't Blackie!"

브라운부인은 휴가차로 해외려행을 떠나려고 하였다. 그들에게는 블랙키라고 부르는 개 한마리가 있었는데 무척 사랑하고는 있었지만 외국에 데리고 갈수는 없는지라 나가있는 동안에 남겨둘만 한 좋은 곳을 찾아보았다.

마침내 주인들이 해외에 나가있는 새에 극진히 돌봐줄만 한 곳을 찾아내였다. 휴가를 떠나기 좀전에 그들은 블랙키를 데리고 그곳에 찾아가 힘들게 작별인사를 하였다.

휴가를 마치고 밤이 퍼그나 이슥하여서 그들은 영국에 돌아왔다. 블랙키가 머물러있는 곳이 지금같이 늦은 시간에는 문을 닫고있을것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찾으러 가자고 작정하였다. 그리하여 이튿날 아침에 브라운씨는 차에 올라 블랙키를 찾으러 기쁜 마음으로 차를 몰아갔다.

개를 데리고 집에 도착하여 안해에게 말했다. 《여보, 불랙키가 거기서 잘 지낸것 같지 않구만. 나한테 뭐라구 말하고싶은게 있는것처럼 차타고 집에 오는 길에 그냥 짖어대는게 아니겠소.》

브라운부인은 개를 찬찬히 보더니 말했다. 《당신 말씀이 정말 옳군요. 여보, 당신한테 뭐라구 분명 말하려구 애쓰고있어요. 한데 자기가 그곳에서 잘 지내지 못했다구 말하려는것 같지 않아요. 당신이 낯선 개를 집에 데리구 온다구 말하려고 애쓰고있군요. 이건 블랙키가 아니예요.》

-Be not the slave of words.
말의 노예가 되지 말라.
(Thomas Carlyle, 1795-1881, 스코틀런드태생의 영국의 사상가, 평론가, 력사가)
-A joke should not be carried too far.
롱 한마디라도 지내 멀리 던져선 안된다.

생활과 유모아

1 판

집　필	한룡덕 신정수	심　사	하천홍 문영옥
편　집	리충성		
장　정	김윤철	교　정	고영경
낸　곳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	인쇄소	김형직사범대학인쇄공장
인　쇄	주체101(2012)년 3월 7일	발　행	주체101(2012)년 3월 12일

교-11-보-302　　300부　　값 450원